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석 주

# 연결주의 관점에서 본 단어 형성 연구

-명사접미사를 대상으로-

A Study on Word-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ism

-Focused on noun suffixes-

2004년 8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나 은 미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석주

# 연결주의 관점에서 본 단어 형성 연구

-명사접미사를 대상으로-

A Study on Word-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ism

-Focused on noun suffixes-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나 은 미


羅恩美의 文學博士 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장 경 희 

審査 委員 송 철 아 

審査 委員 고 강 수 

審査 委員 이 은 희 

審査 委員 이 석 주   
|

## 연결주의 관점에서 본 단어형성 연구

-명사접미사를 대상으로-

이 논문은 단어의 저장 방식과 단어 형성의 상관관계를 연결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단어는 문장과 달리 기억된다. 즉 단어는 저장되는 것이다. 연결주의에서는 어휘부의 단어들이 독자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저장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망 속에 새로운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단어 형성 역시 어휘부에 단어들이 연결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장에서는 어휘부와 단어 형성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단어에 대한 논의는 형성의 기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었다. '규칙 기반 단어 형성'과 '유추 기반 단어 형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기제가 실은 어휘부에 대한 다른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단어 형성의 기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어휘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어휘부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연결주의 관점을 취한다. 연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Bybee(1985, 1988)에서 제안한 '어휘 강도'와 '어휘 연결'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으로 파생어의 내부 구조와 동일한 접미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파생어들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였다. 어휘의 연결방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패턴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제가 되며 동시에 이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단어를 연결하는 견인자(attractor)의 기능을 수행한다.

3장에서는 의미 영역을 기술하였다. 연결주의에서는 연결의 절점이 '내용(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분류가 중요하다. 의미를 분류하기 위해 존재론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명사접미사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의미 영역별로 개별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다. 파생어와 합성어는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된 복합개념체이다.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파생어의 결합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의미는 파생어 구성 성분의 의미만으로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파생어의 새로운 의미는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에 의해 발현된다. 그러므로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되는 의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5장에서는 접미사 상호간의 의미 관계를 기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배적 접사가 한정적 접사를 선행한다고 하였으나, 접미사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형태적 정보가 아니라 의미적 정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표면적으로 배타적 결합 양상을 보여 '저지 현상'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이, -음, -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음, -기'의 배타적 결합 양상은 이들 접미사의 고유 의미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 성과 및 의의를 제시하고 남은 문제 및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였다.

주요 어휘 : 연결주의, 어휘부, 어휘강도, 어휘연결, 단어형성규칙, 파생어, 의미 영역, 명사접미사, 단어 형성의 기제, 존재론적 분류 기준, 단어의 연결 방식, 의미적 패턴, 품사적 패턴

# 목 차

|                                     |           |
|-------------------------------------|-----------|
| <b>1. 서론</b> .....                  | <b>1</b>  |
| 1.1. 연구의 목적 .....                   | 1         |
| 1.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 4         |
| 1.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 8         |
| 1.4. 연구를 위한 개념 규정 .....             | 11        |
| <b>2. 어휘부와 단어 형성</b> .....          | <b>14</b> |
| 2.1. 단어 형성 기제와 어휘부 .....            | 14        |
| 2.1.1. 규칙에 의한 단어 형성 .....           | 15        |
| 2.1.2.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           | 19        |
| 2.2. 연결주의 방식과 언어 현상 .....           | 21        |
| 2.2.1. 연결주의 방식과 어휘부 .....           | 23        |
| 2.2.2. 어휘의 연결 방식 .....              | 24        |
| 2.2.2.1. 어휘 강도 .....                | 25        |
| 2.2.2.2. 어휘 연결 .....                | 27        |
| 2.3. 어휘의 연결 방식과 단어 형성 .....         | 32        |
| 2.3.1. 연결 방식과 패턴의 유형 .....          | 33        |
| 2.3.2. 패턴의 유형과 단어형성 .....           | 36        |
| 2.3.3. 품사적 패턴과 의미적 패턴 .....         | 39        |
| <b>3. 접미사의 의미 분류</b> .....          | <b>43</b> |
| 3.1. 의미 분류 기준의 필요성 .....            | 43        |
| 3.2. 의미 분류 기준의 유형과 접미사의 분류 기준 ..... | 46        |
| 3.2.1. 의미 분류 기준의 유형 .....           | 46        |
| 3.2.2. 접미사의 존재론적 분류 기준 .....        | 49        |
| 3.3. 접미사의 목록 설정과 범주 .....           | 51        |
| 3.4. 접미사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 .....          | 57        |

|                                |            |
|--------------------------------|------------|
| 3.4.1. [실체] 접미사 .....          | 57         |
| 3.4.2. [양식] 접미사 .....          | 61         |
| 3.4.3. 기타 접미사 .....            | 63         |
| <b>4. 어근과 접미사의 관계 .....</b>    | <b>65</b>  |
| 4.1. 어근과 접미사의 의미 결합 양상 .....   | 65         |
| 4.2. 파생어의 의미와 구성 요소의 의미 .....  | 69         |
| 4.3. 의미 영역별 접미사의 의미 .....      | 75         |
| 4.3.1. [사람] 영역의 접미사 .....      | 75         |
| 4.3.2. [사물] 영역의 접미사 .....      | 98         |
| 4.3.3. [사물]·[사람] 영역의 접미사 ..... | 100        |
| 4.3.4. [사건] 영역의 접미사 .....      | 103        |
| 4.3.5. [상태] 영역의 접미사 .....      | 104        |
| 4.3.6. [단위] 영역의 접미사 .....      | 106        |
| 4.3.7. [차원] 영역의 접미사 .....      | 109        |
| 4.3.8. 기타 접미사 .....            | 110        |
| <b>5. 접미사 상호간의 관계 .....</b>    | <b>113</b> |
| 5.1. 접미사의 의미와 서열적 결합 양상 .....  | 114        |
| 5.1.1. '-이'와 '-질'의 결합 양상 ..... | 118        |
| 5.1.2. '-개'와 '-질'의 결합 양상 ..... | 123        |
| 5.1.3. '-이'와 '-꾼'의 결합 양상 ..... | 125        |
| 5.1.4. '-질'과 '-꾼'의 결합 양상 ..... | 126        |
| 5.2. 접미사의 의미와 배타적 결합 양상 .....  | 130        |
| 5.2.1. 'X+음/기'의 정체성 .....      | 131        |
| 5.2.2. '-음, -기, -이'의 의미 .....  | 136        |
| <b>6. 결론 .....</b>             | <b>148</b> |
| 6.1. 요약 .....                  | 148        |
| 6.2. 연구의 의의 및 남은 문제 .....      | 150        |
| <br>참고문헌 .....                 | <br>151    |
| ABSTRACT .....                 | 161        |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어휘부의 저장 방식과 단어 형성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단어는 기억의 대상이다. 우리는 한번 사용한 문장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할 때 그 문장을 검색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한번 사용한 단어는 기억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쓰는 문제는 단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어 형성 논의에서 어휘부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어의 형성 및 저장이 일어나는 장소(심리적 장소이든, 물리적 장소이든)가 바로 어휘부이기 때문이다.

어휘부의 존재 방식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는 어휘부를 어휘의 목록과 규칙의 집합체라고 보는 생성문법적 관점이다. 생성문법에서 어휘부는 단어들의 저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입력형을 제공받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성 문법의 목표는 단어를 생성해 내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된다.<sup>1)</sup>

둘째는 어휘부를 어휘의 다차원적 연결체로 보는 연결주의 관점이다.<sup>2)</sup> 이 견해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모사하려는 작업들이 문제에 봉착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모사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컴퓨터 처럼 알고리즘적으로 규칙에 따라 계산한다는 계산주의를 전제하는 것이다.<sup>3)</sup>

---

1) 생성문법 초기에 어휘부는 어휘 목록의 단순한 저장소의 개념이었으며 어휘 항목(Lexical item)을 삽입하는 규칙은 다시 쓰기 규칙의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규칙일 뿐이었다. 즉 초기에는 어휘부가 단순한 어휘 목록의 개념이었으나, 새로운 단어 형성이 어휘 목록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이후 생성 형태론의 역사는 어휘부 내에 존재하는 단어형성규칙을 기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Halle(1973)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이 전적으로 어휘 목록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단어 형성 규칙(word-formation rule)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이후 생성형태론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논의에서 수용된다.

2) 연결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모(1996)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본질적으로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상이한 하드웨어라는 것이 밝혀진다. 연결주의 관점은 이러한 환경에서 대두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어휘부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장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번 만들어진 단어는 저장되며 저장된 단어는 검색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단어들의 저장 방식과 형성 방식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어에 대한 논의는 형성의 측면, 즉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단어의 저장 방식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단어 형성에 대한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의 상이한 단어 형성 기제는 결국 어휘부의 존재 방식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잉태된 것이다. 예컨대 규칙 기제의 관점에서는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초점이 있는 반면, 유추 기제는 공시적 형성에서 기존 복합어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기여하는가? 즉 화자의 공시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추 기제의 이러한 관점은 어휘부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어 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 하에서 진행된 것들이다. 김창섭(1981)<sup>4)</sup>, 송철의(1992), 정원수(1994), 시정곤(1998)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어휘부 안에 어형성 규칙을 인정하며 화자들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마다 어형성 규칙이 작동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Chomsky(1970)가 모듈 개념을 문법에 도입한 이래 생성형태론자들은 어휘부 내부에 대한 정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고, 문법 전반에서 어휘부의 위상이 중요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어휘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어휘부 안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채현식 2000:3).

규칙이란 예측성을 전제한 개념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규칙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

3) 모든 언어 현상을 규칙에 의한 연산절차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생성문법 역시 계산주의적 관점에서 있다.

4) 김창섭(1996)은 단어 형성의 기제로 규칙을 수용하면서도 파생의 경우는 '유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어 형성 규칙은 통사 규칙과 달리 예측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규칙 기반 관점에서는 이러한 낮은 규칙성을 제약으로 기술한다. 문제는 어떤 규칙은 지나치게 제약이 많아 과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어 형성에서 어근과 접사의 결합 규칙 중 어떤 접사는 한 두개의 어근과만 결합한다. 심지어 어떤 접사는 단 하나의 어근과만 결합하기도 한다.<sup>5)</sup> 유추를 단어 형성의 기제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유추는 단어 형성에 대한 화자의 심리 기제를 보편적 심리 기제인 유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본관(1993), 박진호(1994), 채현식(1999, 2000), 송원용(1998) 등이 이러한 관점에서 있다.

체계 내 모순의 극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의 보편적 현상이다. 즉 현재의 보는 틀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다보면 보다 효율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개념 체계와 방법론이 논의되고 결국 새로운 보는 틀이 옛 보는 틀을 대체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이정모 2001). 연결주의적 관점은 이러한 많은 대안적 패러다임 중 하나의 관점이다.

필자의 연구 역시 연결주의 관점에서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이 연구는 단어의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두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장과 달리 단어는 기억의 대상이다. 우리는 한번 이상 사용한 문장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할 때 그와 같은 문장을 검색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한번 이상 사용한 단어는 기억된다. 이러한 현상을 생성문법에서는 '단발 규칙(once-only rule)'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은 단 한번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붕어빵'이라는 단어는 '붕어'와 '빵'이라는 입력형에 규

---

5) 예를 들어 '대머리'의 '대-'는 '머리'와만 결합한다. 물론 이렇게 단 하나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경우 '대-'를 접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는 '대-'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더라도 '머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즉 '대머리'가 '머리'의 일종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은 곧 화자들이 '대머리'라는 단어의 내부 구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ybee(1988)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형태도 다른 어휘와 연결시킴으로써 어휘부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다(2.2.2.2. 참조).

칙이 적용되어 ‘붕어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새 단어는 사전에 등재되고, 다음에 ‘붕어빵’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는 이 규칙이 다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붕어빵’을 단순히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발 규칙을 수용하면 새로운 단어 형성 규칙은 저장된 단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붕어빵’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은 그 단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생성되는가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단어 생성의 문제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가의 문제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저장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단어 형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단어 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구 대상의 범위와 연구 접근 방법에 따라 전체 구조 및 체계에 대한 연구와 미시적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체계에 연구는 파생어의 내부 구조와 접미사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다. 단어의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주시경(1910)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익섭(1965)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시집살이, 고기잡이’류와 같이 ‘고기잡-’과 같은 복합어도 없고 ‘잡이’와 같은 파생어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 형태를 직접구성 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많은 후속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김계곤(1968)이후 계속된 김계곤(1969, 1996)의 연구나 고영근(1972),

---

6) 우리는 저장할 때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찾을 때 찾기 쉽게 저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 입은 옷은 좀 더 위(빨리 찾을 수 있는)에 저장하고 특이한 옷(특수한 상황이나 입을 한복 등)은 좀 더 깊은 곳에 저장할 것이다. 단어가 사용을 위해 저장되는 것이라면 단어의 저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단어 인식 실험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쉽게 접근한다는 연구가 있다.

1972년, 1974)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김계곤의 일련의 연구는 접사 파생법, 복합법, 복합법과 파생법의 겹침 등 접사의 기준과 복합어의 내부구조를 구명하고자 한 연구이며, 고영근의 연구는 접미사에 대한 확립 기준과, 동요 현상을 보이는 목록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문법론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지만 이석주(1989)에서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변별 기준을 의미·화용론적 기준에 의해 이들 형태의 유형을 변별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고창수(1986)에서는 문법 부류의 경계에 위치하는 일군의 형태를 어간형성접미사라는 하나의 항목아래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음을 제안하여 이후 통사적 접사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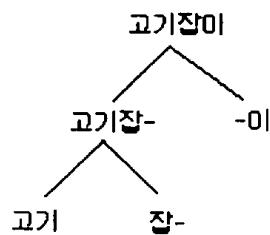
위와 달리 개별접미사나 몇 개의 접미사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특정 접미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접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스럽, -답, -롭'과 '-음, -기, -이' 등이 대표적이다. 민현식(1984)은 '-스럽다, -롭다'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접미사의 결합관계를 통해 의미 차이를 기술하였으며, 구본관(1999)은 일군의 축소 접미사류에 대한 의미 차이를 기술한 것이다('음, -기, -이'에 대한 논의는 5.2. 참조).

둘째, 단어 형성 기제에 대한 논의로, 규칙기반 단어 형성법과 유추기반 단어 형성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을 단어 형성의 기제로 보는 관점은 단어 형성 역시 통사 규칙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적용되어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즉, 규칙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가 된다. 송철의(1977), 송철의(1989/1992), 시정곤(1998), 김창섭(1996) 등이 이러한 관점 하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송철의(1977)는 파생 범주를 대상으로 형태론적 현상과 음운론적 현상을 고찰하여 파생 범주와 활용 범주 사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의 차이를 밝혔으며, 송철의(1989/1992)는 파생어 형성을 규칙과 제약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규칙과 제약 현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시정곤(1998)은 단어 형성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사적 단어 형성 기제로 '핵이동'을 제안하였다. 김창섭(1996)의 연구는 규칙에 기반을 두고 기술하고는 있지만 본인도 기술하고 있듯이 단어 형성 전반에 대한 약한 규칙론의 견해를 보인 논문으로 유추 기제에 대한 맹아를 볼 수 있는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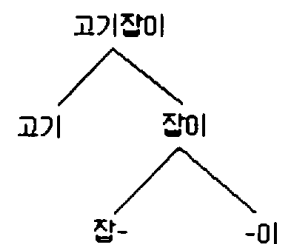
한편 모든 언어 현상을 규칙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생성이론은 통사론적 현상에 대한 설명에는 잘 적용되지만 형태론적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유추를 단어 형성 기제로 보고자 하는 논의는 생성문법에 대해 회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형태 규칙은 순환 규칙인 통사 규칙과는 다르다는 점을 공유하고 단어 형성을 규칙 지배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구본관(1998), 송원용(1998), 채현식(1999, 2000)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있다. 이들은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대한 기제를 기존의 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추의 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단어 형성이 본질적으로 통사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어 형성의 특정한 현상에 대한 주제적 접근이다. 하나는 단어의 구조에 대한 문제로, 표면적으로 'N-V-이'의 구조를 보이는 단어에 대한 문제이다. '고기잡이, 해돋이'와 같이 'N-V-이' 구조를 보이는 단어는 'N-V'형의 합성어도 존재하지도 않으며, 'V-이'형의 파생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형태의 내부구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1)



(2)



예를 들어 (1)은 'N'과 'V'가 먼저 합성된 후 파생접사 '-이'가 첨부되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2)는 'V'와 파생접사 '-이'가 먼저 결합되어 파생어가 형성된 후 명사와 결합된 합성어로 보는 관점이다. 김계곤(1969), 허웅(1975), 김창섭(1983), 고재설(1992), 시정곤(1994, 1998), 고팡주(2000) 등은 전자의 관점을 취하며, 이익섭(1965), 성기철(1969), 연재훈(1986, 2001), 이석주(1987), 이재인(1994), 채현식(1999)은 후자의 관점을 취한다.

형성 과정에 대한 관점도 이견이 있다. 시정곤(1994)은 ‘돈벌이’와 같이 ‘V-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어형성이 어휘부에서 일어나지만 ‘해돋이’와 같이 ‘V-이’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통사부에서 먼저 ‘해돋-’이 형성되고, 어휘부에서 접사 ‘-이’가 첨가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고팡주(2000)는 ‘V-이’형이 파생어로 존재하지 않는 ‘해돋-’형도 어휘부에서 형성되는데 비핵인 명사와 핵인 동사의 통합관계를 통해 가능한 파생명사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내재 논항은 파생어의 내부 논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타동사 관계와 주어-능격 동사 관계, 부사어-동사 관계의 파생명사는 존재하지만 명사가 외재 논항이 되는 주어-타동사 관계나 주어-비능격동사 관계의 파생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유추를 단어 형성 기제로 보는 채현식(1999, 2001)은 ‘N-V-이’틀이 활성화될 때 ‘V-이’부분을 공유하는 단어들이 충분히 등재되어 있고 이들이 높은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V-이’가 따로 떨어져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2)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 (1)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복합어 내부의 명사와 동사가 일정한 통사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통사관계가 복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2)의 관점을 취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살이, 잠이’와 같은 형태가 단독으로 단어 노릇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동일한 외적 분포로 출현하며 또한 단독으로 단어 합성 명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어 형성에 대한 다른 하나의 쟁점은 ‘-음, -기’와 같이 표면적으로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통사적 문제뿐 아니라 의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5.2. 참조). 이 문제 또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이들 형태는 굴절접사, 즉 어미이며, 어휘화되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동일한 형태가 굴절접사와 파생접사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논의는 시정곤(1998, 1999<sup>7)</sup>을 들 수 있으며, 후자는 하치근(1987, 1999)을 들 수 있다.<sup>7)</sup> 문제는 이들이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동시에 출현하기는 하지만 의미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7) ‘-음’에 대한 문제는 ‘형태론(1999) 1권 1호’에 실린 ‘지상 토론’을 참조할 것.

고창수(1992)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동형성을 확보하면서 기능적 차이를 보이기 위해 '[±Lexical]자질'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생어에 대한 연구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파생어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특히, 어휘부에 대한 가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논의되었다.

단어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머리 속 사전에 대한 해명일 것이다. 그런데 통사 규칙과 달리 단어 규칙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많은 연구들은 결국 어떤 관점에 초점을 두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즉, 구조 분석은 단어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즉 입력에 대한 해명이라면, 생성이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쓰는가, 즉 출력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들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어는 기억의 대상이다. 우리는 한번 사용한 문장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단어는 학습하고 기억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 역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억의 목적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어를 만들어 내는 일은 단어의 저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의 저장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단어의 형성에 대한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1.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어휘부에 대한 연결주의 관점을 취한다. 연결주의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신경망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8)</sup> 이 연구에서는 어휘부의 존재

---

8) Quinlan(1991)은 신경망 모형의 일반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한광희 1996 재인용).

①연결주의의 신경망 정보처리체계는 대량의 처리 단위들(이항적 binary 식역 논리 단위처럼)로 구성된다.

②단위들 간에는 연결이 있다.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Bybee(1985, 1988)에서 제안한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의 개념을 수용한다. 연결주의는 어휘부의 단어들이 독자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어휘 강도는 개별 어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고, 어휘 연결은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자세한 내용은 2.2.2.참조).

연구 대상은 고유어 접미사 중에서 명사 접미사를 대상으로 한다.9) 의미 기술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큰 장애는 특정 의미 영역을 경계지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Nida(1975)는 의미 영역을 '일정한 의미 성분들을 공유하는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계층

- 
- ③단위들과 이들 간의 연결들이 망의 구조를 결정한다.
  - ④마디간의 연결은 흥분적(excitatory)이나 억제적(inhibitory)이다.
  - ⑤상호연결에는 비중이 주어진다(associated weights)
  - ⑥비중은 고정적 또는 가변적이며, (+) 또는 (-)의 값을 지닌다.
  - ⑦비중이 영이면 그 연결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 ⑧망에는 층(layers)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제약 하에서 단위들의 층을 규정할 수 있다.
  - ⑨층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층이 있을 수 있다: 환경에서 입력을 받는 입력층, 환경으로 출력을 내는 출력층과,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은닉층(hidden layers).
  - ⑩층의 규정은 연결 유형에 따라 그리고 위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⑪한 층 내의 단위들 간의 연결은 연결이 없거나 억제적 연결이 가능하고, 층간의 연결은 흥분적이거나 억제적 관계가 있는 연결이다.
  - ⑫층 내의 단위들 간의 활동 패턴은 곧 그 층 단위들의 상태이다. 단위들의 상태에는 여러 상태가 있을 수 있다.
  - ⑬어떤 상태(또는 상태의 전체적 모양(configuration))가 하나의 표상을 이룬다. 즉 마디들 간의 연결들의 활성화 패턴이 표상이 되는 것이다.
  - ⑭이 신경망 정보처리체계의 기본 활동은 외부 자극에 상응하는 활성화 패턴을, 수리적, 확률적 계산에 의하여 형성하고 조절하는 것이며, 그 활동들의 총체가 인지이다.
  - ⑮신경망 체계 모형은 단순히 하위 물리적 구현(implementation) 수준의 모형이 아니라 인지, 즉, 마음의 모형이다.

9) 명사 접미사의 목록에 대한 논의는 3.2.을 참조할 것.

적 구조 내의 어떤 층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그 언어 전체 의미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의미 영역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미 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 영역의 논의에서 의미 영역을 경계지을 기준을 찾는 작업은 선결해야할 문제이다.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명사 접미사를 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나의 문법 부류가 하나의 의미 영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 부류가 하나의 자연 부류를 이룬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0)</sup>

2장에서는 어휘부의 저장 방식과 단어 형성의 상관 관계를 기술한다. 지금까지 단어 형성과 관련한 논의는 단어의 형성 기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2.1.에서는 단어 형성 기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어 형성의 문제는 단어의 저장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형성의 기제를 논의하기 전에 형성 기제의 전제가 되는 어휘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2.에서는 단어의 저장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Bybee(1985, 1988)가 제안한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 개념을 수용하여 어휘 연결의 방법과 층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2.3.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연결의 절점(node)이 되는 의미 영역을 포착하기 위해 존재론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접미사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한다. 3.1.에서는 의미 분류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3.2.에서는 접미사의 의미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3.3.에서는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명사 접미사를 분류한다.

4장에서는 의미 영역별로 개별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을 미시적으로 포착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4.1.에서는 복합어와 같이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파생어의 결합 방식을 살펴본다.

---

10) 자연 부류(natural class)라는 용어는 생성음운이론에서 자연음을 좀 더 형식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어떤 음들이 어떠한 자질을 공통으로 가질 때 하나의 자연 부류를 이룬다고 본다. 이 개념은 어떤 요소들이 어떠한 하위 자질을 공유할 때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4.2.에서는 파생어의 의미는 파생어 구성 성분의 의미에서 모두 도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의미는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연결주의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된다는 것은 기존의 단어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의 연결은 기존 단어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진 패턴에 의해 견인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들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4.3.에서는 각각의 접미사들이 선행 요소와 결합되는 의미 패턴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접미사 상호간의 결합 관계를 기술한다. 5.1.에서는 파생 접사 상호간의 결합 관계를 의미의 측면에서 기술한다. 5.2.에서는 표면적으로 배타적 결합 양상을 보이는 '-이, -음, -기' 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 -음, -기'의 배타적 현상이 저지 현상(blocking)인지, 아니면 이들 형태의 독자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힌다.

6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기술한다. 아울러 단어의 저장 방식과 생성 기제의 상관 관계를 포착한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전망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 1.4. 연구를 위한 개념 규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하여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합어(complex word), 합성어(compound word), 파생어(derived word)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복합어(complex word)는 '내적 구조를 갖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어(simple word)의 상대적 개념을 의미한다. 합성어(compound word)는 '직접구성성분 분석의 결과,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의미하며, 파생어(derived word)는 '직접구성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복합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생어와 합성어는 복합어의 하위 부류로써의 개념을 의미한다.

둘째, 어근(root), 어간(stem), 접사(affix)에 대한 규정이다. 복합어의 구성 성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근, 어간, 접사 등이 사용되는데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어근(root)은 단어 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단어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접사의 상대적 개념을 의미한다. 한편, 어간(stem)은 굴절 접사인 어미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파생어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어근과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때 접사는 파생접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어 형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선행 요소가 동사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셋째, 명사형접미사, 명사화접미사, 명사접미사에 대한 규정이다. 필자는 기존의 명사화접미사나 명사형접미사로 지칭되던 일군의 접미사에 대해 '명사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명사접미사'라는 용어는 특정 접미사가 단어의 구성소로 그 위치가 단어의 꼬리쪽, 즉 오른쪽이며 이들 접미사의 품사 정보가 '명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파생접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접미사가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오른쪽 요소이기 때문에 단어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접미사의 통사 범주가 곧 파생어의 통사 범주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명사화접미사'라는 용어는 특정 접미사가 어근의 정보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명사성접미사'라는 용어는 '명사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모호한 표현이라서 적절하지 않다. '명사화접미사'는 '-꾸러기'와 같이 명사와만 결합하는 접미사를 포함하지 못하며, '명사성접미사'라는 용어는 동사어간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먹보'와 같은 파생어가 명사로써 기능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의미와 개념에 대한 규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과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 보통 개념을 의미보다 추상적인 층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개념 층위를 낱말의 의미와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다섯째, 단어의 저장 방식과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연결주의 관점에서 단어가 저장된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독립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어들과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결주의에서 단어의 저장 방식은 곧 어휘부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먹보'라는 파생어가 저장된다는 것은 동사 '먹다'와 접미사

‘-보’에 새로운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떡보’의 의미 역시 어휘강도나 체계 내 다른 어휘들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sup>11)</sup> 물론 접미사 ‘-보’는 이미 형성된 다른 ‘-보’파생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파생접미사 ‘-보’는 동일한 의미 영역을 갖는 ‘-꾸러기, -꾼, -쟁이, -지기’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섯째, ‘등재’와 ‘연결’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보통 어휘부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의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되는 현상에 대해 ‘등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연결주의에서 하나의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어휘 연결망 속에 새로운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결주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등재’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망 속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등재’의 방법이 곧 ‘연결’인 것이다.

---

11)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2.2.을 참조할 것.

## 2. 어휘부와 단어 형성

이 장에서는 어휘부의 존재 방식과 단어 형성의 상관 관계를 기술한다. 이제 단어 형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어휘부에 대한 가설은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어 형성의 논의에서 어휘부에 대한 가설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필자는 어휘부에 대한 연결주의 관점을 취한다. 연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어휘부는 단어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부와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어휘부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즉 어떻게 저장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른 측면의 문제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존재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새로운 단어 형성의 문제와도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주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연결방식이 새로운 단어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1.에서는 단어 형성 기제와 어휘부의 존재 방식의 관계를 살펴본다.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상이한 기제이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성 기제가 실은 어휘부에 대한 다른 존재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2.2.에서는 어휘부에 대한 논의에서 연결주의 관점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어휘부에 대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Bybee(1985, 1988)에서 제안한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들 개념이 파생어 형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2.3.에서는 어휘부에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연결 방식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 2.1. 단어 형성 기제와 어휘부

위에서 필자는 단어의 존재 방식과 단어 형성 방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단어 형성 기제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방식 또한 실은 어휘부의 다른 존재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예컨대 규칙 기반 관점에서 어휘부는 어휘의 목록과 단어 형성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형을 제공받아 규칙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반면, 유추 기반 관점에서는 기존의 단어에 의해 유추의 틀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유추의 틀이 기반이 되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견해를 취한다. 규칙 기반 단어 형성에서는 규칙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입력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형으로써 목록을 가정하는 것이며, 유추 기반 단어 형성에서 주장하는 유추는 기존의 단어와 연결을 가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 형성의 기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단어 형성 기제의 전제가 되는 어휘부의 존재 방식을 검토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2.1.1. 규칙에 의한 단어 형성

Chomsky(1970)가 어휘부는 단순히 단어들을 모아 놓은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 생성문법, 특히 생성형태론의 역사는 어휘부의 내부 구조를 정밀화해가는 작업이었다. 생성문법은 뇌의 어딘가에 어휘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휘부에는 단어 생성에 필요한 입력 형태가 저장된 저장소와 이러한 입력 형태의 입력을 받아 새로운 단어의 출력 형태를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단어 형성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어휘부의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즉 구성 요소의 조합 방식인 규칙을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져 왔다. 생성형태론의 주요 연구 주제 역시 이러한 어휘부의 가설과 관련되어 있다. 생성형태론 초기의 논의는 어휘 목록의 단위가 무엇인가가 초점이었으며, 이후 논의는 단어 형성 규칙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즉 초기의 논의는 입력형의 단위를 확정하는 문제이고, 후기의 논의는 출력형을 산출하는 규칙을 정밀화하는 것이다.

먼저, 어휘부 목록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형태소 기반 문법

과 단어 기반 문법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한다. Halle(1973)는 단어 형성 규칙의 입력 형태로 형태소의 목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형태소 기반 문법을 주장하였다. 그는 어휘부의 기본 단위로 형태소가 존재하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때마다 단어 형성 규칙에 의해 단어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모든 단어들이 '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단어의 생성 규칙은 의미론적·음운론적·어휘론적 특이성(idiosyncrasies)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이성은 개별적인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형태소를 입력형으로 하는 Halle(1973)의 모델은 이러한 특이성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많은 단어를 생성해 내게 된다. 물론 Halle(1973)는 이러한 가능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걸러내기 위해 필터라는 장치를 도입한다.<sup>1)</sup>

Halle(1973)의 형태소 기반 단어 형성 규칙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단어 형성 규칙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단어 형성 규칙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Aronoff(1976)는 단어 형성 규칙의 어기를 실재하는 단어로 제한한 단어 어기 가설을 주장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형태소의 경우는 그것들이 나타나는 특정한 단어를 떠나서는 독립된 뜻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태론의 최소 단위도 실재하는 '단어'여야 함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단어 형성 논의에서 어휘 목록의 단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 송철의(1992), 채현식(1994), 박진호(1994), 송원용(1998) 등은 임시어를 제외한 모든 실재하는 단어는 필요할 때마다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성규(1987), 정원수(1994) 등은 음운·형태·의미론적으로 불투명한 내적 구조를 갖는 단어들과 공시적인 생산성을 잃은 단어들을 제외한, 모든 복합어는 연산(computation)에 의해 필요할

---

1) 형태소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형을 만들어 낸 후, '필터(filter)'라는 여과 장치에 의해 실재하지 않는 형태를 걸러낸다는 점에서 Halle(1973)의 단어 형성 규칙은 가능한 후보들을 산출하고 '제약(constraint)'의해 최적형의 표면형을 확정하는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2) Halle(1973) 모델에 대한 비판은(Scalise 1984)를 참조할 수 있다.

때마다 생성된다고 보는 견해를 취한다.<sup>3)</sup> 한편 생산성이 매우 높은 단어들은 연산에 의해 필요할 때마다 생성되고 어휘화된 단어들과 생산성이 약한 단어들은 저장된다고 보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조남호 1988).

생성형태론의 두 번째 논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규칙에 대한 논의이다.<sup>4)</sup> 예를 들어 파생어 형성 규칙을 살펴보자. Halle(1973)의 모델에서 단어 형성 규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하나는 어간(stem)에 적용되어 '어간+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형태소의 연쇄를 만들어 내는 규칙'이며, 다른 하나는 '단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vac+ant', 'be+lieve', 'tot+al'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이 전자이며, 'arrive+al', 'condens+ation', 'dark+en'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 내는 규칙이 후자이다. 형태소가 어휘부의 최소 단위인 Halle(1973)의 모델에서 이와 같은 규칙은 어찌면 당연하다. 반면 Aronoff(1976)는 'cranberry, boysenberry, huckleberry'와 같이 어떤 형태소는 특정한 단어를 떠나서는 독립된 뜻을 갖지 못하면서도 단어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적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strawberry, blackberry, blueberry, gooseberry'의 구성 요소인 'straw, black, blue, goose'와 같이 독립된 단어로 사용될 때와 의미적으로 전혀 무관한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하는 단어만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어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단어에 적용되는 규칙'인 Halle(1973)의 두 번째 규칙만을 수용한다.<sup>5)</sup>

이러한 영향은 국어의 단어 형성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고 연구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언어 현상을 규칙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려는 생성문법이 통사론에는 적용이 잘 되지만 결합 제약이 심한 단어 형성 논의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규칙에 기반을 둔 단어 형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단어 형성의 기제를 유추에 의해 설명

3) 채현식(1994), 박진호(1994), 송원용(1998) 등은 단어 형성 기제를 규칙으로 보지는 않는다

4) 사실 어휘의 목록과 단어 형성 규칙을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편의상 분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단 하나의 형태와만 결합하며 그들 스스로는 어떤 뜻도 갖지 않는 단위를 Aronoff(1976)는 단발 단어(hapax legomena)라고 하였다. Bybee(1988)의 모델에는 이러한 단발 단어도 어휘부 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다(2.2.2.2. 참조).

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sup>6)</sup>

규칙 기반 단어 형성이 갖는 문제점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지적되었지만 필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단발규칙(once-only rule)이 갖는 모순점이다. 단발규칙은 단어 형성 규칙이 적용된 단어는 모두 어휘부에 등재<sup>7)</sup>된다는 것으로 단어 형성 규칙은 '단 한 번만' 적용된다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단어는 필요할 때 다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휘부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새로운 단어 형성 규칙이 적용될 때, 새로운 규칙은 어떤 단어가 규칙이 적용된 적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단어 형성 규칙은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단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마다 어휘부의 정보는 계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발 규칙을 수용하는 한 어휘부는 동적 구성을 갖는 것이며 이는 정적인 계를 가정하는 규칙 기반 관점과 모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의미 도출과 관련된 것으로 합성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이다. 규칙 기반으로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관점은 '전체의 합은 구성 요소의 합'이라는 합성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sup>8)</sup>.

사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파생어의 형성에서 파생어의 모든 의미가 파생어의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파생어의 의미는 저장된다는 점이다. 즉 출력 값이 다시 입력 값이 된다는 점에서 어휘부는 정적인 계가 아니라 복잡계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sup>9)</sup>

---

6) 국내의 유추기반 단어 형성 논의는 대부분 연결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Bybee(1985, 1988, 1994, 1995, 1996)의 견해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들이다.

7) 연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등재'는 새로운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 어휘 연결망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파생어의 의미와 구성 요소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2.을 참조할 것.

9) 복잡계는 많은 요소(element)가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요소가 모였을 때 새로운 성질과 능력이 생기는 시스템이다(이노우에 마사요시 1996).

## 2.1.2.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단어 형성의 기제가 유추(analogy)라고 주장하는 관점은 단어 형성의 문제를 규칙(rule)으로 설명하는 데 대한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유추는 80년대 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연결주의(connection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언어 현상을 보는 출발점이 생성 이론과 전혀 다르다. 이들은 규칙이란 것이 화자나 청자의 마음속에 기호적 실체(symbolic reality)로 실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규칙-지배적이라고 보았던 언어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규칙성(regularity)을 보이는 언어 현상들은 기호화된 규칙이 마음속에 표상 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채현식 1999).

채현식(1999)은 단어 형성에 대한 '규칙'의 대안적 기제로 '유추(analogy)'를 제안하였다. '유추'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이다. 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규칙이 기호적 실체로써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는 표시들 속에 유추적인 틀(pattern)이 생겨나고 이 틀이 바로 새로운 단어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추의 틀은 규칙과 달리 독립되어 기호처럼 어휘부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만들 때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단어 형성의 기제가 유추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 형성은 기존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형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통시적 과정이며, 그래서 공시적 규칙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박진호 1994:10-12, 송원용1998: 9-12, 채현식 1999: 27).<sup>10)</sup>

---

10) 단어 형성 기제를 '유추'로 설명하는 연구자들만이 단어 형성의 문제를 통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송철의(1983)는 '새롭-'이나 '말이'와 같은 형태는 통시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새롭-'은 '관형사 + 접미사'구성이 되며, '말이'의 경우는 '접두사 + 접미사'의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구성은 파생어 형성에서 매우 예외적인 존재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와 '말'은 중세 때 명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형태는 예외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어를 통사 구성과 달리 기억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시성을 배제한 공시적인 현상만으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규칙 기제와 유추 기제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어 형성 기제가 무엇인지, 즉,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심리적 작용이나 원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다른 기제론이 가정하는 어휘부의 모습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규칙 기반 단어 형성은 기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유추 기반 단어 형성은 연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규칙'에 대한 개념 또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단어 형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규칙'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 하나는 경험적 규칙인 귀납 규칙과 다른 하나는 선형적 규칙인 연역 규칙이다. 전자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 얻어진 규칙을 말하고, 후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으로서의 규칙을 말한다. 단어 형성 논의에 등장하는 규칙들은 대부분 연역규칙보다는 귀납규칙의 성격이 짙다(시정곤 1999: 277). 즉 단어 형성 과정을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주장하는 '규칙'이란 주어진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귀납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와 '귀납 규칙'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sup>11)</sup>

정리하자면 두 가지 상이한 단어 형성 기제는 어휘부에 대한 다른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 형성 기제만을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sup>12)</sup> 그러므로 단순히 단어 형성 기제가 '규칙'이다 '유추'이다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러한 기제의 전제가 되는 어휘부의 존재 방식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11) 단어 형성의 기제를 '규칙'으로 설명하는 시정곤(1999: 278)은 단어 형성 규칙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원초적 규칙' 또는 '선형적 규칙'이 존재하고, 선형적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들이 기반이 되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칙(유추)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전자는 연역 규칙이며, 후자는 귀납 규칙인 것이다.

12) 하나의 이론이 얼마나 타당한가의 문제는 이론 내 정합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2.2. 연결주의 방식과 언어 현상

연결주의(connectionism)는 계산주의적 정보처리 접근의 대안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패러다임으로 신연결주의(neoconnectionism) 또는 병렬분산 처리(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라고 한다(Rumelhart, McClelland & LNR Group 1986, 이정모 1996: 115 재인용). 계산주의적 정보처리 접근은 17세기에 형성된 기계론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계론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자연 현상이 기계적 결정론(Mechanistic Determinism)에 따라 일어나며 법칙적이고 예언 가능하며, 관찰, 실험 및 측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형성된 패러다임이다(이정모 2003: 145)<sup>13)</sup>. 정보처리 패러다임은 인간의 마음의 내용 역시 정보로 표상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또한 컴퓨터처럼 알고리즘적으로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 연결주의는 이러한 반론 중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가장 강력하게 대두된 반론 중 하나는 인간을 모사하는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는 점이다. 즉 하드웨어가 다르다는 것이다.<sup>14)</sup> 마음의 원리를 유추하는 바탕이 되는 컴퓨터가 실제 인

---

13) 17·18세기 기계론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데카르트와 말브랑슈 등과 같이 심신이원론을 전제로 ‘신체는 기계이나 정신은 기계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디, 라메트리 등의 입장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정(마음)도 기계적이다’ 라는 입장이다. 계산주의적 정보처리 접근 방법은 후자에 기반을 둔 것이다. 후자와 같은 관점은 마음 역시 물질인 두뇌의 산물이고, 두뇌란 수많은 뉴런들이 모여 이루어지며, 이들 뉴런들은 기계적 법칙에 의해 상호 작용하며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체계로 보는 관점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사건은 정보적 사건으로 정보와 정보처리의 조작(연산)의 둘로 분해하여 기술할 수 있다. 둘째, 정보처리과정은 표상적(representational)이다. 셋째, 정보처리과정은 정형적으로(formally) 기술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정보처리과정과 상징구조는 어떠한 물리적 매체로 구현되어야 가능하나, 그 하드웨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섯째,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반복적 분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섯째, 정보처리체계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계산수준의 설명이 중심이어야 한다(이정모 2003: 145-224).

14) 사실, 이 문제는 정보처리적 패러다임하에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적 원리가 상이한

간의 마음이 구현된 인간의 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sup>15)</sup>

연결주의는 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을 전제한다(Mcleod, Plunkett, & Rolls 1998, 이정모 2003: 334 재인용).

첫째, 뇌의 뉴런은 정보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고 정보를 통합한다. 둘째, 각각의 뉴런은 단순히 활성화되었다는 신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의 정보도 전달한다. 셋째, 뇌의 구조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한 뉴런이 다른 뉴런에 주는 영향은 그 연결 강도, 즉 연결 비중에 달려 있다. 다섯째, 신경계의 학습은 뉴런 사이의 연결의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주의적 패러다임은 언어학에도 응용되었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접목되어 왔다. 하나는 자연언어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접목이고, 두 번째는 어휘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의 접목이다. 전자는 시소러스, 워드넷 등과 같이 인간의 언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서 응용되었고,<sup>16)</sup> 후자는 인간의 어휘부에 대한 논의에 접목되었다. 어휘부의 구조를 어휘 연결과 어휘 강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Bybee(1985, 1988)는 후자의 경우이다(2.2.2.참조).

---

하드웨어에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패러다임내의 이론적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15) 인간의 뇌에는 1조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가 있으며, 이 신경세포는 상호 다원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 순간에 십만여개의 상호 연결된 세포들이 신경 정보를 주고받는 반면, 디지털 컴퓨터는 이 정도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단위 사이에 연결도 뇌만큼 많지 않다. 또한 뇌의 정보 처리 특성은 선형적(linear), 비선형적(nonlinear), 역동적(dynamic) 처리체계가 공존하지만,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선형적 처리체계에 의존한다. 또한 기억이 뇌에서는 내용중심적으로 접근되는 데는 반면, 컴퓨터에서는 위치중심적으로 접근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이정모 2003: 323-359).
- 16) 문유진(1996)은 어휘의 의미 관계에 기반하여 명사의 워드넷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이재윤·김태수(1998)은 시소러스와 워드넷을 비교하고, 의미에 기초한 한국어 워드넷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이다.

### 2.2.1. 연결주의 방식과 어휘부

이 절에서는 어휘부에 대한 논의에서 연결주의 관점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결주의 관점에서는 어휘부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서로 연결된 단어들이 상호 영향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은 연결의 절점(node)이 될 것이며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은 연결의 방식이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연결의 절점(node)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80년대 후반에 연결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들이 다시 등장한 것은 과학적 실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컨대 심리언어학의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 머릿속 어휘사전은 종이사전과 달리 전적으로 음이나 철자에만 근거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고려하여 조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화자가 호두를 까고 싶을 때 'Please hand me the tinopener(나에게 깡통따개를 달라)'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화자는 '호두까는 도구(nutcracker)'를 달라는 한다는 것이 '깡통따개(tinopener)'를 달라고 했던 것이다(Aitchison 1987). 즉 뭔가를 따는 '도구'라는 점에서 이들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는 'nutcracker' 대신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tinopener'를 발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화자가 어휘에 접근할 때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이들 단어가 좀 더 가까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단어 연상 실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Kent & Rosanoff(1910)는 10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제시어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연상하는 경향을 보였다(Miller 1991).<sup>17)</sup> 명사, 형용사, 동사 등과 같은 분류는 의

---

17) 명사 자극어에 대한 반응의 79%가 명사이고, 형용사에 자극어에 대한 65%가 형용사이고, 동사 자극어에 대한 43%가 동사임이 밝혀졌다.

미에 기초한 대표적인 분류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머릿속 사전의 조직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끼리 그렇지 않는 단어들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연결주의는 내용이 그 정보의 저장 위치를 결정한다는 내용중심기억(content addressable memory)을 상정하는데 이러한 가설은 연결의 절점(node)이 곧 의미일 것이라는 위와 같은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결주의에서는 연결의 관계나 연결의 강도가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즉 단어의 사용 양상에 따라 연결의 강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연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연결된 어휘들 사이의 관계 양상도 달라진다고 본다. 즉, 연결주의 관점에서는 어휘부의 구성 요소들이 어휘의 사용 양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양상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결주의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뿐 아니라 연결의 방법과 총위, 강도가 사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 2.2.2. 어휘의 연결 방식

이 절에서는 필자가 논의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Bybee(1985, 1988)의 개념을 살펴보고 파생어 형성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 Bybee(1985, 1988)는 어휘부를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첫째, 화자나 청자가 한 단어를 처리할 때마다 매번 어휘부의 표상이 강화됨으로써 어휘부에 영향을 미친다(MacWhinney 1978).

둘째, 어휘부에 저장된 각 항목은 다른 어휘들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관계나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개별 어휘의 존재 총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휘

의 사용 빈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Bybee(1985, 1988)는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어휘 상호간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2.2.2.1. 어휘 강도

Bybee(1985)는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란 자율성(autonomy)이라는 개념을 형상화한 것으로, 단어의 자율성의 정도가 어떤 단어가 별도의 어휘 표상을 가질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어휘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어휘 표상에 사상(mapping)되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그 표상이 반복적으로 추적을 당하게 되어, 매번 더 깊고 진한 선을 긋게 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가 단어를 듣고 말할 때마다 매번 어휘부에는 그러한 흔적이 남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단어의 어휘 강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Bybee(1985, 1988)에서는 어휘부 내의 단어들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어마다 어휘의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강도는 사용 빈도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해지기도 한다.<sup>18)</sup>

어휘 강도라는 개념은 단어 빈도 효과(word-frequenc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가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인식되는데 이는 어휘부 내의 단어들의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19)</sup>

---

18) 그는 우리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해 흔적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 Bybee(1988)는 사용 빈도가 어떤 단어의 어휘 강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증거로 고빈도 형태에서만 보충법(suppletion)과 불규칙성(irregularity)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충분한 빈도로 강화된 고빈도어는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유지되지만 강화되지 못한 형태는 불규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규칙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영어 시기에는 지금보다 강변화 동사(Strong Verbs)의 수가 많았으나 개별 빈도수가 낮아,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동사들이 규칙화해서 강변화 동사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어휘 강도라는 개념을 복합어와 같이 다양한 내부 구성 요소를 가진 단위에 적용한다면 어떤 단어의 구성 요소간의 결합 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복합어는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단어의 구성 요소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합어 내부의 결합 강도 역시 단어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Bybee(1988)의 모델에서는 구성 요소간의 결합 빈도가 높은 단어는 결합 빈도가 낮은 단어보다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접미사가 특정 어근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그 파생어의 내부 구성 요소 사이의 결합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근은 파생 이전의 단어와 연결 관계가 약화된다. 예를 들어 '삶, 꿈'과 같은 단어는 동사 '살다'나 '꾸다'와 상관 없이 바로 인식된다. 반면 '가르침'이나 '보탬'과 같이 비교적 어휘 강도가 약한 단어는 어근의 의미 '가르치다, 보태다'의 의미를 연상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삶'이나 '꿈'과 같은 단어는 '살-음'이나 '꾸-음'으로 분석하고 어근의 의미를 연상할 확률이 줄어지는 것은 이들 단어가 '가르침'이나 '보탬'에 비해 자율성이 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아껴쓰기, 나눠쓰기'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현상이나 동사의 목적어나 보어가 파생어의 구성요소로 나타나는 'N-V-접미사'구조 역시 어휘 강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떤 복합 구성이 단어로 인식된다는 것은 어휘 강도가 강해져서 하나의 의미 표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어휘 강도의 개념은 관용어나 연어와 같이 단어 단위 이상의 결합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익히 알다시피 관용어나 연어는 두 개 이상의 특정 단어

20) 차준경(1995)에 의하면 '-음'파생어 목록 중에서 '삶'은 1021빈도로 1위, '꿈'은 677 빈도로 3위로 나타났으며, '가르침'은 30빈도, '보탬'은 21빈도로 나타났다.

21) 그러나 이 말이 화자가 복합어의 내부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분석 현상은 화자가 복합어 내부 구조를 인식한다는 증거가 된다. 재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구조가 전체 구성 요소와 관계 속에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굽]-이]'와 같은 구조를 '[[N-[구이]]]'와 같이 재분석하기 위해서는 복합어 내부 구조를 인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재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이들 단어에 대한 계열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채현식 2000). 즉, '[[N-굽]-이]'의 구조를 가진 단어가 충분히 존재해야 하며 또 이들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습관적으로 함께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습관적으로'라고 함은 '충분한 정도'로 강도가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독립된 단어가 갖는 의미와 달리 새로운 의미 표상을 갖는 것이다.

#### 2.2.2.2. 어휘 연결

어휘 강도가 개별 어휘의 빈도에 대한 개념이라면 어휘 연결은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일군의 어휘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미론 논의에서 큰 무리 없이 수용되는 관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어휘부를 연결의 관점에서 보는 논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연결의 절점(node)이 무엇인가? 즉,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매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휘들이 의미에 의해 연결되는가? 아니면 형태 혹은 음상에 의해 연결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연결의 단위는 무엇인가?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연결의 단위가 단어인가? 형태소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결의 여러 가지 관련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미에 기초한 연결이다.<sup>22)</sup> Bybee(1985)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의미적 연결 관계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단어들 사이의 관계의 긴밀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sup>23)</sup>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적이다. 단어들

---

22) Bybee(1985)는 의미적 연결이 있으면 음운적 연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t'과 'kitten'은 특정한 종이라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첫 번째 음절이 강세 받은 'obstruent-vowel-obstruent syllable'이라는 점에서 음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운적 연결보다 의미적 연결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이 서로 의미적 관계에 의해 긴밀도가 다르다는 증거는 많은 실험들이 보여 준다. 제시어를 주고 연상되는 단어를 대답하게 하는 단어 연상 실험(word association)에서 사람들은 제시어와 동일한 의미적 범주의 유형에 속하는 단어로 대답했다. 예를 들어 'chair'라는 단어에 대한 연상 실험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table'이었다. 'table'은 'chair'의 동등어(coordinate word)이며, 이 두 단어는 'furniture'의 하의어들이다(Miller 1991). 실험결과 제시어에 대한 반응어의 비율은 동일한 범주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어떤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단어들의 연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을 말해준다.<sup>24)</sup> 특히 'chair'에 대한 'table'의 반응은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한 단어가 가장 쉽게 접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의 형태에 하나의 의미만이 대응된다면 형태 연결이 곧 의미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사는 다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형태 차원의 연결이 곧 의미 차원의 연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고전적으로 인용되어 오고 있는 유의어로서의 '틈'과 '겨를'의 경우를 보자. 형태 '틈'은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를 나타낸다. 반면 '겨를'은 [시간적 거리]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틈'과 '겨를'은 형태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거리]라는 의미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관계를 도식

23) 의미적 연결이 음운적 연결이나 형태론적 연결에 우선하는 예로 'go, went'와 'crane(학과 기중기)'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즉 음운적 연결 관계는 없지만 강한 의미적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go, went'가 음운적으로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 연결관계가 없는 '학, 기중기'의 경우보다 더 쉽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24) Miller(1991)는 명사 자극어에 대한 사람들의 연상적 반응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의미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하의, 동등, 상의 단어 : 분류적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둘째, 속성 단어 : 사물의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수식적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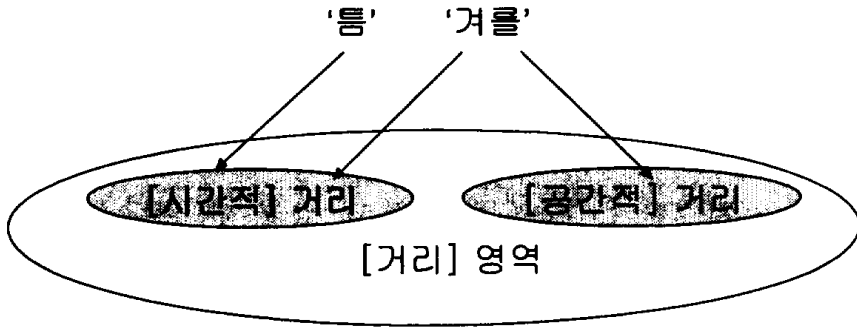
셋째, 부분-전체 관계 : 사물의 일부, 혹은 사물이 속하는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들.

넷째, 기능 단어 : 사물의 용도-사물이 보통 무슨 일을 하고, 그 사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어들.

25) 어떤 단어의 쌍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음운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둘 사이에 형태론적 동일성(identity)이 공고하게 될 수는 있다(Bybee, 1988).

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요즘은 바빠서 너를 만날 {틈/겨를}이 없구나.  
 ㄴ. 문(틈/\*겨를)(으)로 바람이 제법 들어온다.



(그림 1 : '겨를'과 '틈'의 의미 연결 관계)

어휘의 다의성은 어휘적 의미가 강한 실사뿐 아니라 접사에서도 보인다.

- (2) ㄱ. 먼지떨이, 손톱깎이, 이쑤시개, 뿌무개, 돋보기, ...  
 ㄴ. 소물이, 줄넘기, ...  
 ㄷ. 재떨이, 부침개, 찌개, ...  
 ㄹ. 가슴앓이, ...  
 ㅁ. 절름발이, 애꾸눈이, 젓먹이, 똥싸개, 코홀리개, ...

(2ㄱ)의 파생어는 모두 [도구]의 의미를 갖는 파생어이고, (2ㄴ)는 [행위]의 의미를 가지며, (2ㄷ)은 [사물]의 의미를, (2ㄹ)는 [사건]의 의미를, (2ㅁ)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명사 접미사 '-이'는 [도구], [행위], [사물], [사건], [사람]의 의미를 갖지만, '-개'는 [도구], [사람], [사물]의 의미만을 갖기 때문에 형태 '-이'와 '-개'는 이 세 의미에서만 연결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5.2. 참조).<sup>26)</sup>

26) 단어들이 어떤 의미 영역에 속함으로써 의미에 의해 연결되어 있듯이, 음상에 의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물론 의미만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질문인 연결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단어’는 하나의 개념단위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내부 구조를 갖지 않는 단일어에는 잘 적용된다. 하지만 복합어란 ‘특정의 문법적 사용이 가능하고 특정의 의미가 결합된 특정의 소리 복합체’이다(이석주 1989). 즉, 복합어는 문법적 사용의 측면에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이지만,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된 복합단위이다. 합성어는 구성 요소가 모두 실사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개념이 복합된 언어 단위라는 점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파생어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기 때문에 접사가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사도 하나의 형태소인 이상 하나의 개념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형태소의 정의인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형태소가 의미의 저장소로서 언어 단위라는 것을 말한다. 소쉬르의 술어를 빌리면 형태소는 ‘최소기호(minimal sign)’이다. 즉 개념 단위가 연결의 절점(node)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의미 연결의 단위는 형태소가 된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유의미 단위라고 정의하기 힘든 형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Aronoff(1976)는 ‘cranberry, boysenberry, huckleberry’와 같은 단어에서 ‘cran, boysen, huckle’과 같은 형태는 특정한 단어를 떠나서는 독립한 뜻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strawberry, blackberry, blueberry, gooseberry’에서와 같이 구성 성분으로써 단어 안에 나타날 때와 ‘straw, black, blue, goose’와 같이 독립된 단어로 사용 될 때와 의미가 무관하다는

---

은 아니지만, 어두음이나 어말의 경우는 음상에 의해 연결된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수 ‘cat’은 복수 ‘cats’와 연결되어 있는데, ‘cats’는 또한 마지막 음이 마찰음이라는 점에 의해 ‘mats, nats, laps, naps, tips, mits’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의미적인 연결은 없지만 음운적 연결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배(과일)’와 ‘배(사람 신체의 일부분)’와 같은 경우이다. 두 단어는 의미적인 연결은 아주 소원하지만 동일한 음상을 가지고 있다. 말실수(speech errors)나 말장난(punning)과 같은 경우는 음운론적 유사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Bybee, 1988).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미나리, 개나리, 병아리, 향아리, ……」와 같은 놀이는 끝음절의 유사성에 기댄 것이다. 또한 실어증에 걸린 많은 환자들이 특정 음절을 자극하면 해당 음절이 포함된 단어에 접근하는 실험 증거들도 단어들이 음운론적 유사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것이다. Aronoff(1976)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에 '미확정의 뜻(underdetermined meaning)'을 부여하고,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형태소가 '뜻을 갖는 최소의 요소'라는 가정을 거부하였으며, 아울러 굴절형태론과 마찬가지로 파생형태론의 어기도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단어 형성을 규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즉, 기호적 실체가 될 수 없는 형태의 처리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어휘부를 연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Bybee(1985, 1988)의 모형에서는 'cranberry'류와 같은 단어도 어휘부 내에서 어떤 지위(status)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모형에서는 'Monday, Tuesday, Wednesday, ...' 등에 나타나는 'Mon, Tues, Wednes'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화자들은 'day'를 연결함으로써 이들 단어를 연결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 형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리고 이들 형태가 어떤 연결을 갖지 않는다 해도 'day'와 관련된 형태라는 것'과 '전체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라는 것이 기억된다는 것이다. 그의 모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형태이지만 이들 형태는 'day'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sup>27)</sup> 또한 'receive, reception, deceive, deception'의 '-ceive-'와 '-cep-'과 같이 유의미(meaningful)하지 않은 단위라도 연결이 가능하다. 먼저 'deceive'와 'deception'은 음운론적으로, 의미적으로 모두 연결된다. 한편 'deceive'와 'receive'는 둘 다 동사라는 점에서 연결되며, 'deception'과 'reception'은 둘 다 명사화되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물론 'deceive'와 'receive'는 음운론적 연결은 강하지만, 의미적 연결은 약하다. 단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 형태의 의미가 모호할 때조차도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Bybee(1985, 1988)의 모델은 화자들이 복합어의 내부 구조를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7)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설득적이다. 인간은 매우 전략적이다. 어떤 것의 전부를 모르더라도 그 중 일부를 안다면 그 일부만으로 전체의 일부를 추리하는 능력이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러한 경험을 한번쯤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 속에 자신이 명백하게 아는 형태가 있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그러한 형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의미를 유추하게 된다. 기존의 단어들을 분석하고 이미 알고 있는 형태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의 뜻을 추론한다는 것은 이들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한다.

### 2.3. 어휘의 연결 방식과 단어 형성

이 절에서는 어휘부의 저장 방식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다. 연결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 연결망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국내에서 대두된 단어 형성 기제로써 '유추' 방식 역시 연결주의 방식에 기반을 둔 모형이다. 그런데 '유추'를 '규칙'의 대안으로써 단어 형성 기제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칫 '규칙의 집합'이 따로 존재하듯 '유추의 틀'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sup>28)</sup> 그러나 '유추의 틀(analogical schema)'이 연결 관계로 맺어진 단어들의 구조적 공통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연결 방식과 생성 기제로써 '유추'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즉 어휘부의 존재 방식인 연결 방식에 의해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유형의 연결 방식이 존재하는지, 연결 방식이 어떻게 패턴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새로운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패턴(pattern)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문제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살펴본다.

패턴(pattern)이란 단어들의 연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종의 추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패턴은 연결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되며 또한 동시에 그러한 패턴이 새로운 단어를 연결하는 기제가 된다.<sup>30)</sup> 즉 새로운 단어의 연결

---

28) 채현식(2000: 69)에서는 '유추'를 '어휘부에 존재하는 단어들에 기초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연결 방식보다는 '생성'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29) 패턴이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은 번역어를 사용할 경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Bybee(1988: 135)에서는 'Pattern'과 비슷한 개념으로 'Schem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스키마를 'A Schema may be thought of as an abstraction from existing lexical forms which share one or more semantic properties'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Bybee(1988)의 'Schema'는 '의미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중립적 개념의 패턴과는 다소 다르다.

30) 즉, 패턴(pattern)은 생성의 관점에서 보면 형성의 기제가 되며, 저장의 관점에서

원리와 새로운 단어의 형성 기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주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의 기제는 단어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패턴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 2.3.1. 연결 방식과 패턴의 유형

먼저, 구조적 공통성을 보이는 패턴의 한 유형으로 품사적 패턴을 상정할 수 있다.<sup>31)</sup> 단어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품사적 패턴은 동일한 품사라는 유사성에 의해 하나의 패턴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품사의 단어들이 다른 품사의 단어들보다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단어 연상 실험과 같은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품사적 패턴이 새로운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증거로 접미사 ‘-질’을 들 수 있다. 접미사 ‘-질’은 명사를 선행 요소로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림질, 마름질, 박음질, 감침질’ 등과 같이 실재하는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형의 어근이 결합된 단어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단어인 ‘칼질, 망치질, 톱질, 선생질, 도둑질, 동냥질, 욕질’ 등과 같은 연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N-질’이라는 패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림, 마름, 박음, 감침’ 등은 ‘칼, 망치, 톱’처럼 명사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명사적 성격을 지닌 명사형이라는 유사성에 기초하여 접사의 어근으로 작용한 것이다(채현식 1999). 즉 존재하는 모든 단어의 품사가 ‘N’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어근으로 ‘N’이 견인된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 ‘-질’은 선행 요소로 ‘명사’ 범주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견인의 주된 역할은 어휘부에 존재하는 ‘-질’파생어의 연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품사적 패턴

30) 즉, 패턴(pattern)은 생성의 관점에서 보면 형성의 기제가 되며, 저장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의 전인자(attractor)가 되는 것이다.

31) ‘N-질’과 같이 접미사의 어근을 품사 분류에 의한 경우 ‘품사적 패턴’이라고 하고, ‘[도구]-질’이나 ‘[행위]-질’과 같은 패턴을 의미적 패턴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N-질'이라는 품사적 패턴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체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모든 명사는 접미사 '-질'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질, 코질, 책상질'과 같은 단어는 불가능하다. 'N-질'과 같은 품사적 패턴은 이들 어근에 왜 '-음'이 개재되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질, 코질, 책상질'과 같은 유형의 단어가 왜 만들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파생접미사는 어근과의 결합에서 의미 제약이 매우 강한 부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파생접미사를 다른 문법 부류와 구분하게 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거의 대부분의 명사나 명사 상당어에 결합하는 '-들'이 파생 접미사 설정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접미사가 다른 파생접미사들과 달리 어근과 결합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접미사와 선행 어근의 결합은 '명사'와 같은 품사적 패턴만으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적 패턴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동일한 품사의 단어들 사이에도 의미의 밀접성과 소원성에 따라 연결의 강도가 다르다는 실험적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바늘'이라는 제시어에 대한 응답어로 '실, 바느질, 바늘귀'와 같이 바느질의 어떤 면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했다. 가늘고 뾰족하다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아무도 '못'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Aitchison 1987). 이는 명사라는 품사적 유사성에 의해 하나의 패턴을 이루지만 명사 내부의 많은 단어들은 좀 더 하위 의미 영역에 의해 패턴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단어들을 기반으로 하여 '-질' 파생어의 의미적 패턴을 살펴보자.

- (3) ㄱ. 가래질, 가위질, 갈퀴질, 고무래질, 팽이질, 대패질, 도끼질, 칼질, 톱질, 인두질, 쟁기질, 지게질, 망치질, 절레질, 호미질, 젓가락질, 씨레질, 풍구질,...
- ㄴ. 동냥질, 투정질, 오입질, 욕질, 선생질, 도둑질, 발길질, 주먹질, 노름질,...

(3ㄱ)은 '-질'의 선행 명사는 모두 전형적인 '도구'명사라는 점에서 '[도구]-질'이라는 의미적 패턴이 만들어지며, (3ㄴ)의 선행 명사는 모두 '행위'의 의미

를 갖는 명사이므로 ‘[행위]-질’이라는 의미적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적 패턴은 품사적 패턴에 의해 배제되지 못했던 ‘책질, 코질, 책상질’과 같은 파생어를 배제시킬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적 패턴만으로는 ‘-질’이 왜 명사와만 결합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질’이 가능하다면 동사는 전형적인 [행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사 어간과 직접 결합되는 ‘다리질, 박질, 감치질’과 같은 파생어가 만들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통해 우리는 ‘[도구]-질’이나 ‘[행위]-질’과 같은 의미적 패턴을 충족시켜야 되지만 동시에 ‘N-질’과 같은 품사적 패턴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턴은 어휘 항목들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휘 항목 사이의 유사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미적 측면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도 있고, 품사 측면의 유사성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음상이나 음절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조어는 단순히 의미의 유사성이나 품사의 유사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4) ㄱ. 얼짱, 몸짱 → 겹짱

ㄴ. 에니카<sup>33)</sup>, 하이카<sup>34)</sup>, 매직카<sup>35)</sup> → 에듀카<sup>36)</sup>

ㄷ. 오빠부대 → 노빠부대<sup>37)</sup>

(5) 눈높이(교육) → 가슴높이(교육)<sup>38)</sup>

32) ‘발길질, 주먹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코질, 귀질’ 등이 가능할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는 ‘-질’의 선행 어근은 [도구]나 [행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도구]나 [행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발길, 주먹, 손가락’의 경우는 특정 행위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도구]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귀’나 ‘코’는 자유자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 즉 ‘동작성’이 없는 것이다.

33) ‘에니카’는 삼성화재의 보험 상품명으로 ‘anywhere’와 ‘car’의 합성어이다.

34) ‘하이카’는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이다.

35) ‘매직카’는 동부화재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36) 교원공제조합이 설립한 자동차보험 전문회사이다.

37) 노빠부대는 ‘노무현’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이다.

(4)에서 '→'오른쪽은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얼짱, 몸짱, 겜짱'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모두 1음절이다. 만약 최초로 만들어진 단어가 '얼굴짱'이었다면 '겜짱'이 아니라 '게임짱'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4ㄴ)의 '에듀카' 역시 음절을 지키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음절의 수를 지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4)는 '눈높이'에서 '가슴높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음절수의 적용은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듯하다.

### 2.3.2. 패턴의 유형과 단어 형성

위에서 필자는 다양한 측면의 패턴들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패턴들이 실재하는 표면형의 산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다.

- (6) ㄱ. 툽질, 가위질, 바느질, 삼질, 가래질, 씨래질, 망치질, 칼질, 걸레질, ...  
 ㄴ. 도둑질, 동냥질, 투정질, 욕질, 발길질, 싸움질, ...  
 ㄷ. 감침질, 박음질, 숙음질, 다림질, ...  
 ㄹ. \* 감치질, \* 박질, \* 숙질, \* 다리질, ...  
 ㅁ. \* 책질, \* 책상질, \* 의자질, \* 시계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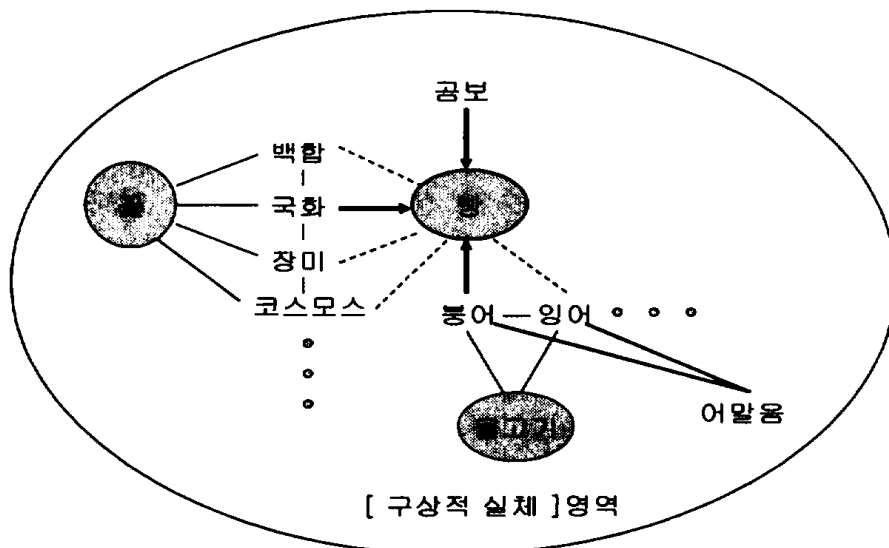
(6)은 '-질'파생어의 어근 유형이다. (6ㄱ)은 명사이면서 [도구]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한 예이고, (6ㄴ)은 명사이면서 [행위]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한 예이고, (6ㄷ)은 [행위]의미를 갖지만 명사가 아닌 명사형을 어근으로 갖는 예이다. 이들 유형은 실재하는 유형이다. 반면 (6ㄹ)과 (6ㅁ)은 실재하지 않는 유형이다. (6ㄹ)은 [행위]의미를 갖지만 어근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6ㅁ)은 명사이지만 [도구]나 [행위]의미를 갖지

38) '가슴높이'는 '눈높이'에 대응되는 말로써,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등을 주는 감성적 수준을 의미한다.

"아이들의 지적 수준에 집착해 점수로 뉘달하는 '눈높이'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에 맞춰 스스로 해 나가게 했던 '가슴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한겨레. 2001. 1. 13, 2001신어에서 가져옴)

않기 때문에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질'과 생어의 표면형은 품사적 패턴과 의미적 패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도출되어야 한다. (6ㄷ)은 'N-질'과 같은 품사적 패턴에 의해 배제되며, (6ㄹ)은 '[도구]-질'이나 '[행위]-질'과 같은 의미적 패턴에 의해 배제된다. 즉, (6ㄱ), (6ㄴ), (6ㄷ)과 같은 단어만을 만들어 내고, (6ㄷ)이나 (6ㄹ)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패턴들이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측면의 패턴들이 존재하며, 이들 패턴들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 유형의 패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채현식(2000)은 '잉어빵'은 기존 단어인 '곰보빵, 국화빵, 붕어빵'에서 유추되었다고 하였다. 채현식(1999)에서 논의한 내용을 수용하자면 이들 역시 'N-빵'이라는 품사적 패턴에 의해 '잉어빵'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미친 'N-빵'의 'N'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즉 '잉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곰보, 국화, 붕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채현식(1999)에서는 잉어빵이 '곰보빵, 국화빵, 붕어빵'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잉어빵'이 이들 모두와 연결된 것은 결합된 후 '-빵'에 의해서이다. 즉 '잉어빵'이 '곰보빵, 국화빵, 붕어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만들어진 후의 결과론적인 설명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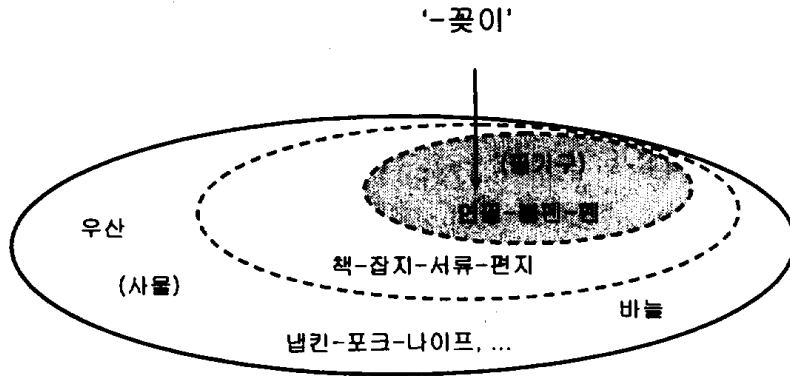
(그림 2 : '잉어빵'과 'X-빵'의 연결 관계)

‘잉어빵’의 형성과정은 (그림 2)와 같은 연결 관계가 기반이 된 것이다. 즉, ‘곰보빵’의 ‘곰보’와 ‘국화빵’의 ‘국화’, ‘붕어빵’의 ‘붕어’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물론 의미 영역을 좀 더 확장하면 이들 모두는 <구상적 실체>라는 의미 영역해 속한다(3장 참조).<sup>39)</sup> 그러나 ‘잉어빵’의 경우는 의미 영역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 ‘잉어’는 ‘붕어’의 동등어이며, 물고기의 하위어라는 점에서 이들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붕어빵’이 만들어짐으로써 잉어빵도 잠정적 연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국화빵’의 경우도 다른 동등어의 경우와 같이 잠재적 연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잉어’는 ‘붕어’와 어말음의 음성적 공통점에 의해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의 하위어 중 다른 후보들보다 가능성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잉어빵’은 의미적 패턴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음절 수 패턴과 어말음의 유사성에 의해 음상의 패턴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화빵, 곰보빵, 붕어빵, 잉어빵’ 등은 ‘X모양의 빵’이라는 의미 표상을 갖기 때문에 ‘X-빵’의 구조를 갖는 단어의 ‘X’는 구체적인 모양을 가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모양’을 가질 수 없는 [사건]영역이나 [추상]영역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만들어질 확률은 낮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sup>40)</sup>

단어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든 한번 만들어지면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단어는 만들어질 수 없다’와 같은 단언은 위험하다. 다만 기존의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단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 정도는 단어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필꽃이’라는 단어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꽃이’의 선행 요소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39) 연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어의 모든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연결의 거리이다. ‘곰보, 국화, 붕어’가 [구상적 실체]영역에는 모두 포함되지만 연결의 거리는 다르다. ‘곰보’는 [사람]영역에 의해 [구상적 실체]에 연결되어 있으며, ‘국화’와 ‘붕어’는 [사물]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하지만 동시에 ‘유정성’과 ‘무정성’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40) 단어는 기억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와 다르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지면 어휘부에 저장되고, 저장된 이상 새로운 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00% 예측은 불가능하다. 즉 예측은 정도성의 문제인 것이다. 연결의 거리에 따라 예측성이 달라질 것이다.



( 그림 3 : 'X-꽃이'의 연결 관계 )

예를 들어 '연필꽃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면, '필기구' 영역에 '볼펜, 펜' 등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볼펜꽃이'나 '펜꽃이'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질 확률은 매우 높다. 반면 의미 영역이 확장될수록, 즉 '연필'과 연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미 영역을 좀 더 확장하면 '냅킨꽃이, 바늘꽃이, 우산꽃이' 등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X-꽃이'는 'X를 꽃는 물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X'의 최대 확장 영역은 물리적 시공간을 점유하는 [사물]영역까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2.3.3. 품사적 패턴과 의미적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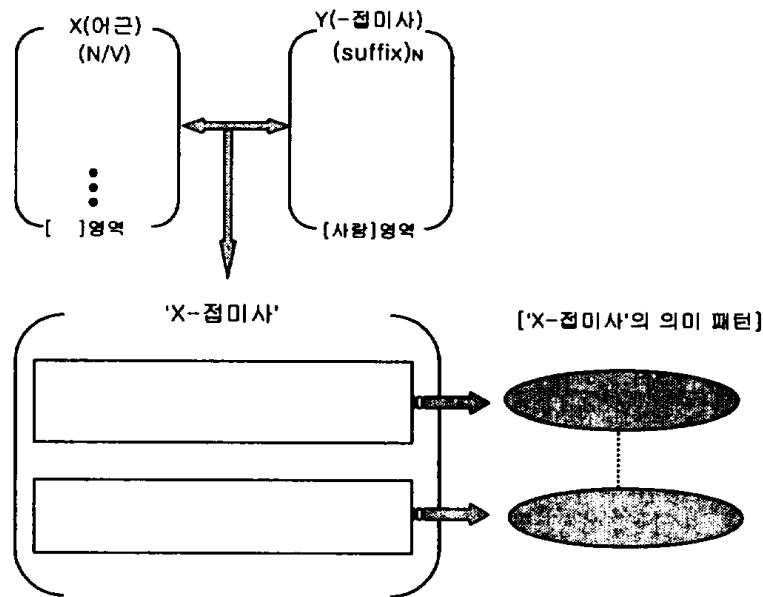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질'이나 '-빵'의 경우는 선행 요소가 '명사'로 품사적 패턴이 하나인 경우이다. 그런데 어떤 접미사는 선행 요소로 하나 이상의 품사와 결합된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는 '먹보, 울보, 재보'와 같이 동사 어간과 결합되기도 하고, '털보, 밥보, 겁보, 똥똥보'와 같이 명사나 어근과 결합되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은 품사적 분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7) ㄱ.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피보, 싸움보, 잠보, 털보.

- ㄴ.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먹보, 울보, 쩌보.
- ㄷ.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땅딸보, 뚱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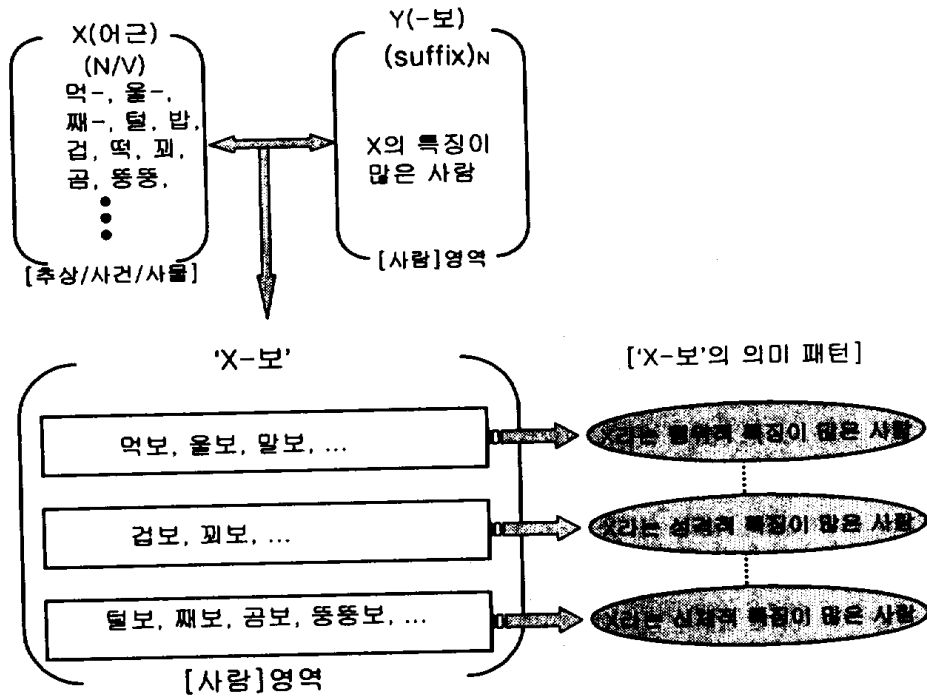
위와 같은 분류는 선행 요소의 품사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털보'의 '털'은 명사이지만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므로 '찌보, 곰보, 뚱뚱보'와 유사하며, '떡보'는 '떡을 잘 먹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먹보, 울보'와 유사하다. 이는 품사적 패턴과 의미적 패턴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4.1.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파생어는 후행 접미사에 따라 선행 요소의 의미적 해석이 다양하게 발현된다. 특정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되어 파생어의 의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 의미 패턴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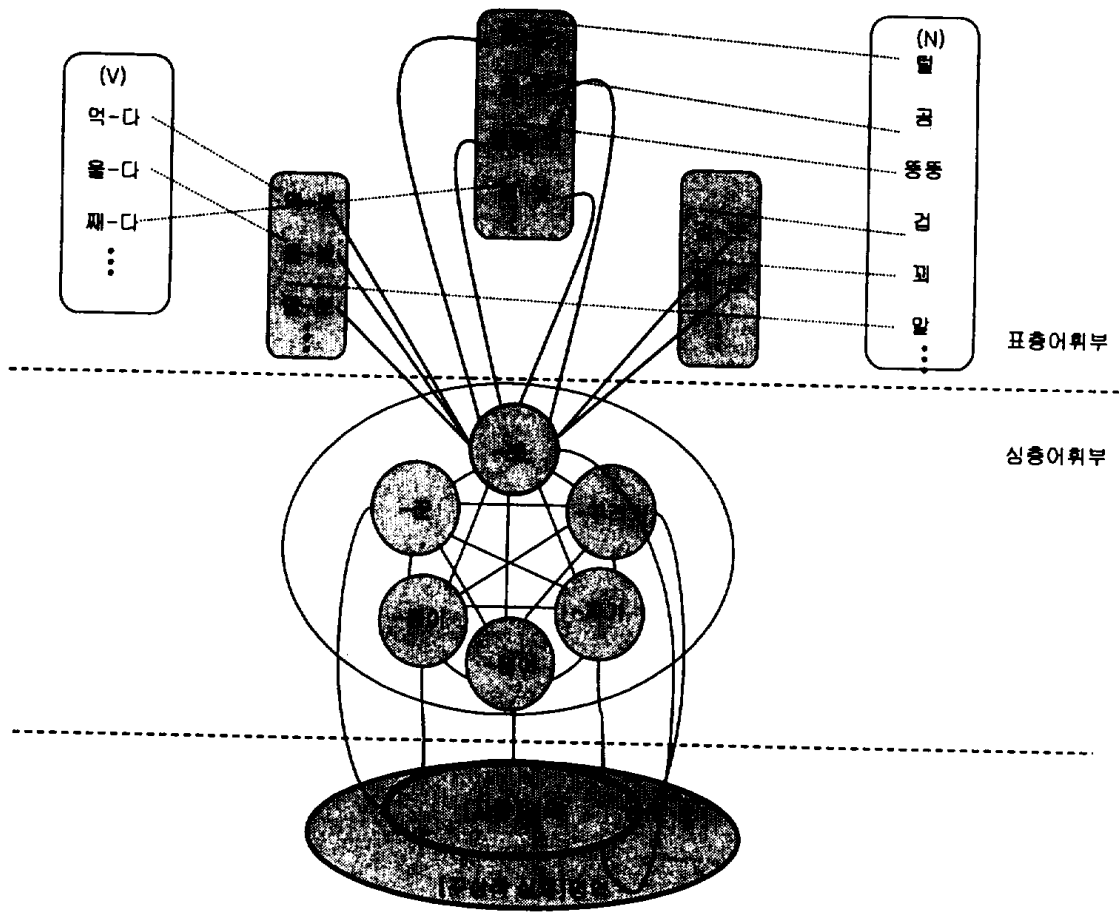
위 그림은 'X'인 어근과 'Y'인 '명사접미사'가 결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의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왼쪽 위의 'X'는 어근으로, '(N/V)'는 품사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며, 왼쪽 아래 '[']표시는 어근의 의미 범주를

나타낸다. 아래 'X-접미사'는 특정 유형의 파생어가 의미적 관계에 따라 유형화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의해 화살표 오른쪽과 같은 의미패턴이 만들어진다. '-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 'X-보'의 의미 패턴 형성 과정)

위의 (그림 4)는 '-보'의 어근으로 'N'과 'V'가 가능하며, 'X-보'의 의미 패턴 'X라는 행위적 특징이 많은 사람', 'X라는 성격적 특징이 많은 사람', 'X라는 신체적 특징이 많은 사람' 등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러한 모든 관계는 연결로써 표현된다. (그림 5)는 하나의 의미 패턴을 이루는 파생어들끼리 하나의 하위 의미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파생어의 어근은 각각의 어근이 속하는 품사 유형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먹-'와 같은 [사건(행위)]영역이 [사람]접미사 '-보'와 결합되어 [사람]의 의미 영역에 연결된다. 물론 각각의 파생접미사는 [사람]영역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그림 5 : 파생어 'X-보'의 연결 관계)

[사람]영역은 [구상적 실체]의 하위 영역이며, [구상적 실체]는 [실체]의 하위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보'와 같은 접미사는 '먹보, 울보, 털보' 등과 같은 단어의 계열 관계에 의해 인식되며 저장 층위도 다르다. 단어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는 형태는 표층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으며, 접미사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 의존 형태는 '심층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sup>41)</sup>

41) '심층어휘부'와 '표층어휘부'라는 개념은 채현식(2000)을 수용한 것이다. 그는 '개구장이'처럼 단어가 등재되는 곳을 '표층어휘부'라 하고, '개구-'나 '-장이'와 같이 표층어휘부에 존재하는 단어들 사이의 계열관계에 기초해서 화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어근과 접사가 인식되는 곳을 '심층어휘부'라고 하였다.

### 3. 접미사의 의미 분류

이 장에서는 명사 접미사를 의미 영역별로 분류한다. 3.1.에서 접미사를 의미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지금까지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와 같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분류해왔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접미사조차도 어떠한 유형의 품사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소가 나타나는 분포가 다르더라도 화자들의 직관에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 인식된다면 문법이 이러한 직관을 기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결주의 관점에서는 연결의 절점(node)이 되는 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접미사를 의미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3.2.에서는 의미 분류 기준의 유형을 살펴보고, 명사 접미사의 의미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이 연구에서는 Nida(1975), Lyons(1977), 최경봉(1998)등에서 제시한 사물의 존재 양상에 따른 존재론적 분류 기준을 수용하여 접미사를 존재론적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3.3.에서는 의미 분류 대상인 명사 접미사의 목록을 확정하고, 3.4.에서는 분류 기준에 의해 의미 영역별로 분류한다.

#### 3.1. 의미 분류 기준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접미사의 분류는 어간의 품사를 바꿈으로써 문법적 기능을 바꾸는지 문법적 기능은 바꾸지 않고 의미만 첨가하는지에 따라 분류해왔다. 전자를 지배적 접사로 후자를 한정적 접사라고 일컫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접미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접미사 '-보'를 보자.

- (1) ㄱ. 먹보, 울보, 재보,...
- ㄴ. 겁보, 털보, 잠보, 피보,...
- ㄷ. 똥똥보, 땅딸보,...

‘-보’는 (1ㄱ)과 같이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기도 하고, (1ㄴ)과 같이 명사와 결합하기도 하며, (1ㄷ)과 같이 어근과 결합하기도 한다. 품사 정보를 바꾸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접미사를 분류한다면 동사의 어간이나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경우는 지배적 접사가 되고,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한정적 접사가 된다. 그래서 명사와 결합하는 ‘-보’는 한정적 접사로, 동사 어간이나 어근과 결합하는 ‘-보’는 지배적 접사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정 요소의 정체성을 그 요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규정짓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요소가 자신의 고유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위와 같은 기능적 정의는 ‘-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접사라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접사가 선행 요소에 따라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는 점은 접사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긴다.<sup>1)</sup>

어간의 품사 정보를 바꾸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접사를 분류한 Hockett(1958:243)의 분류 방식은 오랫동안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의 분류 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sup>2)</sup> 이 분류 방식은 접미사가 어근의 문법 정보를 바꾼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접미사가 어근의 정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접미사 자체가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 
- 1) 어떤 형태가 문법적 의미만 있는 경우에 그 형태의 기능이외에는 형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그 형태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파생 접사에 대한 기능적 측면의 분류 태도 역시 파생 접사를 문법적 요소로 보는 관점이 녹아 있다. 또한 기능에 따른 분류는 특정 형태의 분포라는 가시적 특징에 의해 포착되기 때문에 의미적 분류보다 분류 기준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파생 접미사가 실사에 비해 어휘적 의미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 접미사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 2) 이석주(1989)에서도 의미 차이를 통어 범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꾸러기’와 같이 통어 범주를 바꾸지 않는 파생 접사의 경우도 있어, ‘통어 범주 변환 가부’가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어미)의 구별 방법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ㄱ. V + ( -보 : N ) → N  
 ㄴ. N + ( -보 : N ) → N  
 ㄷ. R + ( -보 : N ) → N

우리말은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오른 쪽 요소가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 다. 만약 오른 쪽 요소인 접미사 '-보'가 '명사'라는 품사 정보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1)의 세 유형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모든 접미사는 품사 정보를 갖으며, 오른 쪽 요소가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다는 우리말의 원칙에 의해 파생어의 품사는 접미사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서는 특정 접미사가 어떤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범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오른 쪽 요소가 단어의 중심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접사는 통상 단어의 주변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만을 지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생접미사의 경우 독자적인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근성 어휘와 결합하여 통사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sup>3)</sup> 또한 의존형태인 접사들이 실사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미사가 어휘 부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큰 무리가 없다.<sup>4)</sup>

3) 고영근(1972ㄴ)은 어근과 접미사의 통합에서 일어나는 형태음소적 변이가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굴절법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규칙하고 개별적이어서 오히려 어근과 접미사의 통합 양상은 합성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접미사와 선행 어근의 결합에서 접미사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어근과 접미사의 통합에 나타난 어근의 변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논문을 참조할 것).

4) 이재인(1989)은 파생 접미사에 선행하는 형태의 성격을 구조 안에서 기능을 중시하여 통사 범주에 대해 독립적인 어근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파생 접미사 역시 하나의 형태소로서 고유 의미와 특정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고서 특정한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적 어근으로 보고 있으며 접미사는 의미 특성에 따라 어기에 대한 선택 제약을 가지는 파생 명사 구조의 표제(중심부)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접사를 단순히 파생어의 주변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근과 동등한

또한 의미에 따른 분류는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보'가 '~사람'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포착해 주는 장점이 있다.

## 3.2. 의미 분류 기준의 유형과 접미사의 분류 기준

### 3.2.1. 의미 분류 기준의 유형

어휘를 의미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의미 관계나 특정 개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의 존재 양상에 따라 즉, 존재론적 측면에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존재하는 어휘들의 관계를 의미 유형별로 또는 특정 개념별로 분류한 방식이라면, 후자는 사물(things)의 존재 양상에 대한 틀을 먼저 만들고 이러한 틀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의미 유형별 분류 방식은 존재하는 어휘를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시소러스와 같은 분류 어휘집을 들 수 있다.<sup>5)</sup> 로제의 시소러스는 단어들을 모으고 유사한 개념을 표상했다고 판단되는 단어들끼리 분류한 일종의 유의 개념 분류 사전이다. 그는 분류 기준으로 범주 체계를 추상 관계, 공간, 물리학, 물체 감각, 지성, 의지, 애정 등 8가지 주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다시 1,042개의 하위 의미 영역으로 세분하였다.<sup>6)</sup>

우리 나라도 '조선관역어'에서 '우리말 갈래사전'에 이르기까지 23종의 분류

---

요소로 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핵 중심의 일반적 원칙을 따르는 관점이다.

5) 최초의 시소러스는 Roget(1852)의 시소러스(thesaurus)를 들 수 있다. Roget는 사람들이 단어를 찾을 때 철자 순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어들을 특정한 개념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 번째 시소러스에서 분류한 개념 영역은 추상적 관계, 운동을 포함한 공간, 물질 세계, 지성과 그 작용, 의지, 감성과 도덕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Miller 1991, 강범모·김성도 1998 옮김).

6) Roget(1852)의 시소러스는 본래 추상적 관계, 운동을 포함한 공간, 물질 세계, 지성과 그 작용, 의지, 감성과 도덕 등 6가지 범주 1,000개 항목으로 출발되었는데, 저자가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8판이 거듭되었으며, 그 뒤에도 많은 학자들의 손에 의해 개정·증보·축소판이 출판되었다(임지룡 1993).

어휘집이 있다.<sup>7)</sup> 조선관역어는 중국어와 국어의 대역 어휘집으로 총 19문에 597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1989년 박용수가 엮은 우리말 갈래사전은 총 33,721개의 표제어를 낱말의 쓰임새와 동류성에 따라 33부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품사별, 용어별, 유의어별로 소분류하고 있다.

존재론적 양상에 따른 분류는 Nida(1975)와 Lyons(1977)를 들 수 있다. Nida(1975)는 의미 영역으로 크게 [실체(entities)], [사건(events)], [추상(abstracts)], [관계(relations)]로 분류하였고, Lyons(1977)는 [제 1실체(First-order entities)], [제 2실체(Second-order entities)], [제 3실체(Third-order entities)]로 분류했다.<sup>8)</sup> 사실 Nida(1975)의 분류는 존재론적 분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Nida(1975)는 의미 영역이란 '일정한 의미 성분들을 공유하는 의미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 있어 의미 영역은 단순히 공통된 의미 성분들을 지니는 의미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영역이 얼마나 적절하며 또 얼마나 넓은지는 그 언어의 전체 의미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볼 때, Nida(1975)의 분류는 사물의 보편적 존재 양상에 따른 존재론적 분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의미 영역의 특징을 논하면서, 그는 의미 영역이 그 크기나 계층적 층위, 구성원 자격 등에 따라 상대적 크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에는 [실체(entities)], [사건(events)], [추상(abstracts)], [관계(relations)]와 같은 의미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개별 언어의 의미 구조에 따라 의미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네 가지 의미 영역은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Lyons(1977)의 분류 방식도 Nida(1975)와 크게 다르지 않다. Lyons(1977:443-444)는 [제 1실체(First-order entities)]는 시간상의 어떤 시점에 위치하고, 물리적으로 최소한 삼차원의 공간에 위치하며, 공공연하게 관찰 가능한 것으로, [사람(persons)], [동물(animals)], [물건(things)]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 2실체(Second-order entities)]는 시간 속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존재한다기보다 일어나거나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건(events)], [과정(processes)],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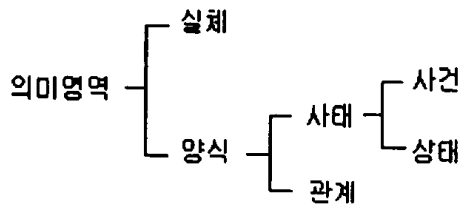
7) 우리 나라 분류 어휘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지룡(1989)을 참조할 수 있다.

8) 존재론적 의미 영역은 모두 '['로 표시하였다.

태(states-of-affairs)]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 3실체(Third-order entities)]는 시간과 공간의 밖에 존재하는 [추상적 실체]를 말한다.

최경봉(1998)의 분류 방식도 존재론적 방식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3) 명사의 존재론적 분류 체계(최경봉, 1998)<sup>9)</sup>



최경봉(1998)의 분류 방식은 Nida(1975)와 Lyons(1977)의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체]와 그것의 [존재 양식]으로 이분한 후, [존재 양식]을 다시 [사태(사건과 상태)]와 [관계]로 분류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9) 최경봉(1998)은 의미 영역을 의미 구조 내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영역에서 한걸음 나아가 존재 대상이 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모든 의미는 곧 존재 대상이 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Nida(1975)도 언급하고 있듯이,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언어에 다르게 나타나는 의미 영역 또한 존재하므로 존재 양상이 곧 언어의 의미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보편적인 존재 양상에 대한 분류 기준과 개별 언어의 특성이 반영된 분류 기준의 경계를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 3.2.2. 접미사의 존재론적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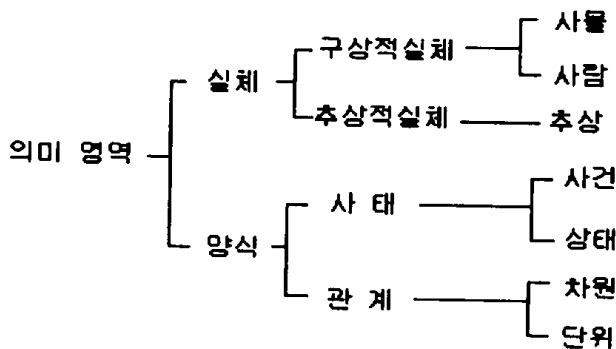
접미사를 의미 측면에서 분류한 연구가 없지는 않다. 하치근(1987)에서는 인칭접미사, 사물접미사, 행위접미사, 상태접미사로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한 바 있으며, 황화상(2001)에서는 사람접미사, 사물접미사, 사태접미사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미에 의해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분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떤 대상을 분류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류의 일관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접미사의 분류에서도 접미사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의 분류 방식으로 존재론적 분류 방식을 채택한다. 어휘가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존재론적 입장은 어휘의 의미 분류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최경봉, 1998). 더구나 특정 의미 영역을 경계 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언어의 표상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의 존재 양상을 기준으로 한 존재론적 분류 방식은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 분류의 기준으로 적절하다.

명사 접미사는 이들 접미사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파생어가 명사라는 점에서 명사의 의미 분류를 인용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분류 체계 중에서 최경봉(1998)의 분류 체계는 존재물의 의미 영역을 [실체]와 그것의 [존재 양식]으로 분류하고, 다시 하위 분류하는 계층적 분류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Nida(1975)나 Lyons(1977)의 분류 방식보다 한 걸음 나아간 감이 있다. 그런데 최경봉(1998)의 분류 방식의 문제는 시공간상의 어떤 점유도 없는 [추상]적 존재물이 [실체]의 하위 부류인 [사물]에 분류된다는 점이다. 최경봉(1998)은 [실체]를 [사물]과 [인간]으로 하위 분류하고, [사물]을 [공간물]과 [개체물]로 하위 분류한 후, 추상성을 가진 '정부, 국회, 위원회, 단체, 동아리'와 같은 명사들을 [공간물]로 분류하고 있다. 최경봉(1998)은 위와 같은 명사들이 [실체]와 직접적인 대응을 이루지는 않지만, 이들 명사는 모두 자체의 범위를 경계화하여 다른 범주들의 범위와 구별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는 않지만 일정한 [실체]

를 전제하는 명사인 만큼 [공간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러한 분류 방식은 좀 더 상위 분류의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더구나 [실체]와 [사물]이라는 단어가 갖는 보편적 의미를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경봉(1998)의 분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4) 존재론적 분류 체계에 따른 의미 영역



위의 분류는 계층적인 분류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최경봉(1998)을 수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Lyons(1977)를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구상적 실체]는 Lyons(1977)에서 말한 [제 1실체]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시간적으로 어느 점에 위치하고, 물리적으로 삼차원의 공간에 위치하며 관찰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구상적 실체]는 다시 [사람(persons)]과 [사물(things)]로 하위 분류된다. 인간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유정성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의 부류로 인식하는 듯하다. 여기서 [사물(things)]은 [사람(persons)]이외의 모든 구상적 존재를 가리킨다. [추상적 실체]는 시공간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존재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실체]의 하위 의미로 분류하였다.<sup>10)</sup> [실체(entities)]의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사태]는 실체의 운동이 동반되는 [사건(events)]과 정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상태]와 실체의 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관계(relations)]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는 Lyons(1977)의 제 2실체에 [관계

10)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음'이나 '삶'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거나 '삶이 괴롭히다'와 같이 하나의 존재물처럼 인식한다.

(relations)]영역을 추가한 것이다. [추상(abstracts)]영역은 Lyons(1977)의 제 3실체에 해당된다. 즉 물리적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관계]영역의 하위 분류는 최경봉(1998)을 수용하여 [차원(dimension)]과 [단위(unit)]로 분류하였다.<sup>11)</sup>

### 3.3. 접미사의 목록 설정과 범주

접미사 분류에 앞서 분류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범주를 설정하고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목록을 확정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범주의 정의와 목록 설정의 문제는 비단 파생접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 현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2)</sup> 범주 경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몇몇의 형태들은 명사접미사와 한정조사 그리고 의존명사의 범주와 관련하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몇몇 형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 (5) ㄱ. 들, 쯤, 께, 씩.
- ㄴ. 뿐.
- ㄷ. 대로, 만큼.

김계곤(1969ㄴ)에서는 (5ㄱ)을 조사로 분류하였으며, 고영근(1974)에서는 파생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5ㄴ)을 고영근(1970), 이주행(1988), 임동훈(1991), 손춘섭(1992), 서정수(1996), 안효경(2000) 등에서는 의존명사로, 신창순(1975), 홍사만(1983), 김승곤(1989)은 한정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5ㄷ)은 고영근(1970), 이주행(1988), 임동훈(1991), 손춘섭(1992), 서정수(1996)에서는 의존명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김승곤(1989)에서는 ‘만큼’은 의존명사로 ‘대로’

11) Nida(1975)는 [관계]의 하위 부류로 ‘공간적’, ‘시간적’, ‘지시적’, ‘논리적’관계를 설정하였다.

12) 의존명사나 서술격조사와 같은 용어는 범주 경계적인 현상을 용어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이다.

는 한정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고영근(1989)에서는 ‘마음대로’의 ‘-대로’와 ‘웬만큼, 요만큼’의 ‘-만큼’은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다. 조사나 어미가 특정 어간이나 어근과 통합됨으로써 문법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접사의 직능을 발휘하므로 접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5)의 형태들이 위와 같이 다양한 범주에 분류되는 것은 기능면에서 다른 범주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형태가 다른 기능을 보인다 하여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ㄱ.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가고 있다.

ㄴ. 저기 걸어가는 여인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ㄷ. 저기 걸어가는 여인이 참 아름답다.

(6)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6ㄱ)과 (6ㄴ)은 수식언에 해당하며, (6ㄷ)은 용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미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 ‘아름답-’은 형용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의미에 따른 분류와 달리 기능에 따른 분류가 문장에서의 분포와 기능에 따른 상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형태들은 실은 분류 방식과 관계가 있다. 물론 어떤 형태소의 의미란 문법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의존명사나 한정조사 파생접사의 경계에 있는 형태소들은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어휘적 의미도 갖는다.

(7) ㄱ. 당신이 느낀 대로 말하십시오.

ㄴ. 처벌하고 싶으면 벌대로 하십시오.

(8) ㄱ.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ㄴ.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품사라고 말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와 같은 분류는 의미에 따른 분류이다. 그런데 현행 규범문법에서는 (7ㄱ)과 (8ㄱ)는 의존명사로, (7ㄴ)과 (8ㄴ)은 한정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즉, 명사, 조사와 같은 의미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가 특정 환경에 따라 다른 범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형태가 우연히 형태만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직관과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7ㄱ)와 (8ㄴ)은, 의미는 동일한데 문장에 나타나는 분포만 다른 것으로 형용사 ‘아름답-’이 수식언어나 용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6)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만큼’이나 ‘대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7ㄱ)이나 (8ㄱ)은 ‘체언’인 명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7ㄴ)과 (8ㄴ)은 ‘관계언’인 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의 분류 문제와 마찬가지로이다.

(9) ㄱ.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채밖에 없었다.

ㄴ. 그는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10) ㄱ. 흰등이, 덴등이,

ㄴ. 해방등이, 막내등이, 귀염등이

(11) ㄱ. 얇은뱅이

ㄴ. 가난뱅이, 주정뱅이, 게으름뱅이

만약 특정 형태의 분포만을 문제 삼는다면 (9ㄱ)은 의존 명사로, (9ㄴ)은 접미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한 채’의 ‘채’와 ‘안채, 바깥채’의 ‘-채’가 의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sup>13)</sup>

범주 경계적인 현상을 보이는 형태에 대한 분류의 문제는 범주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간단없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해결 방법이 모색된 것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주

13)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현상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언어 현상의 설명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여 이러한 형태들이 갖는 범주 경계적인 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므로 이들 형태가 의미적으로 동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흰둥이’와 ‘정월둥이’의 ‘-둥이’가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보거나 ‘한 채’의 ‘채’와 ‘안채, 바깥채’의 ‘-채’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3장의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접미사가 문법적 기능을 바꾼다거나 바꾸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다. 하나의 접사가 선행 요소나 후행 요소의 부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행 요소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는 설명과 동일하다.

필자는 범주 경계적인 현상을 보이는 형태들이 어떠한 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접미사의 목록 설정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분류 대상은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송철의(2001)에서 제시한 접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짜, -토록, -포’ 등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미사로 등재하지 않았으나 송철의(2001)에서는 이들 형태를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끼리, -들, -맞이, -말, -잡이, -쫘’ 등은 접미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접미사 목록을 대부분 수용한다.<sup>15)</sup> 다만, ‘-말’의 경우는 ‘머리말’ 단 하나의 파생어만 만들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V-이’ 구성을 갖는 ‘맞이, 살이, 잡이’ 등은 동사 어간의 의미나 접미사 ‘-이’의 의미와 상관성이 포착되므로 역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14)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체계 내 모순의 극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온다. 이는 어떠한 현상은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태가 문장 속에서 다른 분포에 나타나는 ‘만큼, 대로’와 같은 형태에 대한 기능적 분류 관점은 아무리 기준을 달리 세워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접미사 목록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접미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72)을 참조할 수 있다.

(12) 명사 접미사 목록

- 가마리 : 걱정가마리, 구경가마리, 근심가마리, 놀림가마리, 욕가마리, 웃음가마리,...
- 가웃 : 자가웃, 말가웃, 되가웃,...
- 개 : 오줌싸개, 코홀리개, 날개, 덮개, 지우개,...
- 거리<sub>1</sub> : 떼거리, 패거리, 짓거리,...
- 거리<sub>2</sub> : 이틀거리, 하루거리, 달거리, 해거리,...
- 기 : 굵기, 달리기, 돌려짓기, 모내기, 사재기, 줄넘기, 크기,...
- 까짓 : 이까짓, 저까짓, 그까짓, 네까짓,...
- 갈 : 맛갈, 빛갈, 성갈,...
- 께 : 이달 말께, 서울역께,...
- 끼리 :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 꿀 : 100원꿀, 한 명꿀, 열 개꿀,...
- 꾸러기 :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걱정꾸러기,...
- 꾼 : 나무꾼,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사냥꾼, 주정꾼, 구경꾼, 일꾼, 장꾼,...
- 내기 :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여간내기, 풋내기,...
- 네 : 동갑네, 아낙네, 여인네, 철수네, 김 서방네, 아저씨네,...
- 님 : 사장님, 총장님,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 대가리 : 맛대가리, 멋대가리, 재미대가리,...
- 데기 : 부엌데기, 새침데기, 소박데기, 심술데기,...
- 둥이 : 귀염둥이, 막내둥이, 해방둥이, 바람둥이,...
- 들 : 사람들, 그들, 너희들, 사건들,...
- 들이 : 한 말들이, 1리터들이,...
- 딱지 : 고물딱지, 심술딱지, 화딱지,...
- 때기 : 배때기, 귀때기, 볼때기,...
- 뜨기 : 사팔뜨기, 시골뜨기, 촌뜨기,...
- ㅁ, -음 : 꿈, 삶, 앓, 잠, 춤, 기쁨, 슬픔, 믿음, 죽음, 웃음, 걸음,...
- 막 : 내리막, 오르막,...
- 매 : 눈매, 몸매, 입매, 옷매,...
- 머리 : 싹수머리, 안달머리, 인정머리, 주변머리, 주책머리,...
- 바가지 : 고생바가지, 주책바가지,...

- 박이 :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불박이,...
- 발 : 꾀발, 말발, 약발, 화장발,...
- 배기 :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나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 뱅이 :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안달뱅이, 앓은뱅이, 주정뱅이, 좁쌀뱅이,...
- 보<sub>1</sub> : 피보, 싸움보, 잠보, 털보, 먹보, 울보, 재보, 땅딸보, 뚱뚱보,...
- 보<sub>2</sub> : 말보, 심술보, 울음보, 웃음보,...
- 불이 : 살불이, 피불이, 일가불이, 쇠불이, 금불이, 고기불이,...
- 빼기 : 곱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 빨 : 삼촌빨, 손자빨, 손아래빨, 아버지빨, 자식빨, 조카빨, 할아버지빨,...
- 새 : 걸음새,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짜임새, 차림새,...
- 씨 : 말씨, 마음씨, 바람씨, 발씨,...
- 씩 : 조금씩, 며칠씩, 하나씩, 한 개씩, 열 그릇씩, 다섯 마리씩, 한 걸음씩,...
- 아치 : 벼슬아치, 동남아치,...
- 이<sub>1</sub> : 길이, 높이, 먹이, 벌이, 때밀이, 젓먹이, 재떨이, 옷걸이, 목걸이, 감옥살이,  
가슴앓이, 절름발이, 애꾸눈이, 멍청이, 똑똑이, 뚱뚱이, 딸랑이, 짹짹이,...
- 이<sub>2</sub> : 갑순이, 갑돌이,...
- 장이, -쟁이 : 간판장이, 뽕장이, 미장이, 양복장이, 용기장이, 칠장이  
      겹쟁이, 고집쟁이, 떼쟁이, 멋쟁이, 무식쟁이,...
- 지기<sub>1</sub> : 닷 말지기, 두어 섬지기,...
- 지기<sub>2</sub> : 문지기, 산지기, 청지기,...
- 질 :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부채질, 결눈질, 손가락질, 입질, 주먹질, 담금  
      질, 도둑질, 발길질, 선생질, 순사질, 싸움질, 물질, 불질, 풀질, 흙질,  
      딸꾹질, 똑딱질, 수군덕질,...
- 집<sub>1</sub> : 김집, 박집, 마산집, 부산집,...
- 집<sub>2</sub> : 몸집, 살집, 물집, 흙집, 칼집,...
- 짜리 : 한 뽕짜리, 열 살짜리, 오십 권짜리, 방 두 개짜리, 백 원짜리, 얼마짜리  
      양복짜리, 장옷짜리, 창의짜리,...
- 짝 : 낮짝, 등짝, 불기짝, 신짝, 얼굴짝, 짚신짝,...
- 째<sub>1</sub> : 그릇째, 뿌리째, 깍질째, 통째로, 발째,...
- 째<sub>2</sub> : 몇째, 사흘째, 며칠째, 두 잔째, 여덟 바퀴째, 다섯 달째, 들째, 셋째,...
- 종 : 당귀 한 냥종, 금 두 돈종, 은 세 푼종,...

- 쫘 : 내일쫘, 이쫘, 얼마쫘, 중간쫘, 그런 사정쫘, 12월 20일쫘,...
- 채 : 문간채, 바깥채, 사랑채, 안채, 행랑채,...
- 치 : 날림치, 당년치, 중간치, 버림치,...
- 치레 : 걸치레, 말치레, 병치레, 손님치레, 인사치레,...
- 투성이 : 흙투성이, 피투성이,...
- 통이 : 눈통이, 배통이, 젓통이, 피통이, 미련통이, 심술통이,...

### 3.4. 접미사의 존재론적 의미 분류

#### 3.4.1. [실체]접미사

[실체]는 물리적 시공간을 점유하는 [구상적 실체]와 물리적 시공간 밖에 위치하는 [추상적 실체]로 하위 분류하고, [구상적 실체]는 [사람]과 [사물]로 하위 분류하였다. [사물]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물]과 양립시킨 것은 언어에 나타난 인식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인간]은 사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지위가 존재론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최경봉 1998).<sup>16)</sup>

#### (13) [사람]접미사

- 가마리 : 걱정가마리, 구경가마리, 근심가마리, 놀림가마리, 욕가마리, 웃음  
가마리,...
- 꾸러기 :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걱정꾸러기,...
- 꾼 : 나무꾼,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사냥꾼, 주정꾼, 구경꾼, 일꾼, 장꾼,...
- 내기 :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여간내기, 풋내기,...
- 데기 : 부엌데기, 새침데기, 소박데기,...
- 등이 : 귀염등이, 막내등이, 해방등이, 바람등이,...
- 뜨기 : 사팔뜨기, 시골뜨기, 촌뜨기,...

---

16) 의미 영역과 문법 부류 단계의 연결을 형식화하고자 하는 최경봉(1998)은 이러한 분류 근거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대명사 체계를 들고 있다.

- 뱅이 :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안달뱅이, 앓은뱅이, 주정뱅이, 좁쌀뱅이,...
- 보<sub>1</sub> : 피보, 잠보, 털보, 먹보, 울보, 째보, 뚱뚱보, 땅달보,...
- 아치 : 벼슬아치, 동남아치, 구실아치, 동자아치, 바느질아치, 반뻬아치, 시정아치,...
- 장이 : (-쟁이)간판장이, 뺨장이, 미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칠장이,...  
      겹쟁이, 고집쟁이, 떼쟁이, 멋쟁이, 무식쟁이,...
- 지기<sub>2</sub> : 문지기, 산지기, 청지기,...
- 집<sub>1</sub> : 김집, 박집, 마산집, 부산집,...

명사 접미사 중 [사람]의 의미 영역을 갖는 접미사는 (13)과 같다. 위의 접미사는 선행 어근과 결합하여 특정한 부류의[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를 만든다. [사람]접미사는 [추상], [사건], [사물]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한다. 예를 들어 '-가마리'나 '-꾸러기'는 [추상]영역인 '걱정, 근심, 장난, 말썽'등과 결합하고, '-장이'는 '간판, 양복, 옹기'와 같은 [사물]영역과 결합하며 '-꾼'은 '주정, 사냥, 노름' 등과 같은 [사건]영역과 결합하여 [사람]파생어를 만든다.<sup>17)</sup> 그러나 이들 접미사는 동일한 의미 영역인 [사람]영역과는 결합하지 않는 듯하다.

#### (14) [사물]접미사

- 보<sub>2</sub><sup>18)</sup> : 울음보, 심보<sup>19)</sup>, 웃음보...

- 
- 17) '-꾼'의 선행 어근은 모두 '동작성'을 갖기 때문에 [사건]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정수(1996)에서는 '-하다'가 선행어가 동사성을 가질 때나 형용사성이 능후한 한자어나 외래어에만 첨가되고, '책상, 집, 차'등과 같은 실체성을 가진 명사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꾼'과 결합하는 어근은 모두 '-하다' 결합이 자연스럽다. '나무꾼'의 '나무'를 '사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나무꾼'의 '나무'는 '나무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떨감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8) '웃음보, 울음보, 심보'가 물리적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 울음, 마음'등이 쌓인 '것', 즉 사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로 분류할 수 있다.
- 1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심보'는 '마음보'로 '심술보'는 '심술이 많은 사람으로 설명하면서도, '보<sub>2</sub>'의 예로 '웃음보, 울음보, 심술보' 등을 들고 있으나, '심술보'는 'X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보<sub>1</sub>'에 의한 파생어이고 '심보'는 'X가 쌓여 모인 것'이라는 '보<sub>2</sub>'에 의한 파생어이므로 '웃음보, 울음보'와 동일한 유형의 파생어는 '심

- 치 : 날림치, 당년치, 중간치, 버림치...
- 채 : 문간채, 바깥채, 사랑채, 안채, 행랑채...

명사 접미사 중 [사물]의 의미 영역을 갖는 접미사는 (14)와 같다. '-보'나 '-치'는 선행 어근이 [추상]영역이나 [사건]영역인데 생성된 파생어는 [사물]의 의미를 갖는다. '-채'를 [사물]접미사로 분류한 것은 이 접미사에 의해 특정 공간이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깥채, 안채'의 경우 '바깥, 안'<sup>20)</sup>이 '-채'에 의해 하나의 개체물로 인식되고 있다.

#### (15) [사람·사물]접미사

##### ㄱ. [사람]

- 개 : 오줌싸개, 코흘리개,...
- 바가지 : 주책바가지,...
- 배기 :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나이배기,...
- 때기 : 밥때기, 악착때기,...
- 박이 :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 불이 : 살불이, 피불이, 일가불이,...
- 통이 : 피통이, 미련통이, 심술통이,...

##### ㄴ. [사물]

- 개 : 날개, 덮개, 지우개, 부침개, 찌개,...
- 바가지 : 고생바가지,...
- 배기 : 알배기,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 때기 : 곱때기,...
- 박이 : 점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 불이 : 쇠불이, 금불이, 고기불이,...
- 통이 : 눈통이, 배통이, 젓통이,...

---

보(마음보)'가 맞다.

20) 최경봉(1998)에서는 '바깥'과 '안'을 [관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15)는 어근에 따라 [사람]과 [사물] 영역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많은 접미사가 [사람]과 [사물]의 의미를 모두 갖는데, 두 의미 영역은 모두 [구상적 실체]의 하위 부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의미 영역 내에서 접미사의 의미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16) [사람·사물·추상·사건]접미사

- 이 : 때밀이, 젓먹이, 절름발이, 애꾸눈이, 멍청이, 똑똑이, 똥똥이, 재떨이, 옷걸이, 목걸이, 딸랑이, 짹짹이, 먼지떨이, 놀이, 벌이, 소물이,...
- 음 : 짐, 뛰김, 조림, 볶음, 믿음, 웃음, 꿈, 삶, 앓, 잠, 춤, 기쁨, 슬픔, 걸음, 죽음, 각시놀음(각시놀이), 간판놀음, 감정놀음, 꽃숙음(꽃따기), 꽃묶음,...
- 기 : 얼뜨기, 안잠자기<sup>22)</sup>, 먼산바라기<sup>23)</sup>, 보름보기<sup>24)</sup>, 뽑기, 돋보기, 줄넘기, 크기, 굶기, 달리기, 돌려짓기, 모내기, 사재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16)은 ‘-이, -음, -기’의 의미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와 ‘-기’는 [사람], [사물], [추상], [사건]의 영역의 파생어가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접미사 ‘-이, -기’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음’의 경우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 파생어는 없다(‘-이, -음, -기’의 의미는 5.2.에서 자세히 논의함).

21) 필자는 어휘적 의미가 강한 파생 접사의 경우 다의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통시적으로 ‘-이’ 결합형으로 보이는 ‘-박이, -배기, -뻘기, -불이, -통이’ 등의 경우 선행 어근에 따라 [사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접미사는 ‘N-V-이’구조를 보이고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파생어의 다양한 의미는 접미사 ‘-이’의 다양한 의미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말한다.

23) 눈동자가 늘 먼 곳을 바라보는 것같이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24) ‘애꾸눈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한 달의 절반이 보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 3.4.2. [양식] 접미사

사물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양식]접미사는 실체의 운동이 동반되는 [사건]접미사와 정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상태]접미사, 실체의 관계양상을 나타내는 [관계]접미사로 하위 분류된다.

#### (17) [사건]접미사

-질 :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부채질, 결눈질, 손가락질, 입질, 주먹질, 담금질, 도둑질, 발길질, 선생질, 순사질, 싸움질, 물질, 불질, 풀질, 흙질, 딸꾹질, 수군덕질...

-치레 : 걸치레, 말치레, 병치레, 손님치레, 인사치레...

명사 접미사 중 [사건]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는 (17)과 같다. 이들 접미사가 동작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다'와 결합이 용이한 점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걸레, 망치, 병, 손님'과 같이 동작성이 없는 어근에는 '-하다'가 직접 결합되지 않지만, '-질'이나 '-치레'가 결합된 '걸레질, 망치질, 병치레, 손님치레' 등은 '-하다'와 결합이 자유롭다.

#### (18) [상태]접미사

-갈 : 맛갈, 빛갈, 성갈,...

-매 : 눈매, 몸매, 입매, 옷매,...

-발 : 풋발, 말발, 약발, 화장발,...

-투성이 : 흙투성이, 피투성이,...

-새 : 걸음새,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짜임새, 차림새,...

-씨 : 말씨, 마음씨, 바람씨, 발씨,...

-집<sub>2</sub> : 몸집, 살집, 물집, 흙집, 칼집,...

실체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18)과 같다. 이들 접미사가 선행 어근과 결합되면 실체의 속성이나 상태 등을 나타낸다. 접미사를 분류함에 있어, 선행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지 바꾸지 않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

면, 이들 접미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가 된다. 그러나 의미 영역의 차원에서 보면, ‘웃, 흙, 피’등과 같은 [구체적 사물]이 ‘-투성이’와 결합되어 만들어진 ‘피투성이, 흙투성이, 옷매’와 같은 파생어는 [상태]의미를 갖는다.

(19) [단위] 접미사

- 가웃(절반) : 자가웃, 말가웃, 되가웃,...
- 거리2(주기) : 이틀거리, 하루거리, 달거리, 해거리,...
- 께(범위) : 서울역께, 이달말께, 그믐께,...
- 꿀(분량) : 100원꿀, 한 명꿀, 열 개꿀,...
- 들이(용량) : 한 말들이, 1리터들이,...
- 씩 : 조금씩, 며칠씩, 하나씩, 두 사람씩, 열 그릇씩, 다섯 마리씩, 한 번씩, 한 걸음씩,...
- 쯤 : 내일쯤, 이쯤, 얼마쯤, 중간쯤, 그런 사정쯤, 12월 20일쯤,...
- 어치(분량) : 한 푼어치, 천 원어치, 얼마어치,...
- 지기<sub>1</sub> (논) : 닛 말지기, 두어 섬지기, 천둥지기,...
- 째<sub>1</sub> (차례) : 몇째, 사흘째, 며칠째, 두 잔째, 여덟 바퀴째, 다섯 달째, 들째, 셋째,...
- 째<sub>2</sub> (전부, 그대로) : 그릇째, 뿌리째, 껍질째, 통째로, 발째,...
- 종(무게) : 당귀 한 냥종, 금 두 돈종, 은 세 푼종,...
- 짜리(사물, 사람)<sup>25)</sup> : 한 뺨짜리, 열 살짜리, 오십 원짜리, 방 두 개짜리, 백 원짜리, 얼마짜리, 양복짜리, 장옷짜리, 창의짜리,...

[관계]접미사는 실체의 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시공간상의 차원을 나타내는 [차원]접미사와 실체의 단위성을 나타내는 [단위]접미사로 분류된다. (19)는 수량의 의미를 갖는 어근과만 결합하는 접미사류이다. 수량 의미의 어근과 결합하는 이들 접미사는 선행 어근의 단위성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단

25) ‘-짜리’는 선행 어근과 결합하여 ‘X의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데, 주로 수량의 의미를 가진 어근과 결합한다. ‘양복짜리, 장옷짜리, 창의짜리’ ‘X’ 차림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늘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즉 [사물]이 [사람]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짜리’가 [사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접미사로 분류하였다.

(20) [차원] 접미사

-막 : 내리막, 오르막.

-빨 : 삼촌빨, 손자빨, 손아래빨, 아버지빨, 자식빨, 조카빨, 할아버지빨,...

-님<sup>26)</sup> : 사장님, 총장님,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막’은 ‘오르다, 내리다’라는 [사건]영역과 결합하여 ‘비탈진 곳’이라는 공간을 지칭하므로 [차원]접미사로 분류하였다. ‘-빨’은 선행 어근과 결합하여 실체와 실체 사이의 나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갖기 때문에 [차원]접미사로 분류하였다. ‘-님’의 경우 직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직위와 신분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화자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시공간상의 인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접미사로 분류하였다.

### 3.4.3. 기타 접미사

(21) ‘비하’의미만 첨가하는 접미사

-까짓 : 이까짓, 그까짓, 저까짓, 네까짓

-거리<sub>2</sub> : 떼거리, 패거리, 짓거리

-대가리 : 맛대가리, 멋대가리, 재미대가리

-딱지 : 고물딱지, 심술딱지, 화딱지

-때기 : 배때기, 귀때기, 볼때기

-머리 : 삭수머리, 안달머리, 인정머리, 주변머리, 주책머리

-짝 : 낮짝, 등짝, 볼기짝, 신짝, 얼굴짝, 짚신짝

---

26) ‘-님’의 경우 [사람]의 의미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님, 달님, 토끼님’등에서 선행 어근에 ‘-님’이 첨가되었다 하여 이들 파생어가 사람의 부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을 높이듯 대상을 사람처럼 높이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님’에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1)의 접미사는 ‘비하’의 의미만을 덧붙이는 접미사이다.<sup>27)</sup> 이들 접미사는 선행 어근의 의미 영역을 바꾸지 못하고 다만 ‘비하’의 의미만을 첨가한다. (21)의 접미사 이외에도 많은 접미사들이 ‘비하’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접미사들이 고유어미 이외에 ‘비하’의 의미 갖는 것과 달리 이들 접미사는 ‘비하’의 의미만 갖는다(자세한 논의는 4.3.8.2. 참조할 것)

- (22) -들 : 사람들, 그들, 너희들, 사건들,...
- 끼리 :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 네 : 동갑네, 아낙네, 여인네, 철수네, 김 서방네, 아저씨네,...

(22)의 접미사는 ‘복수, 집단, 무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들’은 실체가 ‘복수’임을 나타내며, ‘-끼리’는 복수성을 갖는 어근과 결합하여 하나의 ‘집단’임을 나타낸다. ‘-네’의 경우도 ‘김서방’이나 ‘아저씨’ 등에 결합하여 ‘김서방네, 아저씨네’가 되면 그 구성원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성’을 갖는다.

---

27) 이들 접미사 이외에도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들이 ‘비하’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접미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 영역과 같은 존재론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다만 ‘비하’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4. 어근과 접미사의 관계

이 장에서는 어근과 접미사의 의미 결합 양상을 미시적으로 기술한다. 먼저 4.1.에서는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보통 단어는 단일한 개념을 갖는 단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어와 달리 복합어는 단어라는 점에서 하나의 통사적 기능단위이지만 의미 측면에서 보면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된 복합 개념체이다. 이 절에서는 특정 접미사와 선행 요소의 결합 양상을 밝힌다. 특히 파생어의 다양한 의미가 특정 접미사와 어근의 결합 관계에 따라 도출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4.2.에서는 파생어의 의미 중 가치 평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파생어의 모든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도출된다는 합성성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성성의 원리가 파생어 형성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비하'의 의미와 같은 가치 평가적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만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4.3.에서는 의미 영역별 접미사의 의미를 미시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사람]영역의 접미사를 대상으로 특정 접미사와 어근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패턴을 기술한다. 이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제로 작동하며, 동시에 새로운 단어를 연결하는 전인자(attractor)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밝힌다.

### 4.1. 어근과 접미사의 의미 결합 양상

우리는 지식을 확장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그 중에서 이미 존재하는 개념과 개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방식은 기억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제적이다. 복합어는 하나 이상의 개념(혹은 의미)이 결합된 복합개념체이다. 즉, 복합어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개념이 결합되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다.

신현정(2000)은 개념과 개념이 결합되는 유형을 서술적 결합(predicating combination)과 비서술적 결합(nonpredicating combination)으로 구분하였다.

서술적 결합이란 ‘빨간 공’, ‘하얀 손수건’ 과 같은 표현에서 ‘빨간 것’과 ‘공’, ‘하얀 것’과 ‘손수건’과 같이 두 개념이 논리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즉, ‘빨간 공’은 ‘공이되 빨간 것’이며, ‘하얀 손수건’은 ‘손수건이되 하얀 것’으로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서술적 결합 유형은 복합의미가 논리적으로 두 성분 개념의 교집합을 이루기 때문에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결합 방식이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구성 성분의 언어적 단서만으로 복합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비서술적 결합유형은 성분 개념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의해서 복합 개념의 의미가 결정되는 개념 결합이다. 예를 들어 ‘야구공’은 ‘공이되 야구인 것’이 아니라 ‘야구를 하는데 쓰는 공’이다. 비서술적 결합 유형은 서술적 결합에 존재하는 언어적 단서가 없으며 의미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결합의 복잡도가 배가된다(신현정 2000).

하나 이상의 복합개념들이 결합되는 방식을 밝히기 위해서 구성 성분들이 어떤 의미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들이 있다(신현정, 2000 재인용).

#### (1) Levi(1978)에서 제시한 비서술적 개념 결합의 유형

- ㄱ. N2가 N1의 원인 : 감기 바이러스
- ㄴ. N1이 N2의 원인 : 전기 화재
- ㄷ. N2가 N1을 소유 : 그림 책
- ㄹ. N1이 N2를 소유 : 사과 껍질
- ㅁ. N2가 N1을 생성 : 꿀 벌
- ㅂ. N1으로 만든 N2 : 설탕 덩어리
- ㅅ. N1이 곧 N2 : 학생 지원자
- ㅇ. N1을 사용하는 N2 : 가스 난로
- ㅈ. N1에 위치한 N2 : 도시 게릴라
- ㅊ. N1을 위한 N2 : 피부 연고

#### (2) Medin & Shoben(1988)의 첨가 유형

- ㄱ. N1에 대한 N2 : 자동차 법규

- ㄴ. N1으로부터 유도된 N2 : 태양 에너지
- ㄷ. N2에 위치한 N1 : 공해 도시
- ㄹ. N1이 사용하는 N2 : 손가락 인형

Levi(1978)에서는 비서술적 개념 결합의 유형을 (1)과 같이 10가지로 구분하였으며, Medin & Shoben(1988)은 여기에 4가지를 더 추가하여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Downing(1977)은 '전체-부분, 부분-부분, 부분-전체, 합성, 비교, 시간, 장소, 근원, 생성, 사용자, 목적, 직업관계' 등 1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렇듯 비서술적 결합 관계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에 따라 다양한 의미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와 '산악잡지'는 '산악'이라는 동일한 성분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산악자전거'는 '산악에서 타는 자전거'라는 '장소적 관계'를 가지며, '산악잡지'는 '산에 관한 잡지'라는 '주제적 관계'를 갖는다(신현정 2000). 그런데 '산악자전거'일 경우에는 '장소(산악에서)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산악잡지'의 경우에는 '주제(산에 관한)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구성 성분의 언어적 단서만으로 도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휘와 어휘의 개념 결합에서 생기는 새로운 개념은 다른 어휘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파생접사를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갖는 파생어의 경우도 복합개념체이기 때문에 개념과 개념의 결합 문제가 발생한다. 파생어 역시 비서술적 결합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밥보'는 '사람이되 밥'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행하는 접미사에 따라 선행 요소인 어근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3) ㄱ. 밥보
- ㄴ. 밥꾼

예를 들어 (3)과 같은 파생어를 가정해 보자. '밥보'와 '밥꾼'에서 선행 명사 '밥'이 '밥보'에서는 먹는 대상으로써 '음식'으로 해석되는 반면, '밥꾼'에서는 밥을 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즉 '밥'이라는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접미사의 의미에 따라 어근의 의미 실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생접미사의 연구는 특정 접미사가 어떠한 어근과 결합하는지, 즉 어근의 음운, 형태, 의미적 환경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어근과 접사의 결합을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어근이 입력 단위가 될 수 있는지, 입력 단위가 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태도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치근(1987), 조남호(1988)에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자.

#### (4) 하치근(1987)

ㄱ. 장어의 뜻 : 어떤 분야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

ㄴ. 장어의 파생 조건 ① 이름씨, 불구뿌리, 상징뿌리와 결합함.

② 파생어의 씨는 이름씨임.

③ 주로 '상태성'뿌리와 결합됨.

④ 한자어계, 고유어계 뿌리에 결합됨.

⑤ 동심·이심구조적 파생 기능을 가진 III유형 접사임.

⑥ '늦갓장이, 뚜장이, 무뚜장이, 미장이'는 어떤 분야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그 밖은 어떤 특징이 지나친 사람을 가리킴.

⑦ 주로 가치부정적인 뜻을 가짐.

#### (5) 조남호(1988)

ㄱ. 장어의 뜻 : 여기와 관련된 행위를 직업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ㄴ. 장어의 파생 조건 : 명사, 1류 어근, 2류 어근, 3류 어근, 동사 어간과 모두 결합되었으나 명사가 가장 생산성이 높으며, 1류 어근과 결합은 생산성이 낮음.

(4)나 (5)와 같은 기술 방식은 구성 요소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고, 구성 요소간의 결합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첩보'의 '첩'과 '-보'의 결합 방식이 '나무꾼'의 '나무'와 '-꾼'이 결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산악자전거'와 '산악잡지'에서 '산악'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가 후행 성분인 '자전거'와 '잡지'의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미에 대한 연구는 특정 접사에 결합되는 어근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한 어휘의 의미가 결합되는 요소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특정 접미사와 결합되는 어근의 유형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특정 접미사가 특정 유형의 어근과 결합되어 발현되는 의미 특성을 밝혀야 한다.

## 4.2. 파생어의 의미와 구성 요소의 의미

특정 접미사의 의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접미사를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근의 의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언어 형식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는 합성성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합성성의 원리는 전체는 구성 요소의 합이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환원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대한 실체 파악과 구성 요소간의 조합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어 연구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파생어의 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근의 의미를 제외한 부분으로 기술해온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은 접사의 의미와 어근의 의미의 합이 곧 파생어의 의미라고 보는, 즉 합성성의 원리가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파생어의 의미는 합성성의 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비하'의 의미와 같은 가치 평가적 의미는 어근과 접미사의 의미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6) ㄱ.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삽질, 부채질, ...  
 ㄴ. 강도질, 도둑질, 역적질, 노략질, 동냥질, ...  
 ㄷ. 선생질, 목수질, 서방질, 계집질, 화장질, ...
- (7) ㄱ. 사냥꾼, 짐꾼, 장꾼, 가마꾼, 구경꾼, 일꾼, 나무꾼, 살림꾼, ...  
 ㄴ.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주정꾼, 밀수꾼, ...  
 ㄷ. 경품꾼, 주총꾼, ...

(6)은 ‘-질’ 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그런데 (6ㄱ)의 파생어는 ‘비하’의 의미가 없으며, (6ㄴ)과 (6ㄷ)의 경우는 ‘비하’의 의미가 있다. 또한 ‘-꾼’이 결합된 (7ㄱ)의 파생어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지만, (7ㄴ)과 (7ㄷ)은 ‘비하’의 의미가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였다.

첫째, 파생어의 ‘비하’의 의미는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접미사는 ‘비하’의 의미가 없다.

둘째, 파생어의 ‘비하’ 의미는 접미사의 의미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질’과 ‘-꾼’은 ‘비하’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접미사와 결합된 파생어는 모두 ‘비하’의 의미가 생긴다.

셋째, 파생어의 ‘비하’의 의미는 개별 파생어의 ‘상황 의미’이다.

(6)과 (7)의 파생어에 대한 ‘비하’의 의미의 도출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6) ‘-질’ 파생어의 ‘비하’의 의미가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관점

|      | 어근의 의미 가치 | 접미사의 의미 가치 | 도출 예정 의미 | 도출된 의미 |
|------|-----------|------------|----------|--------|
| (6ㄱ)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 (6ㄴ) | ‘비하’ 有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 (6ㄷ)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有 |

(7) ' -꾼' 파생어의 '비하'의미가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관점

|      | 어근의 의미 가치 | 접미사의 의미 가치 | 도출 예정 의미 | 도출된 의미 |
|------|-----------|------------|----------|--------|
| (7ㄱ)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 (7ㄴ) | '비하' 有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 (7ㄷ)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無   | '비하' 有 |

(6)" '-질' 파생어의 '비하'의미가 접미사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관점

|      | 어근의 의미 가치 | 접미사의 의미 가치 | 도출 예정 의미 | 도출된 의미 |
|------|-----------|------------|----------|--------|
| (6ㄱ)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無 |
| (6ㄴ)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 (6ㄷ)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7)" '-꾼' 파생어의 '비하'의미가 접미사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관점

|      | 어근의 의미 가치 | 접미사의 의미 가치 | 도출 예정 의미 | 도출된 의미 |
|------|-----------|------------|----------|--------|
| (7ㄱ)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無 |
| (7ㄴ)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 (7ㄷ) | '비하' 無    | '비하' 有     | '비하' 有   | '비하' 有 |

위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전에 형태론적 절차는 통사론적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자. 형태론적 절차는 융합과정이다. 즉 두 요소 a와 b가 결합할 때, a나 b로 되는 것이 아니라 ab의 형태를 취하며, 융합된 형태 ab는 자질 연산에서 소거된 자질을 제외하고는 융합되기 이전의 자질을 견지함으로써 자질 복합체를 구성하는 절차이다(고창수 1994). 즉, 형태론적 절차에서 모든 자질은 소거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융합되어야 한다.

융합절차에 의하면 파생어의 의미는 모두 어근이나 접미사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비하'의 의미가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설명 방법은 (6ㄱ)과 (6ㄴ)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다. '비하'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6ㄱ)의 경우는 어근이 모두 [도구]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휘들로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6ㄴ)의 어근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ㄷ)은 ‘비하’의 의미가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생, 목수, 서방, 계집, 화장’ 등은 어근 자체에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휘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에 ‘-질’이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어 ‘선생질, 목수질, 서방질, 계집질, 화장질’ 등은 ‘비하’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7)의 ‘-꾼’도 마찬가지이다. (7ㄱ)의 어근은 ‘비하’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반면, (7ㄴ)의 어근에는 ‘비하’가 느껴진다. ‘-꾼’ 파생어 역시 (7ㄱ)과 (7ㄴ)만을 보면 ‘비하’의 의미가 어근의 의미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7ㄷ)의 ‘경품꾼’이나 ‘주총꾼’에서도 ‘비하’의 의미가 느껴진다. ‘경품’이나 ‘주총’ 등은 어휘 자체에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하’의 의미가 어근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설명 방법은 (6ㄱ)과 (6ㄴ), (7ㄱ)과 (7ㄴ)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6ㄷ), (7ㄷ)은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접미사에서 도출될 수 없는 ‘비하’의 의미가 파생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하’의 의미가 접미사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가? 두 번째 설명 방법은 (6ㄴ)과 (6ㄷ), (7ㄴ)과 (7ㄷ)의 경우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6ㄱ)과 (7ㄱ)의 파생어는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접미사에 있는 ‘비하’의 의미가 [도구]명사와 결합한 (6ㄱ)의 파생어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두 번째 설명 방법은 (6ㄱ)의 경우에는 왜 ‘비하’의 의미가 융합되지 않은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 방식은 전체의 의미(파생어의 의미)가 구성 요소(어근의 의미)와 구성 요소(접사의 의미)로부터 도출된다는 합성성의 원리에 근거를 둔 설명 방법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파생어 형성에서 합성성의 원리는 그리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자들도 언급한 바 있다.

(8) ㄱ. 구두닦이 : 구두 닦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ㄴ. 때밀이 :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때를 밀어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8)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나 ‘때를 미는 사람’의 의미는 구성 성분으로부터 도출되지만, ‘직업으로 하는’과 같은 의미는 어근의 의미로부터도 접미사의 의미로부터도 도출되지 않는다. 송철의(2002)에서는 이렇게 구성 요소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의미는 언어 외적인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 의미’라고 하였다. 즉 특정한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 언어 외적 상황이 개입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황화상(2001)에서도 ‘상황 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 때를 미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때밀이’라는 형태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구성 요소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의미는 개별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서 결합된 ‘상황 의미’라고 보는 세 번째 관점이다.

그런데 구성 요소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의미를 개별 파생어의 ‘상황 의미’라고 보는 세 번째 방법은 특정 접사를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파생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특정 접사를 구성 요소로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해당 접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만들어진 ‘화장질’이나 ‘경품꾼’, ‘주총꾼’의 경우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장, 경품, 주총’ 자체만으로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품꾼’이나 ‘주총꾼’이 ‘비하’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단어가 ‘-꾼’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즉 이 말은 단순히 ‘경품, 주총’에서 부정적 의미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꾼’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도출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하’의 의미나 ‘직업적으로 하는’과 같은 의미가 개별 파생어의 ‘상황적 의미’라고 보는 관점은 이들 의미가 개별 파생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결주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 생긴 의미도 연결(저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휘부의 모든 어휘들이 의미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의 어근과 결합하는 ‘-질’이나 ‘-꾼’의 경우에

1) ‘주총꾼’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주주총회 때 특정인을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협력하는 주주’를 가리키며, ‘경품꾼’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취자에게 주는 경품을 타내기 위해 이름을 바꿔가며 이 프로 저 프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지칭한 신조어이다.

‘비하’의 의미가 발현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어휘는 다시 연결되며 다음 단어 형성에 참조될 수 있는 것이다.

‘비하’와 같은 의미가 특정한 파생어 형성에서 부여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비하’와 같은 가치 평가적 의미가 ‘-질’이나 ‘-꾼’의 고유 의미라고 볼 수 있는 [행위]나 [사람]과 동일한 층위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양진(1999)은 특정 형태와 의미 정보가 결합되는 단계를 세 층위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9) 형태와 의미의 결합 층위(김양진 1999: 44-52)

- ㄱ. M1 층위 : 최초의 고유 의미 결합 단계
- ㄴ. M2 층위 : 형태 핵의 특성으로 통사 범주가 부여되는 층위
- ㄷ. M3 층위 : 비유적 의미, 전의적 의미가 부여되는 단계

김양진(1999)은 M3층위에서 결합되는 의미는 M1층위에서 결합되는 1차적 의미와 달리 화자 혹은 화자 집단에 의해 임의로 할당된다는 점에서 2차적 의미라고 하였다. 화자나 화자 집단에 의해 임의로 할당된다는 것은 곧 화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사 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나 [사람]과 같은 존재론적 의미와 ‘비하’와 같은 가치 평가적 의미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결합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설득적이다.

위와 같이 파생어 형성에서는 구성 요소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연결주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 생긴 의미는 저장될 뿐 아니라 다음 단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단어는 저장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파생어의 형성에서 생긴 ‘비하’와 같은 가치 평가적 의미나 ‘직업적으로 하는’과 같은 의미 역시 저장된다는 것이다.

### 4.3. 의미 영역별 접미사의 의미

#### 4.3.1. [사람]영역의 접미사

여기서는 [사람]의 의미 영역에 속하는 개별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되어 어떠한 유형의 의미 패턴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본다. 4.1.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어근도 후행 접미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접미사가 어떤 유형의 어근과 결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근이 특정 접미사와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의미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정 접미사의 고유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 4.3.1.1. ‘-꾸러기’

‘-꾸러기’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김민수(1997)편에는 명사‘구럭(袋)’<sup>2)</sup>과 접미사 ‘-이’가 합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꾸러기’는 ‘빗꾸러이(價樁, 빗)[역보 38]’라는 기록으로 보아 ‘빗이 많이 쌓인 것’을 마치 구체적 사물이 많이 담겨 있는 구럭인 양 비유적으로 지칭하던 것이 접미사로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꾸러기’의 어원을 ‘구럭’에서 찾을 수 있다하더라도 현대국어에서 접미사 ‘-꾸러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사람]접미사임이 분명하다.

- (10) ㄱ. 소심꾸러기, 내숭꾸러기, 능청꾸러기, 방정꾸러기, 변덕꾸러기, 심술꾸러기, 악착꾸러기, 얄심꾸러기, 억살꾸러기, 억척꾸러기, 엄살꾸러기, 염증꾸러기, 욕심꾸러기, 용심꾸러기, 웅석꾸러기, 의심꾸러기,

2) ‘구럭’은 물건을 넣기 위해 새끼로 그물처럼 떠서 만든 일종의 바구니로, 중세에는 자립 명사로 쓰였다.

예) 구러겟 果實을(筐果)<두초 22 :11>.

익살꾸러기, 장난꾸러기, 천덕꾸러기, 청승꾸러기, 흑심꾸러기, 애교꾸러기, 걱정꾸러기, 암상꾸러기, 말썽꾸러기,...

ㄴ. 겁꾸러기, 말꾸러기, 빗꾸러기, 잠꾸러기, 흥꾸러기, 나꾸러기, 떼꾸러기, 매꾸러기, 이꾸러기, 지칭구꾸러기, 늦잠꾸러기, 잔말꾸러기, 잔병꾸러기, 눈치꾸러기,...

'-꾸러기'는 'X가 심한 사람' 정도의 의미가 있다. (10ㄱ)은 '-꾸러기'의 어근은 '-스럽'과 결합이 자유로운 [추상]영역의 명사이다. 이들 명사와 결합된 'X-꾸러기'는 사람의 행위나 성격적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꾸러기'의 어근은 부정적 가치를 갖는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꾸러기'는 현대국어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하'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꾸러기'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하'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칭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sup>3)</sup>

(11) ㄱ. 꾸러기 스님들(인간극장 제목, 2003년 5월 7일 방송)

ㄴ. 꾸러기 초등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가상학교 추진 방안

(한국정보교육학회 98 하계 학술발표 논문집)

(12) ㄱ. 야후꾸러기 : 야후의 어린이 전용 검색엔진

ㄴ. 꾸러기넷 : 초등학생, 중학생용 종합교육 사이트

ㄷ. 꾸러기 놀이터 : 야후 꾸러기 게임 모음

ㄹ. 꾸러기 타자 연습 : 어린이용 타자 연습 프로그램

ㅁ. 꾸러기 마을, 꾸러기 서점 : 유아 아동도서 할인매장

ㅂ. 꾸러기 음악회 :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ㅅ. 꾸러기 장난감 대여점, 꾸러기 클럽 유아 스포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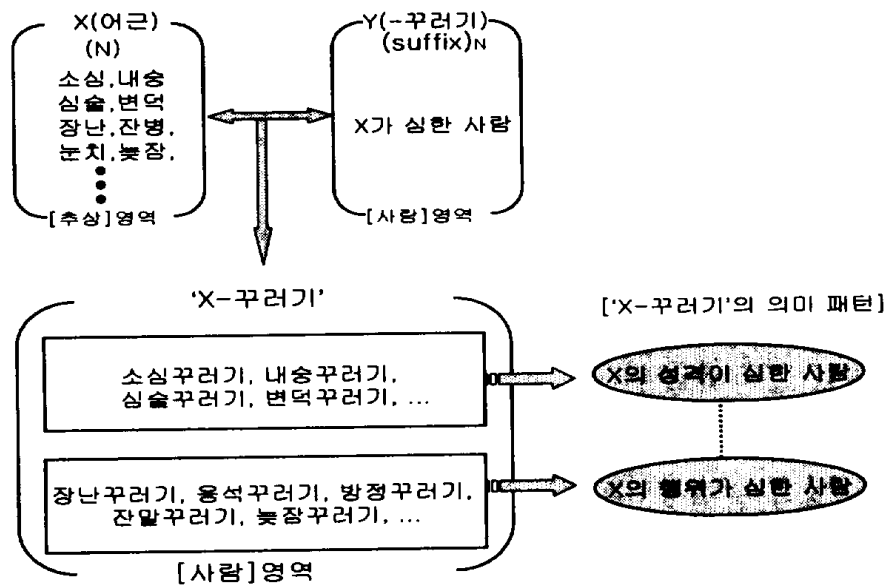
ㅇ. 꾸러기 치과 : 서초구에 위치한 소아, 청소년 전문 치과

3) 사람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격이나 행위적 결합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 이는 이들의 결합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미성숙에서 오는 결합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1)과 (12)는 '-꾸러기'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인데,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ㄱ)의 '꾸러기 스님들'은 나이 어린 스님인 '동자스님'을 지칭한 것이고, (11ㄴ)의 '-꾸러기'는 초등학교들을 지칭한 것이다. (12)는 인터넷 검색 엔진 '네이버'에서 검색한 예인데, 모두 '어린이'와 관련된 업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빛꾸러기(빛을 많이 진 사람)'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꾸러기'가 원래부터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꾸러기'가 주로 '어린 사람'을 지칭하게 된 것은 '-장이'가 '-쟁이'로 변하면서,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와 관련된 파생어를 만들 수 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리하자면 '-꾸러기'는 'X가 심한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갖는데, 주로 [추상] 영역의 명사인 'X'와 결합되어 'X-꾸러기'가 되면 'X'는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sup>4)</sup>

(13) 파생어 'X-꾸러기'의 의미 패턴



4) 그러므로 '-꾸러기'는 최소한 물리적 시공간을 점유하는 [구상적 실체]의 의미를 갖는 어근과는 잘 결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꾸러기'파생어 중 [구상적 실체]영역에 해당하는 어근은 '매꾸러기'와 '이꾸러기' 정도가 있다. '매꾸러기'는 '장난이 심해서 매를 맞는 아이'를 지칭하며, '이꾸러기'는 '이가 많은 아이'를 지칭한다.

(13)의 도표는 접미사 ‘-꾸러기’는 품사가 ‘명사’인 X유형의 어근과 결합되어 ‘X-꾸러기’의 유형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X-꾸러기’의 결합 유형에 따라 화살표 오른 쪽과 같은 의미 패턴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기존의 단어 연결망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또한 패턴이 강할수록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sup>5)</sup>

#### 4.3.1.2. ‘-둥이(둥이)’

‘-둥이(둥이)’도 ‘-꾸러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나이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파생어를 만든다. 그런데 ‘-둥이(둥이)’는 몇몇 어근을 제외하고는 주로 긍정적 가치를 갖는 [추상]영역의 명사와 결합한다. 또한 ‘텐둥이, 귀둥이, 순둥이’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의미의 어근과도 결합된다.

- (14) ㄱ. 보배둥이, 귀둥이, 쌍둥이, 순둥이, 이쁘둥이, 귀염둥이, 외둥이, 복둥이, 사랑둥이, 금자둥이, 옥자둥이, 업둥이,...
- ㄴ. 해방둥이, 정월둥이, 신둥이, 막둥이, 늦둥이,...
- ㄷ. 텐둥이, 흰둥이, 감둥이, 초립둥이,...
- ㄹ. 육삭둥이, 칠삭둥이, 팔삭둥이,...
- ㅁ. 옥둥이, 이악둥이, 응석둥이, 졸래둥이, 재간둥이, 재롱둥이,...

(15) 햇살둥이, 월드컵둥이, 통일둥이, 성실둥이<sup>6)</sup>

(14)의 어근은 ‘-둥이’와 결합한 어근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꾸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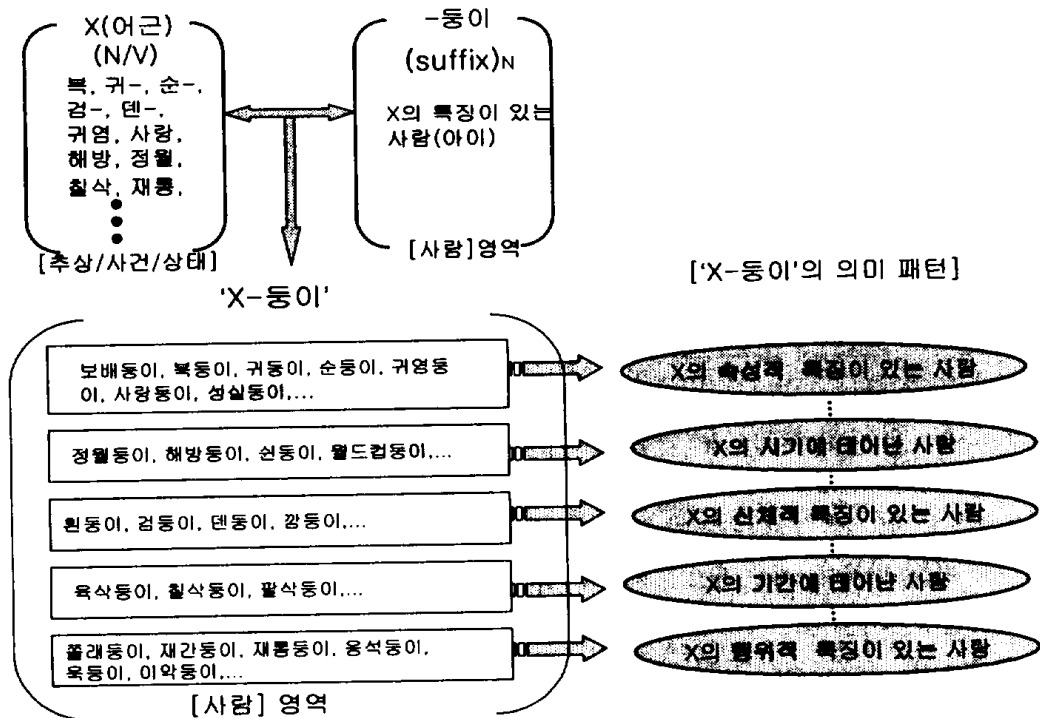
5) 패턴이 강해진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표상하는 파생어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성실둥이’는 축구 선수 ‘박지성(일간 스포츠 2002. 5. 22)’을 지칭한 표현이다. 박지성은 축구대표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홍명보 선수’나 ‘황선홍 선수’를 ‘~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와 '-등이'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꾸러기'는 주로 부정적 가치를 갖는 어근과 결합하고 '-등이'는 주로 긍정적 가치를 갖는 어근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경향성이 새로운 단어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잘 보여준다. (15)는 최근에 만들어진 신어인데, 어근이 모두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어휘들이다.

'-등이'의 의미 패턴은 다양하다. '보배등이, 복등이, 순등이, 사랑등이'는 'X라는 속성적 특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월등이, 해방등이'는 'X라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덴등이, 흰등이, 감등이'의 경우는 'X라는 신체적 특징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를 지칭하지도 않으며, '비하'의 의미가 느껴진다. 이 유형의 파생어에 생긴 '비하'의 의미는 어근에서 도출된 것으로 개별 파생어의 의미라고 보여진다. '칠삭등이, 팔삭등이'는 'X라는 기간만에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데 '칠삭등이, 팔삭등이'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의미한다. '-등이'는 'X의 특징이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어근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등이'파생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6) 파생어 'X-등이'의 의미 패턴



(16)은 'X-등이'의 의미 패턴을 도식화 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성실등이'는 'X의 속성적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월드컵등이'는 'X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 의해 만들어진 '성실등이'나 '월드컵등이'는 해당 의미 패턴을 이루고 있는 다른 파생어에 연결됨으로써 저장된다.

#### 4.3.1.3. '-가마리'

'-가마리'는 '늘 X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어근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영역의 명사들이며, 모두 명사 '거리'와 결합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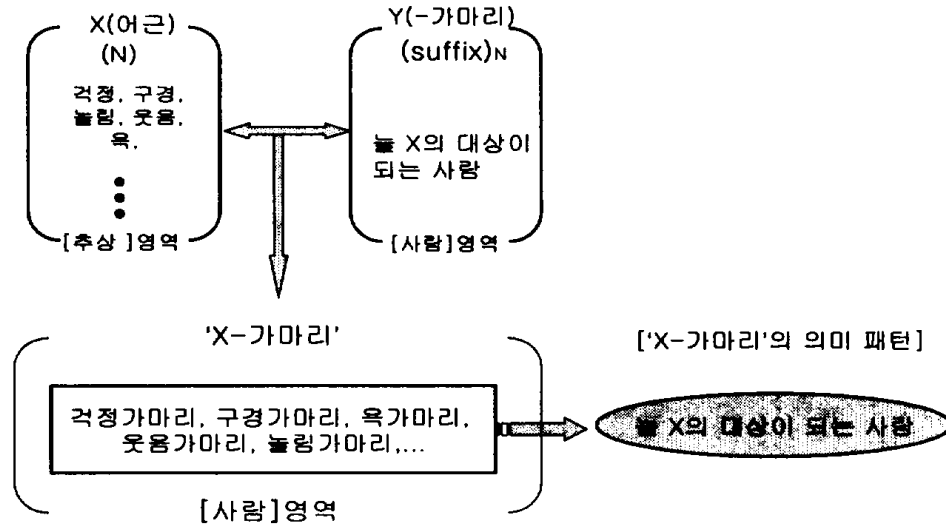
- (17) ㄱ. 걱정가마리 : 늘 꾸중을 들어 마땅한 사람.  
 ㄴ. 구경가마리 : 남의 구경거리가 됨. 또는 그런 사람  
 ㄷ. 놀림가마리 : 놀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  
 ㄹ. 욕가마리 :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  
 ㅁ. 웃음가마리 : 남의 웃음거리가 됨. 또는 그런 사람

즉 '걱정가마리'는 '걱정거리를 만들어 늘 꾸중을 듣는 사람'을 의미하고, '구경가마리'는 '구경거리를 만들어 늘 구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마리'의 의미 패턴은 다음과 같다.

---

7) 이관식(1997)은 '-가마리'를 '웃음감, 욕감, 구경감, 뺨감' 등의 '감'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아리>감아리>가마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리'는 '병아리, 경아리, 귀먹어리'의 '-아리/어리(사람)'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통시적으로 볼 때 '-가마리'가 '감+아리'에 기원을 두고 있을지라도 '감(재료, 대상)'과 '-아리(사람)'의 의미만으로는 '늘 X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도출할 수 없으며, '감'은 '일감, 사윗감, 이야깃감' 등과 같이 중립적인 요소와도 결합하지만 '-가마리'는 부정적인 요소와만 결합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감+아리'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8) 파생어 'X-가마리'의 의미 패턴



4.3.1.4. '-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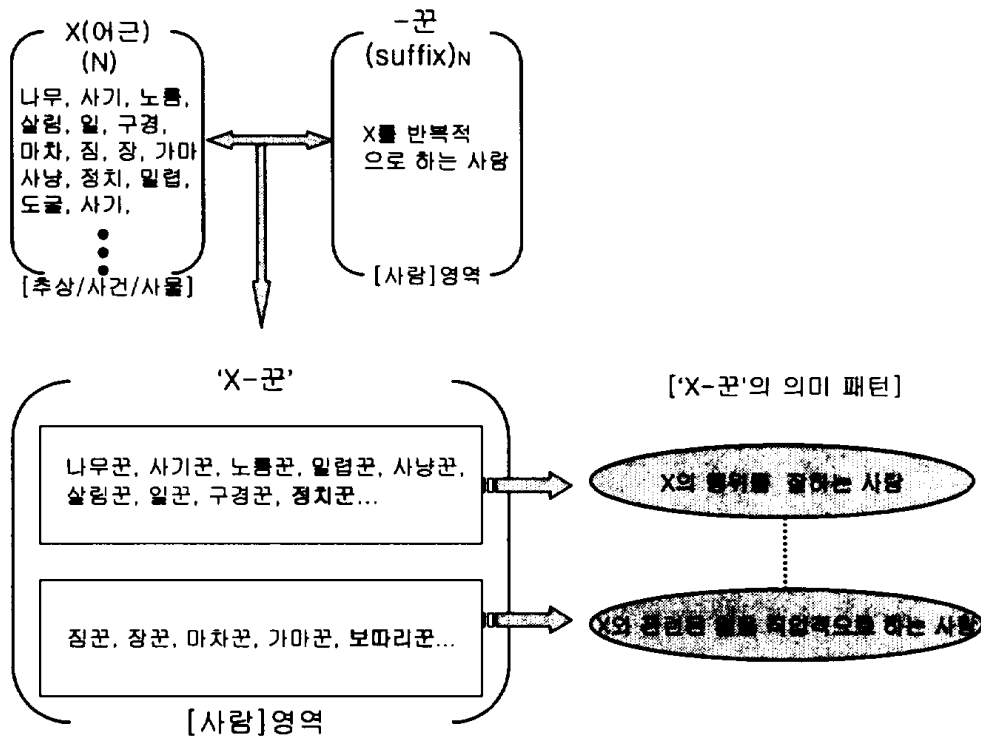
[사람]영역의 접미사 중 '-꾼'파생어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9) ㄱ.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주정꾼, 밀수꾼, 밀렵꾼, 술주정꾼, ...
- ㄴ. 살림꾼, 구경꾼, 일꾼, 나무꾼, 장사꾼, 사냥꾼, 정치꾼, ...
- (20) 짐꾼, 장꾼, 마차꾼, 술꾼, 가마꾼, 마차꾼, 인력거꾼, ...

(19)의 어근은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행위성 명사이다. '-하다'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행위성 명사와 결합이 자유롭다. (19ㄱ)은 어근이 부정적 의미 가치를 가진 어휘들이며, (19ㄴ)은 어근에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래서 '-꾼' 자체에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즉 '-꾼'파생어의 '비하'의 의미는 부정적 가치를 갖는 행위성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꾼'파생어의 '비하'의 의미는 '-꾼'이 가지고 있는 '반복성'과 관련이 있다. '-꾼'은 '어근과 관련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노름꾼'은 '노름을 한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은 '사기를 한번 친 사람'이 아니다. 즉 선행 어근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꾼'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될 경우에는 '습관적으로'라는 의미가 발현되며, '긍정적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된 경우에는 '전문적으로'라는 의미가 발현된다. 즉, '-꾼' 파생어의 '비하'의 의미는 어근과 상호 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성'을 갖는 명사이지만 어근이 부정적 가치를 갖는 '노름꾼, 사기꾼, 밀수꾼, 밀렵꾼' 등은 '비하'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살림꾼, 구경꾼, 일꾼' 등과 같이 어근이 부정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파생어에 '비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꾼'의 의미 패턴은 다음과 같다.

(21) 파생어 'X-꾼'의 의미 패턴



(21)의 도식은 어근의 의미 유형에 따라 '행위'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관련된 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적으로'와 같은 의미는 '관련된 일'과 '-꾼'이 가지고 있는 '반복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꾼'의 '정

치'는 '행위'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로 '사냥꾼, 노름꾼, 사기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보따리꾼'은 '짐꾼, 가마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4.3.1.5. '-보'

'-보' 파생어는 품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면 (22)와 같이 분류된다.

- (22) ㄱ. 겁, 피, 털, 잠, 말,...
- ㄴ. 먹-, 울-, 느림-,...
- ㄷ. 땅딸-, 뚱뚱-, 쩌-, 곰-,...

사전의 의미 기술 방식 역시 이러한 품사적 분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2ㄱ)은 'X가 많은 사람', (22ㄴ)은 'X의 행위가 많은 사람', (22ㄷ)은 'X를 신체적 특징으로 지닌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3)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어근과 접미사 '-보'의 의미 관계가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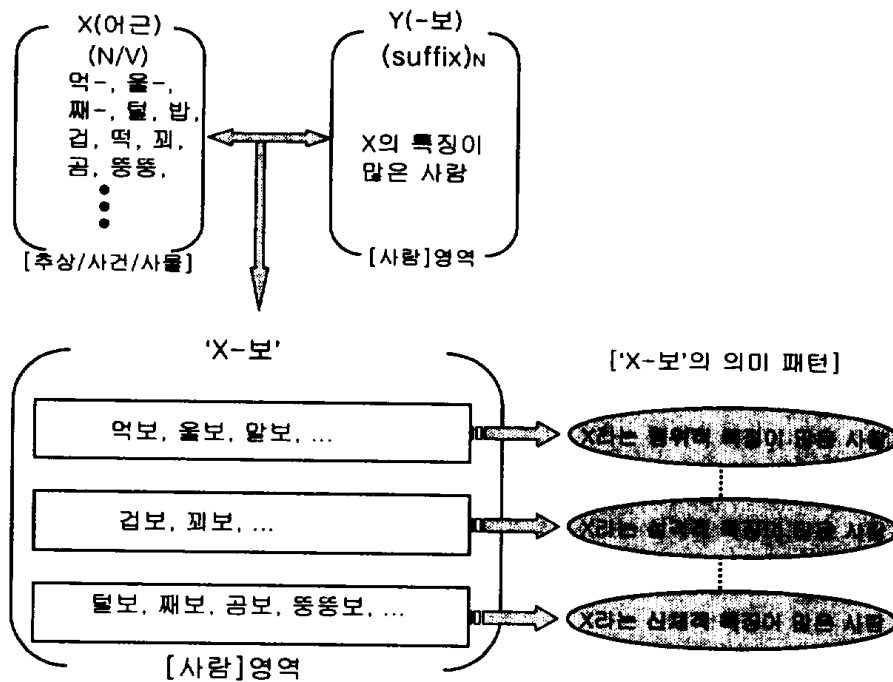
- (23) ㄱ. 털보, 쩌보, 뚱뚱보, 곰보,...
- ㄴ. 먹보, 울보, 말보, 밥보, 떡보,...
- ㄷ. 겁보, 피보,...

품사별로 분류하면 '털보, 겁보, 피보'가 함께 분류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털보'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므로 '쩌보, 곰보, 뚱뚱보'와 유사하며, '겁보'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피보'와 유사하다.

'-보'는 '-꾼' 과는 달리 행위의 반복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특징(행위이든 외모이든)이 '많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먹보'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울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주 우는 사람을 지칭한다. 즉 '-보'는 어근과 관련된 특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경우를 부류화 하는 것이다. 한편 '-보'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근과만 결합한다. '먹보'나 '울보', '느림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웃보'나

'빠름보'가 가능할 듯하나 '긍정적 가치'를 갖는 어근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보'의 '비하'의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유불급(過猶不及)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보'의 의미 패턴은 다음과 같다.

(24) 파생어 'X-보'의 의미 패턴



'-보'는 선행 어근으로 '밥, 떡'과 같은 [사물]영역, '먹-, 울-'과 같은 [사건]영역, '겁, 피'와 같은 [추상]영역 등이 가능하다. 'X-보'의 유형에 따라 'X라는 행위적 특징이 많은 사람', 'X라는 성격적 특징이 많은 사람', 'X라는 신체적 특징이 많은 사람'과 같은 의미 패턴이 만들어진다.

4.3.1.6. '-쟁이'

'-쟁이(-장이)'는 한자어 '장(匠)'과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접미사로 굳어진 것이다. 《표준》에는 '-장이'는 어원을 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로 기술하고, ‘-쟁이’는 어원 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규범차원의 문제이고, 원래는 하나의 형태에서 기원한 것이다.

- (25) ㄱ. 가살쟁이, 개구쟁이, 게으름쟁이, 거짓말쟁이, 고자쟁이, 고집쟁이, 피병쟁이, 몽니쟁이, 무식쟁이, 바람쟁이, 방귀쟁이, 업살쟁이,...
- ㄴ. 겁쟁이, 내숭쟁이, 말썽쟁이, 변덕쟁이, 소심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암상쟁이, 익살쟁이, 잔말쟁이,...
- ㄷ. 관상쟁이, 굴뚝쟁이, 권투쟁이, 별점쟁이, 이발쟁이, 옥사쟁이, 탄광쟁이, 침쟁이, 체쟁이, 점쟁이, 환쟁이, 용정쟁이,...

- (26) ㄱ. 가구장이, 각수장이, 단청장이, 도련장이, 도배장이, 옹기장이, 칠장이, 망건장이, 양복장이, 토기장이, 풍물장이, 염장이, 옥장이, 옹기장이,...
- ㄴ. 감투장이, 갓장이, 짚신장이, 기와장이, 대장장이, 톱장이, 함석장이, 마전장이, 땀장이, 책장이, 도림장이, 납장이, 낫장장이, 구두장이, 무두장이,...

(25)는 ‘-쟁이’와 결합된 어근인데, (25ㄱ)과 (25ㄴ)은 주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어근으로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갖는 어휘이다. (25ㄷ)은 직업적 성격을 갖는 어근이다. (26)은 ‘-장이’와 결합된 어근으로, (26ㄱ)는 한자어 어근이고, (26ㄴ)는 고유어 어근이다. 《표준》은 ‘-쟁이’ 파생어와 ‘-장이’ 파생어를 구분하여 등재하고 있으나, ‘-쟁이’를 《표준》의 기술대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기술하면 ‘침쟁이, 점쟁이, 환쟁이, 용정쟁이, 관상쟁이’와 같이 직업적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하며, 최근에 만들어진 ‘연극쟁이’와 같은 단어도 포함하지 못한다. 현대국어에서 ‘-쟁이(장이)’는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장이’가 역사적으로 ‘비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현대어에서는 ‘비하’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26)의 직업군은 대부분 특정한 기술을 이용하여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군이다. ‘비하’의 의미는 이러한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다.

‘-장이’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했으나, ‘-쟁이’로 변하면서 현대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의 어근’과 더 많이 결합하며, 특정 직업을 ‘비하’할 의도로 사용된다.

(27) “정치쟁이는 다음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크러크의 말이 실감날 뿐이다(조선일보. 2003년 7월 14일).

(27)은 일간지의 한 칼럼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위 문장에서 ‘정치쟁이’는 ‘정치가’와 대조를 이루면서 ‘비하’의 의미가 나타난다. ‘정치꾼’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이’라고 쓴 것은 필자가 의도적으로 ‘정치인’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ㄱ. 빵쟁이<sup>8)</sup>, 돈쟁이<sup>9)</sup>, 사진쟁이<sup>10)</sup>, 비듬쟁이<sup>11)</sup>  
 ㄴ. 가출쟁이<sup>12)</sup>, 고자질쟁이<sup>13)</sup>

8) 빵을 굽기 위해 밤새워 불을 지피는 사람, 바로 빵쟁이들이다(한겨레. 2001. 1. 10).

9) 1935년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해 그에게는 이제 상투적인 ‘돈쟁이’들의 표정만이 부유하고 있었던 것이다(세계일보. 1998. 8. 19).

경제가 성숙해 갈수록 엔터테인먼트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돈쟁이’들은 앞다투어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고...(매일경제. 2002. 8. 3).

10) “사진쟁이가 어떻게 문화인이며 예술인이나”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온갖 수모를 딛고 문충(예총 전신)에 사진을 가입시킨 일이며 12년에 걸친 완강한 고투 끝에 국전에 사진 부분을 설치한 것은 그만의 끈질긴 고집과 자존심, 강직함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한매일. 1995. 10. 28).

차차 “문인들 쫓아다니는 사진쟁이”로 알려지게 된 것도 이때쯤(동아일보. 2002. 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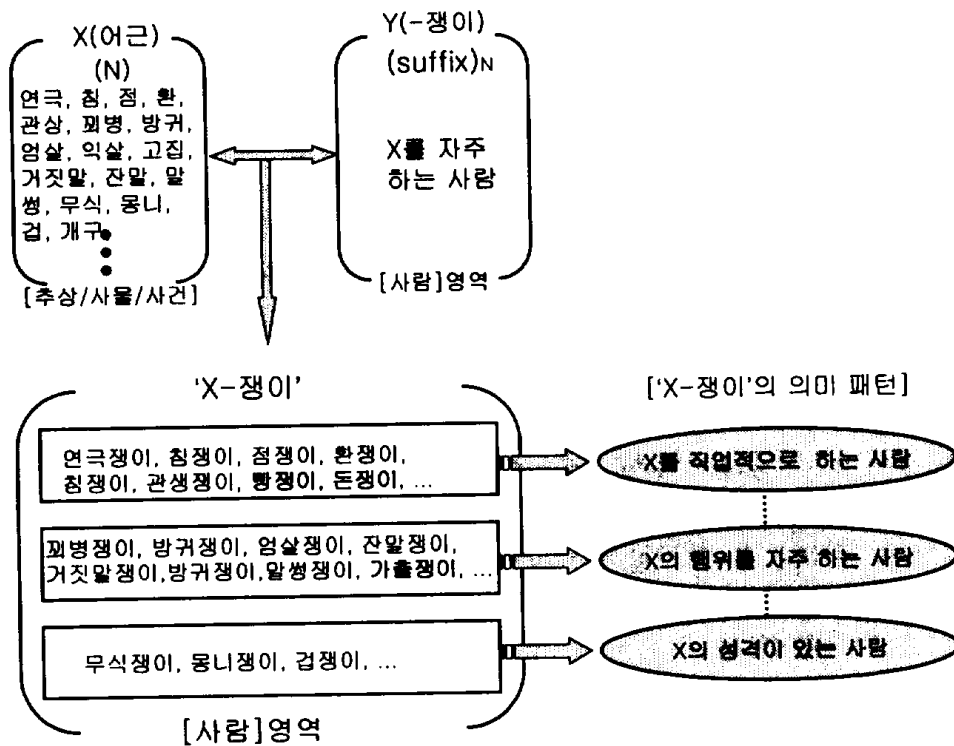
11) 브래드 피트-제니퍼 애니스턴 부부는 비듬쟁이 커플-할리우드의 섹시 커-플 브래드 피트-제이퍼 애니스턴 부부가 요즈음 남모를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일간스포츠. 2003. 9. 9).

12) 우리집 가출쟁이(도서명) : 특하면 가출하는 마사토가 벌이는 소동을 동화로 다룬 이야기(중앙일보. 2001. 8. 1).

13) 선생님이 자습시간에 심하게 떠드는 아이 이름 적어 내라고 해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고자질쟁이라고 따돌리기만 합니다(조선일보. 1995. 12. 21).

(28)은 최근 3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8ㄱ)은 ‘빵, 사진, 돈’과 같이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근인데, ‘-쟁이’가 결합되면 ‘비하’의 의미가 느껴진다. ‘-쟁이’의 의미 해석 구조는 다음과 같다.

(29) 파생어 ‘X-쟁이’의 의미 패턴



‘-쟁이’의 어근은 ‘겁’과 같은 [추상]영역, ‘침, 환’과 같은 [사물]영역, ‘연극’과 같은 [사건]영역이 모두 가능하다. ‘점, 환, 침’ 등이 ‘-쟁이’와 결합되면 ‘X와 관련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신고한 주민을 ‘고자질쟁이’라고 몰아붙이는 다른 주민들의 태도였어  
요(조선일보, 2001. 6. 18).

#### 4.3.1.7. '-지기'

'-지기'는 한자어 '직(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접미사로 굳어진 것이다. '-지기'는 (30)과 같이 특정 장소를 뜻하는 한자어 어근과만 결합하여 '특정 장소를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였으나 요즈음에 만들어지는 '별밤지기, 나우지기'에서는 고유어나 외래어 등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지기' 파생어는 'X를 지키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만 이러한 직업이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장이'와 다르다.<sup>14)</sup> '-지기' 자체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0) 산지기, 묘지기, 각지기, 고지기, 창고지기, 교지기, 퀘지기, 매장지기, 골방지기, 방지기, 능지기, 당지기, 등대지기, 마목지기, 묘지기, 문지기, 별장지기, 봉화지기, 사당지기, 사랑지기, 숲막지기, 식당지기, 옥지기, 종지기, 산장지기, 청지기, 피막지기,...

(31) 매장지기<sup>15)</sup> 창고지기<sup>16)</sup>, 별밤지기<sup>17)</sup>, 나우지기<sup>18)</sup>, 홈페이지지기<sup>19)</sup>, 마당지기,

14) '직업성'과 '전문성'은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일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다 보니 그러한 일이 '직업'으로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일에 '전문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꾼'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지기'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5)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매장지기'는 '埋葬(시체를 묻는 장소)'을 하는 장소인 '매장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매장지지기'가 축약된 것이다. 신조어 '매장지기' 주로 '인터넷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6) '창고지기(고지기)'는 '관아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매장지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를 지칭하는 반면 '창고지기'는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저장된 자료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창고(음악 저장실)의 창고지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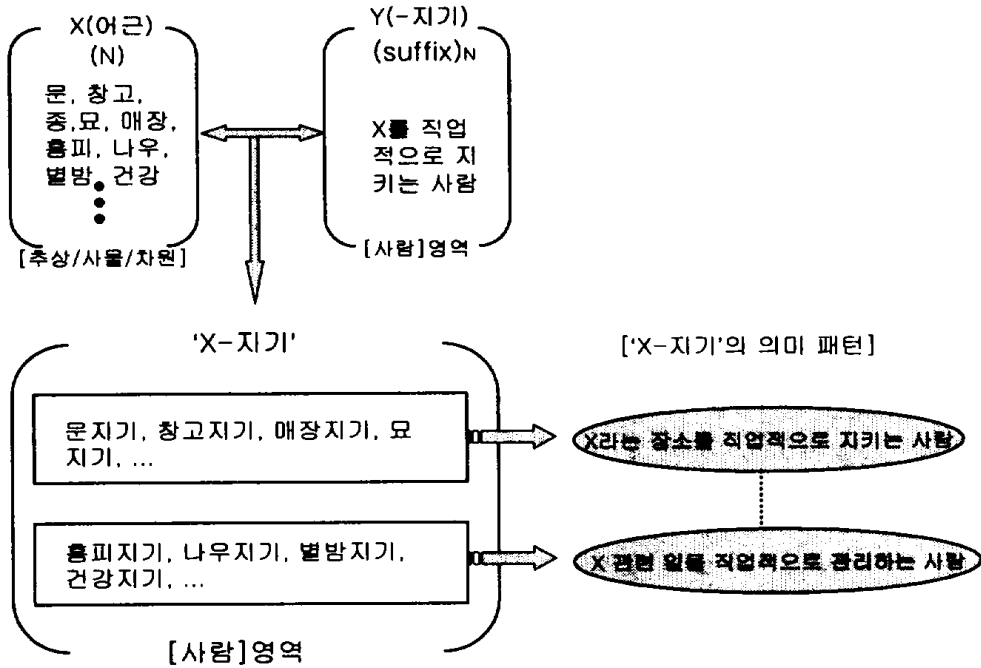
17) MBC 라디오 심야 음악 방송인 '별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18) 컴퓨터 통신 안에서 통신을 감독하는 전문 해커를 말하거나 혹은 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이름을 말한다(한국일보, 1996. 3. 14), (임지룡 1997 재인용).

19)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건강지기<sup>20)</sup>, 하늘지기<sup>21)</sup>

(32) 파생어 'X-지기'의 의미 패턴



(31)은 최근에 생긴 신조어이다. '흙피, 나무, 건강' 등은 '관련된 일'로 해석된다. 즉 '-지기'는 '어근과 관련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관리하는 사람'의 의미 패턴이 새로 생긴 것이라고 보여진다.

4.3.1.8. '-아치'

(33) 벼슬아치, 동냥아치, 구실아치, 동자아치, 바느질아치, 시정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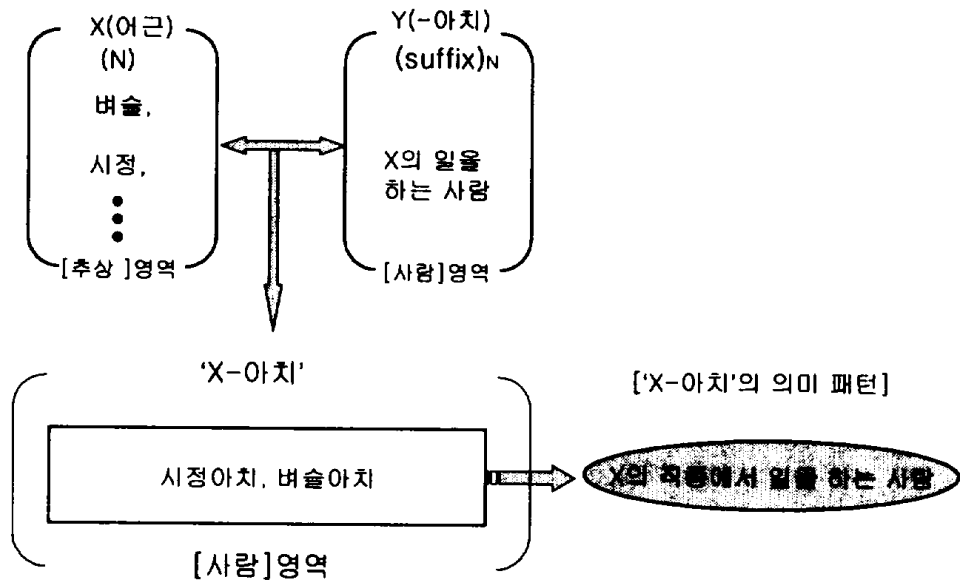
'-아치'는 '-지기', '-장이'와 함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였던 듯하다. '직업'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장이'는 특

20) 진료소 홈페이지 관리자를 의미한다.

21) 중앙대학교 행글라이딩 동아리의 이름이다.

별한 기술로 생업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반면 '-아치'는 '직종'을 지칭한다. '벼슬아치'는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보는 사람'으로 오늘날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을, '시정아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동자아치'는 '밥을 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여자 하인'을 이르는 말로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특정한 직업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들이 '-아치'파생어의 영역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34) 파생어 'X-아치'의 의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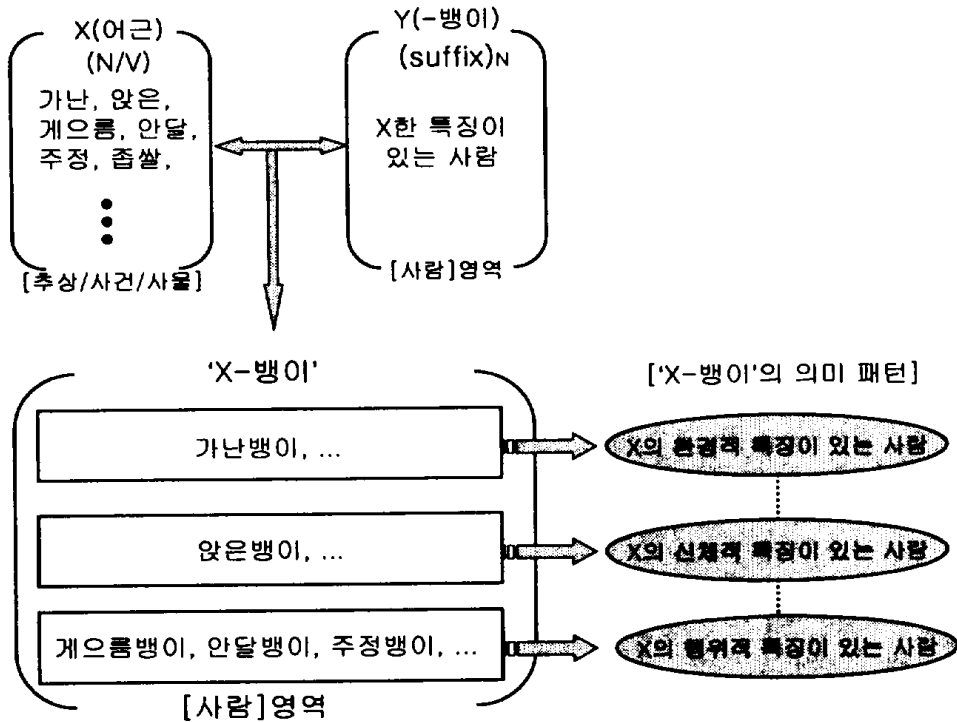


4.3.1.9. '-뱅이'

(35)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안달뱅이, 앓은뱅이, 주정뱅이, 좁쌀뱅이...

'-뱅이'는 의미적으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6) 파생어 'X-뱅이'의 의미 패턴



4.3.1.10. '-집<sub>1</sub>'

'-집<sub>1</sub>'은 'X출신의 여자'라는 파생어를 만드는데 'X'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성씨만이 가능하다.

- (37) ㄱ. 마산집, 부산집, 대구집, 광주집,...
- ㄴ. 김집, 이집, 박집, 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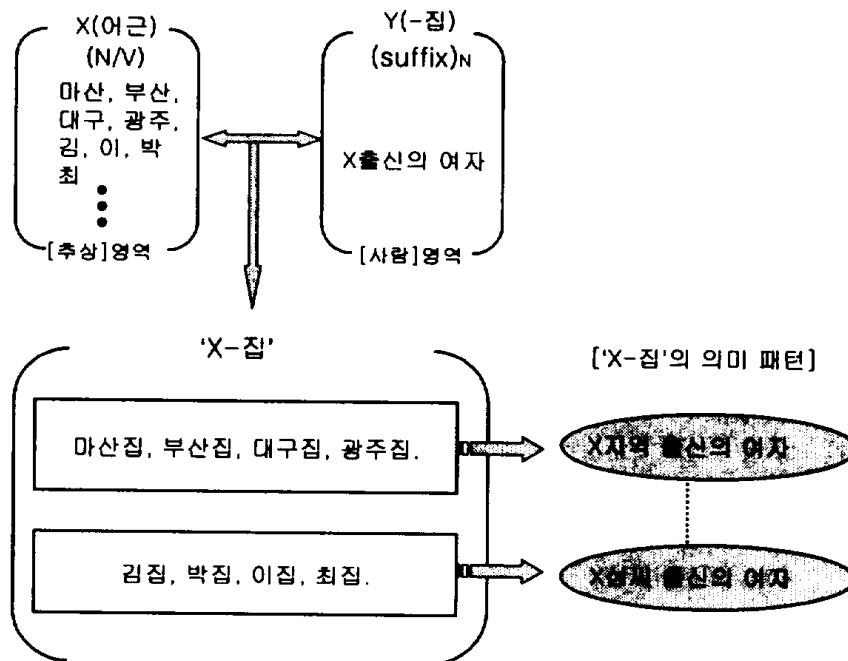
'마산집'은 '마산이 고향인 여자'를 말하며, '김집'은 '김씨 집안에서 출가한 여자'임을 나타낸다. '-집<sub>1</sub>'은 '남자'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여자'에게만 사용된다. 이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혼인하면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여염집 성인

여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풍습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한편 ‘안성댁, 광주댁, 부산댁’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시집은 여자를 칭하는 한자어 ‘-댁(宅)’은 ‘비하’의 의미가 없는 반면 ‘-집’은 ‘마산집, 부산집’과 같이 특정 지역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첩이나 기생첩’을 가리키는 경우로 ‘비하’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집’은 ‘마산집, 부산집’과 같이 ‘특정 지역’의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비하’의 의미가 발현된다. 이는 언어 외적인 사회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상황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집’ 파생어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8) 파생어 ‘X-집’의 의미 패턴



3.4.1.11. ‘-내기’

‘-내기’는 ‘서울, 시골’ 등 특정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역명과 결합하여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지칭하며, 이런 경우 ‘비하’의 의미가 없다. 그런

데 ‘신출내기, 여간내기, 풋내기’ 등에서는 ‘비하’의 의미가 느껴진다.

(39) ㄱ. 서울내기 :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이르는 말.

- 귀향을 앞두고는 가슴이 설레고 방학 내내 서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서울내기들을 참 안됐다고 여기는 것도 여전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서울내기인 김명식을 빼고는 춘천이 고향인 김정도, 목포가 고향인 오승은, 이렇게 모두가 객지살이였다. <최인훈, 회색인>

ㄴ. 시골내기 : 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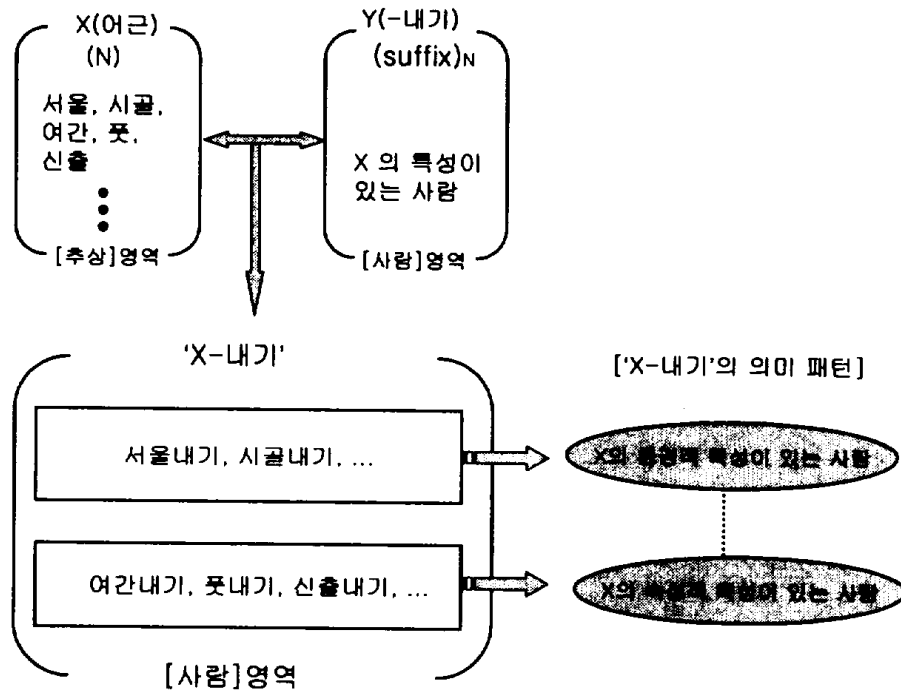
- 시골내기라고 놀림을 받았다.

(40) ㄱ. 신출내기 :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

- ㄴ. 여간내기(예사내기, 보통내기) : 만만하게 여길 만큼 평범한 사람
- ㄷ. 풋내기 :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

예를 들어 (39)와 달리 (40)의 ‘신출내기, 여간내기, 풋내기’ 등은 ‘비하’가 느껴지는데, 이러한 의미가 특정한 어근이나 접미사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개입된 상황적 의미인 듯하다. 그런데 ‘비하’의 의미가 특정한 파생어에 부여되면 그 접미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새로운 파생어는 만들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신출내기’가 ‘어떤 일에 대해 경험이 부족해서 서투른 사람’을 의미한다면 ‘어떤 일에 대해 경험이 많아 노련한 사람’을 일컫는 ‘노련내기’가 만들어질 듯도 싶지만 이런 파생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특정 파생어에 부여된 ‘비하’의 의미가 단순히 1회성의 상황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어의 파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번 획득된 가치 평가적 의미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특정한 가치적 의미가 언어 외적 상황에 기인하더라도 한번 언어 요소에 반영되면 그러한 의미는 더 이상 개별 파생어의 ‘상황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41) 파생어 'X-내기'의 의미 패턴



4.3.1.12. '-뜨기'

특정 지역과 결합된다는 점에서 '-뜨기'는 '-집, -내기'와 유사한데, 특히 '비하'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사팔뜨기'는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비하'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문세영(1954)에는 '시골뜨기, 서울뜨기'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팔뜨기'의 '-뜨기'는 특정 지역 출신을 의미하는 '뜨기'와 다른 형태였으나 '-뜨기'에 대한 어원의 식이 약화되면서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한 접사로 인식한 듯하다.

(42) ㄱ. 시골뜨기: '서울 사람이 시골나기를 조롱하여 일컫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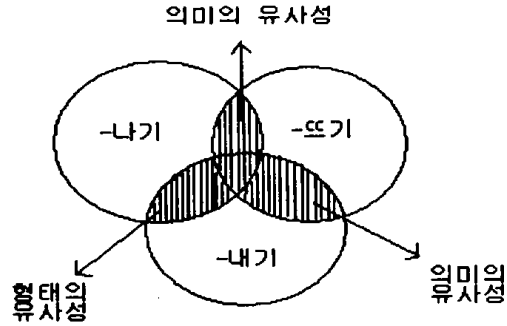
ㄴ. 서울뜨기: '시골나기를 조롱하여 일컫는 말

이러한 점을 볼 때 '시골내기'와 '서울내기' 그리고 '시골뜨기'와 '서울뜨기'

는 원래 '비하'의 의미 차이만 있었던 대립적인 접미사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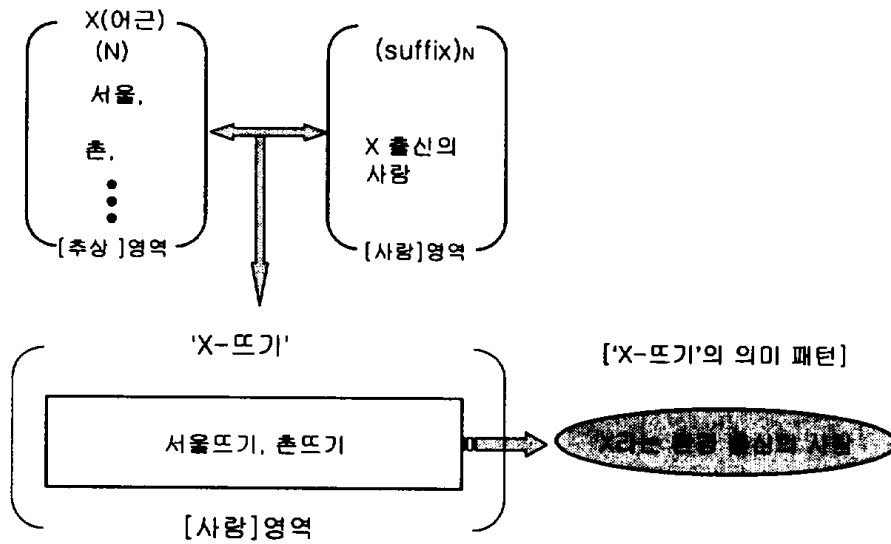
하치근(1986)은 '-나기'와 '-뜨기', '-뜨기'와 '-내기'는 의미의 유사성을 가지며, '-나기'와 '-내기'는 형태의 유사성 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43) (하치근 1986)



즉 '-나기'는 '시골나기, 서울나기'의 '지역적 특성'과 '신출나기, 뚝나기'의 '경멸'의 뜻이 합쳐진 것으로 원래부터 '경멸'의 뜻이 있었던 '서울뜨기, 시골뜨기, 촌뜨기'의 '-뜨기'와 의미가 동일해 졌다고 보았다. 또한 '-나기'는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 '뜨내기, 수월내기, 행내기'의 '-내기'와 형태상 동일해졌고, 또한 '-내기'는 '-뜨기'에 비해 파생력이 높으므로 '-뜨기'의 기능을 흡수하여 '-내기'가 그 파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왜 원래부터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뜨기'보다 '-내기'가 파생력을 갖은 것일까? 이는 '시골뜨기, 서울뜨기'의 '-뜨기'는 '사팔뜨기'의 '-뜨기'와 형태적 동일성에서 약점이 있었다. 더구나 의미적으로 '사팔뜨기'의 '-뜨기'는 동사어간 '뜨다'와 의미적 관련성이 쉽게 포착되는 반면, '시골뜨기, 서울뜨기'의 경우는 의미적으로 '사팔뜨기'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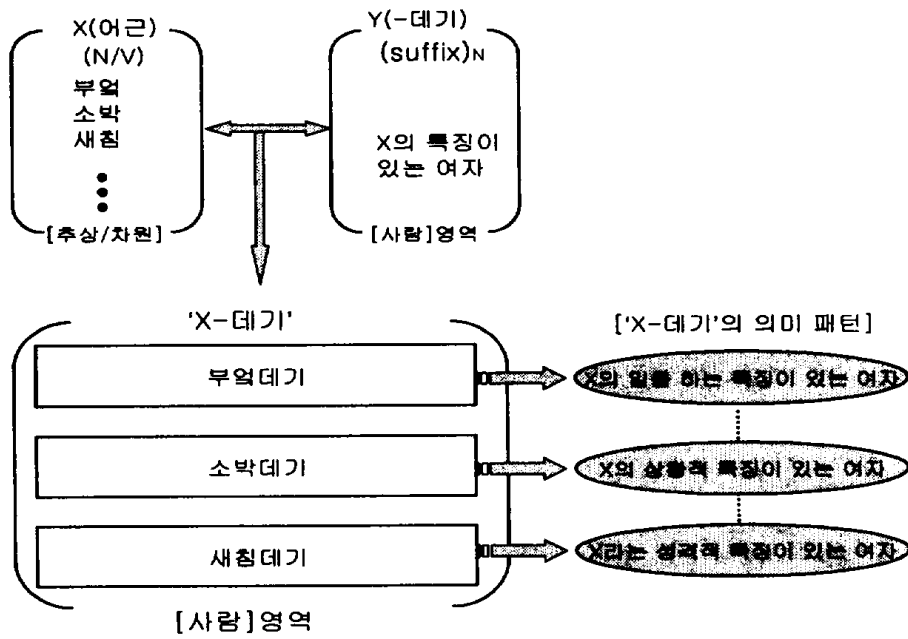
(44) 파생어 'X-뜨기'의 의미 패턴



4.3.1.13. '-데기'

'-데기'는 '부엌데기'에서는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의미하며, '소박데기'는 '남자에게 소박을 당한 여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데기'는 'X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X라는 상황에 처한 여자'를 의미한다. '새침데기'라는 단어도 주로 '여자'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X한 성격적 특징이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

(45) 파생어 'X-데기'의 의미 패턴



#### 4.3.1.14. 요약

지금까지 [사람] 접미사의 의미 패턴과 가치 평가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사람]접미사의 가치 패턴과 의미 패턴

| 가치 패턴                  |         | 의미 패턴     |
|------------------------|---------|-----------|
| 부정적                    | 긍정/중립적  |           |
| -꾸러기, -보, -쟁이 -데기      | ×       | 성격-사람     |
| -꾸러기, -꾼, -보, -쟁이, -뱅이 | -꾼, -등이 | 행위-사람     |
| -내기                    | -등이     | 속성-사람     |
| -등이, -보, -뱅이           | ×       | 신체적 특징-사람 |
| -데기                    | -꾼, -지기 | 관련된 일-사람  |
| -쟁이                    | ×       | 직업-사람     |
| ×                      | -지기     | 장소-사람     |
| ×                      | -등이     | 시기-사람     |

|               |     |       |
|---------------|-----|-------|
| -등이           | ×   | 기간-사람 |
| -집            | ×   | 지역-사람 |
| ×             | -집  | 성씨-사람 |
| -내기, -뜨기, -뱅이 | ×   | 환경-사람 |
| -데기           | ×   | 상황-사람 |
| -가마리          | ×   | 대상-사람 |
| ×             | -아치 | 직종-사람 |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 접미사는 ‘비하’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의 유형이 가장 많다. 예를 들어 ‘심술’과 같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의미하는 명사는 ‘심술꾼, 심술쟁이, 심술보, 심술꾸러기, 심술데기’ 등과 같이 여러 접미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성격이나 행위와 관련된 접미사에 ‘비하’의 의미가 갖는 접미사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 4.3.2. [사물] 영역의 접미사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에 비해 명사 접미사 중 [사물]의 의미만을 갖는 접미사는 (47)과 같다.

##### (47) [사물]접미사

- ㄱ. -보<sub>2</sub> : 울음보, 심보, 웃음보,...
- ㄴ. -치 : 날림치, 당년치, 중간치, 버림치,...
- ㄷ. -채 : 문간채, 바깥채, 사랑채, 안채, 행랑채,...

4.3.2.1. ‘-보<sub>2</sub>’는 ‘보<sub>1</sub>’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보<sub>2</sub>’는 ‘보따리’를 의미하는 ‘보(褌)’일 수도 있고, ‘붓물’을 의미하는 ‘-보’일 수도 있다(송철의, 1992). 어느 쪽이든 [사람]을 의미하는 ‘-보<sub>1</sub>’과는 다르다. 또한 부정적 가치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보<sub>1</sub>’과 달리 ‘-보<sub>2</sub>’는 ‘웃음보, 마음보’와 같이 긍정적 또는 중립적 가치를 갖는 어근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한편 ‘-보<sub>2</sub>’는 어근과 결합에서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점도 ‘-보<sub>1</sub>’과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송철의(1992)에서는 ‘웃음보[우슴뽀], 울음보[우름뽀], 마음보[마음뽀]’ 등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4.3.2.2. ‘-치’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이 치, 저 치’ 또는 ‘젊은 치’들과 같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나, 접미사로 쓰일 때는 ‘물건’을 의미한다. ‘당년치’는 ‘당년, 즉 ‘그 해에 난 것이나 만든 물건’을 의미하며, ‘중간치’는 ‘크기나 품질이 중간 정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날림치’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대강대강 아무렇게나 하는 일’을 의미하는 ‘날림’에 ‘-치’가 결합된 것으로, ‘날림으로 만든 물건’을 의미한다. ‘버림치’는 ‘못 쓰게 되어 버린 물건’을 의미한다. 의미적으로 ‘버린치’도 가능할 듯하나, 명사접사 ‘-음’이 개재된 후 ‘-치’가 결합되어 있다.

4.3.2.3. ‘-채’는 건물의 단위를 세는 단위인 ‘-채’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건물의 단위 이외에도 ‘가마 한 채, 자동차 한 채’ 등과 같이 ‘사물’을 세는 단위의 의미를 갖는다. 접미사로 쓰인 경우에는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어근과 결합하여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4.3.3. [사물]·[사람] 영역의 접미사

[사람]과 [사물]의 의미로 해석되는 접미사는 (48)과 같다. 그런데 [사람]·[사물]접미사는 ‘-개’와 ‘-바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접미사가 통시적으로 동사 어간과 접미사 ‘-이’의 결합형이다. 이들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에 따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접미사 ‘-이’의 의미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8) [사람]과 [사물]을 모두 지칭하는 접미사

- ㄱ. -개 : 오줌싸개, 코흘리개, 날개, 덮개, 지우개, 부침개, 찌개,...
- ㄴ. -바가지 : 주책바가지, 고생바가지,...
- ㄷ. -배기 :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나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 ㄹ. -빼기 : 밥빼기, 악착빼기, 곱빼기,...
- ㅁ. -박이 :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점박이, 붙박이, 장승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 ㅂ. -붙이 : 살붙이, 피붙이, 일가붙이, 쇠붙이, 금붙이, 고기붙이,...
- ㅅ. -통이 : 피통이, 미련통이, 심술통이, 눈통이, 배통이, 젓통이,...

4.3.3.1. ‘-개’는 주로 동사 어간과 결합하여 [사물]이나 [사람]명사를 만든다. ‘코흘리개’와 ‘오줌싸개’는 [사람]을 지칭하며, ‘날개, 덮개, 지우개, 부침개, 찌개’ 등은 [사물]을 의미한다. ‘-개’파생 명사는 ‘날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동사를 어간을 어근으로 취하고 있다(송철의 1992). 또한 구조적으로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N-V-개’ 구조를 보이며, [사물]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V-개’의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V-개’의 구조를 갖는 경우도 모두 타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5.1.2. 참조).

(49) ㄱ. 날개, 덮개, 꿀개, 깔개, 실감개,...

- ㄴ. 지우개, 조리개, 이쑤시개, 쓰개, 싸개, 따개,...
- ㄷ. 코홀리개, 오줌싸개, 똥싸개, 침홀리개,...

송철의(1992)에서는 ‘-개’파생어가 [사람]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즉, [사람]의 의미를 갖는 (49ㄷ)의 파생어가 모두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이(녕마주이, 신문팔이, 구두닦이)’가 선택될 수 없어 ‘-개’가 선택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설득적이다. 왜냐하면 (49ㄴ)의 경우도 ‘-개’의 어근이 모두 모음으로 끝나고 있는데도 [도구]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의 의미를 갖는 ‘-개’파생어가 음운론적 제약 때문에 ‘-이’ 대신 선택된 것이라면 [사람]과 [사물]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는 모두 통시적으로 동사 어간과 ‘-이’의 결합형으로 ‘-이’의 다양한 의미가 실현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첫째는, ‘-이’와 ‘-개’가 의미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사람]의 의미를 갖는 ‘-개’파생어가 단순히 음운론적 조건 때문에 ‘-이’대신 선택된 것이라면 동일한 음운 환경이면서 [사람]의 의미를 갖는 ‘소매치기, 젓떼기, 양치기, 안잠자기, 먼산바라기’의 경우에는 왜 ‘-개’가 선택되지 않고 ‘-기’가 선택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개’접미사가 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도 설명의 부담은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 접미사 ‘-개’가 [사람]의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4.3.3.2. ‘-바가지’는 [사물]의 의미를 가진 명사 ‘바가지’가 비유적으로 쓰이면서 접미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책바가지’는 ‘주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단순히 ‘주책+바가지’의 의미가 아니다. 원래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없다’와 자주 쓰이면서 부정적 의미가 전염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주책’은 ‘주책없다’에서 ‘없다’가 생략된 형으로 봐야 한다. ‘고생바가지’는 ‘고생스러운 일거리가 담겨져 있는 바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접미사 ‘-바가지’는 [사람]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바가지’만으

로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3.3.3. ‘-배기’는 어근이 나이를 의미할 경우에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나이배기’를 제외한 ‘한 살배기, 두 살배기, 열 살배기’ 등에서 결합되는 어근은 모두 구이기 때문에 ‘접사’에 대한 정의를 ‘단어 구성소’로 한정할 경우 ‘-배기’는 접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물건]을 의미하는 ‘알배기,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의 경우에는 해석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알배기’는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을 의미하며 ‘공짜배기’는 ‘공짜로 얻은 물건’, ‘대짜배기’는 ‘아주 큰 물건’을 ‘진짜배기’와 ‘가짜배기’는 ‘진짜’와 ‘가짜’인 물건을 지칭한다. [사물]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배기’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하의 의미는 ‘나이배기’에도 나타난다.

4.3.3.4. ‘-박이’는 동사어간의 의미가 비교적 투명하게 남아 있는 접미사이자. ‘N-박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점박이, 네눈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의 경우는 ‘N이 박힌 물건이나 사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돌박이, 장승박이, 불박이’ 등은 위의 구조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4.3.3.5. ‘-불이’는 ‘살불이, 피불이, 일가불이’와 같이 ‘사람’과 관련된 어근과 결합된 경우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며, ‘쇠불이, 금불이, 고기불이’와 같이 ‘사물’의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되면 [사물]의 의미를 갖는다.

4.3.3.6. ‘-통이’는 ‘눈통이, 배통이, 젖통이’와 같이 신체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어근에 붙어 그러한 부분을 ‘비하’적으로 지칭한다. ‘피통이, 미련통이, 심술통이’의 경우에는 [사람]을 지칭한다. ‘-통이’는 ‘심술통이’뿐 아니라 ‘심술보, 심술쟁이, 심술꾸러기’가 모두 가능하다. 모두 ‘심술이 많은 사람’ 정도로 해석된다. 다만 ‘비하’의 강도만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 4.3.4. [사건] 영역의 접미사

명사 접미사 중에서 [사건]의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접미사는 ‘-질’과 ‘-치레’를 들 수 있다.

4.3.4.1. ‘-질’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전형적인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 강은국(1992)은 ‘-질’의 어원을 동사 ‘짓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 (50) ㄱ.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부채질, 가래질, 쟁기질, 호미질, 대패질,...
- ㄴ. 결눈질, 손가락질, 주먹질, 발(발길)질,...
- ㄷ. 도둑질, 선생질, 순사질, 싸움질, 담금질, 딸꾹질, 수군덕질,...

(50ㄱ)은 ‘-질’파생어의 어근이 전형적인 [도구]의 의미를 갖는 명사로 ‘X로 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 ‘-질’과 결합되는 어근이 [도구]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비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50ㄴ)의 경우는 신체의 부위를 지칭하는 명사와 결합된 파생어이다. 이는 신체의 부위가 어떤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송철의 1992). 그런데 이때, ‘-질’과 결합될 수 있는 신체는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여야 한다. [도구]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5.1.1.참조). ‘귀질, 코질’이 불가능한 이유는 ‘귀’나 ‘코’는 [도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50ㄷ)은 [행위]의 의미를 갖는 어근과 결합된 파생어이다. ‘-질’의 어근으로 [행위]성 명사는 자연스럽게 결합되는데 이때에는 ‘비하’의 의미가 나타난다.

4.3.4.2. ‘-치레’는 ‘치러 내는 일’ 또는 ‘걸로만 꾸미는 일’을 의미한다.

- (51) 걸치레, 말치레, 병치레, 손님치레, 인사치레, 땡기치레, 매치레, 면치레,...

‘-치레’파생어의 어근인 ‘손님, 병, 걸, 땡기, 매’ 등은 ‘-하다’가 직접 결합될 수 없다. 이는 이들 파생어가 동작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레’가 결합

되면 모두 '-하다'와 결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치레'가 '동작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5. [상태] 영역의 접미사

아래 접미사는 선행 어근과 결합하여 [사물]의 어떤 '상태나 모양'을 지칭하기 때문에 [상태]접미사로 분류된다.

##### (52) [상태] 접미사

- ㄱ. -갈 : 맛갈, 빛갈, 성갈, 색갈, 때갈,...
- ㄴ. -매 : 눈매, 몸매, 입매, 옷매,...
- ㄷ. -발 : 꽃발, 말발, 약발, 화장발,...
- ㄹ. -투성이 : 흙투성이, 피투성이,...
- ㅁ. -새 : 걸음새,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짜임새, 차림새,...
- ㅂ. -씨 : 말씨, 마음씨, 바람씨, 발씨,...
- ㅅ. -집<sub>2</sub> : 몸집, 살집, 물집, 흙집, 칼집,...

4.3.5.1. '-갈'은 'X에서 나오는 어떤 상태' 정도로 해석된다. '-갈'은 동작성을 갖는 어근과는 결합되지 않으며, 상태성을 지닌 어근과만 결합하므로 '-갈'이 의미 영역을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러한 상태성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4.3.5.2. '-매'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신체와 관련된 어근과 결합하여 'X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옷'과 같은 구체적 사물과 결합하여도 '옷의 맵시'라는 상태를 지칭하게 된다. '눈매, 몸매, 입매, 손매'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의미적으로 '코매'나 '귀매'도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단어들이 모두 자음으로 끝나고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매'는 '생긴 모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 모양을 가질 수 없는 어휘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4.3.5.3. '-발'은 선행어근과 결합되어 'X의 효과 또는 기세' 정도로 해석된다. '말발'과 '끗발'은 'X의 기세'를 의미하며 '약발'이나 '화장발'은 'X의 효과' 정도로 해석된다. 최근에 만들어진 '캠발'은 '사진발'에서 유추된 것으로 '캠코더'와 '-발'이 결합된 것이다.

4.3.5.4. '-투성이'는 '흙'이나 '옷'과 같은 구체적 사물과 결합하여 'X가 여기 저기 많이 묻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투성이'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의미 확장에서 환유에 의한 확장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휘적 의미가 강하지 않은 접사의 경우 '그러한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접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4.3.5.5. '-새'는 어근과 결합하여 'X의 모양 또는 맵시'를 의미한다. '모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나 '-새'는 일반 명사보다는 '-음'과생명사와의 결합이 좀 더 생산적이다(송철의 1992). 특히 '-음'과생명사와 결합은 현대 국어에서도 아주 생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새'의 선행 명사로 쓰일 때는 '-음'은 주로 동사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형용사 결합형인 '좋은새, 이쁨새' 등은 만들어지지 않은 듯하다.

4.3.5.6. '-씨'도 역시 'X의 태도 또는 모양'을 의미한다. '말, 마음'과 같이 사람의 의지와 관련되면 '태도'로 해석되며, '발, 바람' 등에 결합되면 '모양'을 의미한다. '발'은 신체적 부위이기 때문에 '-매'와 결합이 가능할 듯한데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의미가 유사한 '발씨'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5.7. '-집<sub>2</sub>'는 '몸집, 살집'에서는 'X의 크기나 부피'를 의미하며 '물집, 흙집'은 'X가 생긴 자리', '칼집'은 '칼의 흔적'을 의미한다. '-집<sub>2</sub>'는 선행 요소와 결합에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경음화 현상이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조건이 된다면 '-집<sub>2</sub>'구성은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집<sub>2</sub>'는

‘부피, 흔적’ 등과 같이 의미가 특수화되었으며, 실사인 ‘집’과 관련성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접미사로 봐야 한다.

#### 4.3.6. [단위] 영역의 접미사

명사 접미사 중에서 수량 표현과만 결합하여 단위성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53)과 같다. 특히 이들 접미사 중 일부는 전형적인 분류사<sup>22)</sup>와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접미사는 대부분 명사구에 결합되기 때문에 접미사 설정 기준을 단어 형성 요소로 한정할 경우 접미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형태들이다. 하지만 3.2.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범주로 분류되든 의미적 동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미 측면에서 보면 분류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 (53) [단위] 접미사

- ㄱ. -가웃(절반) : 자가웃, 말가웃, 되가웃,...
- ㄴ. -거리2(주기) : 이틀거리, 하루거리, 달거리, 해거리,...
- ㄷ. -께(범위) : 서울역께, 이달말께, 그믐께,...
- ㄹ. -꿀(분량) : 100원꿀, 한 명꿀, 열 개꿀,...
- ㅁ. -들이(용량) : 한 말들이, 1리터들이,...
- ㅂ. -씩 : 조금씩, 며칠씩, 하나씩, 두 사람씩, 열 그릇씩, 다섯 마리씩,  
한 번씩, 한 걸음씩,...
- ㅅ. -쯤 : 내일쯤, 이쯤, 얼마쯤, 중간쯤, 그런 사정쯤, 12월 20일쯤,...
- ㅇ. -어치(분량) : 한 푼어치, 천 원어치, 얼마어치,...
- ㅈ. -지기1 (논) : 닷 말지기, 두어 섬지기, 천둥지기,...
- ㅊ. -째1 (차례) : 몇째, 사흘째, 며칠째, 두 잔째, 여덟 바퀴째, 다섯 달째,  
둘째, 셋째,...

22) 분류사(分類辭:classifier)란 어떤 대상을 셈할 때 그 대상의 의미범주를 규정하는 보조적인 수단을 말한다. 범주 및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정혜(1999)를 참조할 수 있다.

- ㄱ. -째2 (전부, 그대로): 그릇째, 뿌리째, 껍질째, 통째로, 발째,...
- ㄷ. -종(무게): 당귀 한 냥종, 금 두 돈종, 은 세 푼종,...
- ㄹ. -짜리(사물/사람): 한 뼉짜리, 열 살짜리, 오십 원짜리, 방 두 개짜리, 백 원짜리, 얼마짜리, 양복짜리, 장옷짜리, 창의짜리,...

#### 4.3.6.1. 시·공간의 단위를 측정하는 어근과 결합하는 접미사

시·공간의 단위를 측정하는 어근과 결합되는 접미사로 ‘-가웃, -거리, -계, -쫘, -지기, -들이’ 등이 있다.

‘-가웃’은 공간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 ‘자, 되, 말’ 등의 분류사와 결합하여 ‘X단위의 절반 정도’를 의미한다.<sup>23)</sup> ‘자’는 ‘길이를 재는 도구 또는 단위’이며, ‘되, 말’은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분량을 재는 도구 또는 단위이다. 주로 ‘쌀 한 되가웃’과 같이 ‘명사-수사-분류사-가웃’의 형태로 쓰인다.

‘-거리’는 주로 ‘하루, 이틀, 달, 해’ 등과 결합하여 ‘X의 주기’ 즉 ‘시간’을 의미한다. 접미사 ‘-거리’는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따위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를 의미하는 자립 명사 ‘거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공간을 표시하는 어휘가 시간을 표시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현상은 다의 확장의 일반적 원리로 익히 알려져 있다. 다의 확장 방향이 ‘공간 → 시간’으로 가는 것은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Givon 1979).

‘-계’도 ‘공간’과 ‘시간’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근과 결합되어 ‘X의 범위’ 정도를 의미한다. ‘-계’는 ‘서울역계, 명동계’ 등과 공간을 지칭하는 어휘와도 결합이 가능하며, ‘이달 말계, 그믐계’ 등과 같이 시간을 지칭하는 어휘와도 결합된다. 한편 시간을 의미하는 ‘-계’는 한자어 접미사 ‘경(頃)’과 교체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간을 지칭할 때는 ‘경(頃)’과 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쫘’은 ‘-계’가 사용된 모든 환경에서 교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역의 관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3) ‘부피’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간’을 재는 단위가 된다.

(54) ㄱ. 서울 역계, 명동계, 이달 말계, 그믐계,...

ㄴ. \* 서울역경, \* 명동경, 이달 말경, 그믐경,...

(55) ㄱ. 서울 역쫘, 명동쫘, 이달 말쫘, 그믐쫘,...

ㄴ. 12월 20일계, 내일계, \* 이계, \* 얼마계, \* 중간계, \* 사정계,...

‘-쫘’은 ‘X의 정도’로 해석된다. ‘-쫘’은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수량 표현과 결합하는 경향이 높기는 하나, 수량 표현 이외의 어근과도 결합되는 등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김계곤(1969ㄴ)은 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영근(1972ㄴ)에서도 어근과 결합 양상에 따라 접미사를 매우 불규칙적인 것, 다소 규칙적인 것, 매우 규칙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쫘’을 매우 규칙적인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규칙적인 접미사의 경우는 조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기’는 ‘논과 밭’의 단위로 곡식의 단위를 세는 단위인 ‘섬, 말’ 등과 결합하여 ‘그러한 분량의 곡식이 나오는 논밭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천동지기’는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사와 결합되는 경우와 해석이 다르다.

‘-들이’역시 ‘말, 리터’와 같은 분류사에 결합되어 ‘그러한 용량이 들어가는 그릇’의 의미를 나타낸다.

#### 4.3.6.2. 개체의 단위를 측정하는 분류사와 결합하는 접미사

‘-꿀, -씩, -어치, -쫘, -째1, -째2, 쫘, -짜리’ 등은 개체의 단위를 측정하는 어근과 결합하여 개체의 단위 특성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꿀’은 개체의 단위를 세는 ‘명, 개’ 등과 결합하여 ‘그 단위만큼’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금액의 단위인 ‘원’과 결합하여 ‘그 금액만큼’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치’역시 주로 금액의 단위인 ‘푼, 원’ 등과 결합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분량’을 의미하며, -쫘’은 ‘돈, 냥, 푼’ 등과 결합하여 ‘그만한 무게’를 의미한다.

‘-짜리’는 ‘원, 개, 나이, 크기’ 등과 결합하여 ‘그만한 물건, 또는 것’의 의미

를 나타낸다. ‘양복짜리, 창의짜리, 장옷짜리’는 ‘양복, 창의, 장옷’을 입은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인데, 인접에 의한 환유적 표현이다. 즉 늘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째<sub>1</sub>’은 ‘첫째, 둘째, 두 잔째’ 등과 같이 ‘X의 차례’를 의미하며 ‘째<sub>2</sub>’는 ‘그릇째, 껍질째, 발째’ 등과 같이 ‘X의 상태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씩’은 비교적 다양한 단위의 어근과 결합이 가능하며 횟수를 반복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 개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건이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러한 물건을 한 개 단위로 반복하여 나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4.3.7. [차원] 영역의 접미사

[차원]접미사는 3장의 분류 체계에서 시간 및 공간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를 분류한 것이다.

##### (56) [차원]접미사

ㄱ. -막 : 내리막, 오르막.

ㄴ. -빨 : 삼촌빨, 손자빨, 손아래빨, 아버지빨, 자식빨, 조카빨, 할아버지빨,...

ㄷ. -님 : 사장님, 총장님, 달님, 별님, 토끼님, 해님,...

‘-막’은 ‘오르-’, ‘내리-’ 두 개의 어근과만 결합하기 때문에 접미사 설정에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사건]영역과 결합하여 [공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내리막’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탈진 곳’을 의미하며, ‘오르막’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탈진 곳’이라는 특정한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오르막’과 ‘내리막’은 ‘기운이나 기세가 올라가는 상태 또는 내려가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의 유사성에 기댄 표현이므로 접미사의 의미라기보다 ‘오르막, 내리막’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빨’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접미사로 기준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나이’를 염두에 것이다. 즉, 두 개체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원]접미사로 분류된다.

‘-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뻘’이 주로 사적 관계를 나타낸다면, ‘-님’은 공적 관계를 나타낸다. ‘선생님’은 ‘제자’와 관계를 상징한 것이며, ‘사장님’은 ‘종업원’을, ‘총장님’은 ‘학교 조직의 구성원’들을 상징한 개념이다. ‘-님’의 경우 시간적 관계인지 공간적 관계인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개체와 개체 사이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원]접미사라고 볼 수 있다.

#### 4.3.8. 기타 접미사

##### 4.3.8.1. ‘복수, 집단, 무리’의 의미를 첨가하는 접미사

(57)는 명사 접미사 중에서 선행 어근과 결합하여 ‘복수, 집단, 무리’ 등을 표현하는 접미사들이다.

- (57) 가. -들 : 사람들, 그들, 너희들, 사건들,...
- 나. -끼리 :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 다. -네 : 동갑네, 아낙네, 여인네, 철수네, 김 서방네, 아저씨네,...

‘-들’은 어근의 수효가 하나가 아닌 다수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는 셀 수 있는 명사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 평화’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명사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들’은 어근과의 결합 제약이 거의 없어 분류에서 늘 논란이 되는데, 의미적으로 ‘복수’를 나타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끼리’는 ‘복수성’의 의미를 가진 어근과 결합하여 ‘X의 부류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집안사람들끼리’라고 하면 ‘집안사람’ 이외의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는 사람이나 사람과 관련된 명사와 결합하여 ‘그러한 사람 또는 사람

의 무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철수네'는 '철수라는 사람이 속하는 가족 전체의 무리'를 의미하며, '동갑네'하면 '나이가 같은 사람, 즉 동갑의 무리'를 의미한다.

#### 4.3.8.2. '비하' 의미만 첨가하거나 강조하는 접미사

명사 접미사 중에서 (58)에 제시한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에 단지 '비하'의 의미만을 첨가하거나 강조하는 접미사들이다.

(58) '비하'의 의미만을 첨가하는 나타내는 접미사

- ㄱ. -까짓 : 이까짓, 그까짓, 저까짓, 네까짓,...
- ㄴ. -거리2 : 떼거리, 패거리, 짓거리,...
- ㄷ. -대가리 : 맛대가리, 멋대가리, 재미대가리,...
- ㄹ. -딱지 : 고물딱지, 심술딱지, 화딱지,...
- ㅁ. -때기 : 배때기, 귀때기, 볼때기,...
- ㅂ. -머리 : 싹수머리, 안달머리, 인정머리, 주변머리, 주책머리,...
- ㅅ. -짝 : 낫짝, 등짝, 불기짝, 신짝, 짚신짝,...

이들 접미사는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생략되어도 문장의 개념적 의미의 전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59) ㄱ. {이/이까짓}일로 네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ㄴ. 사람들이 {떼/떼거리} 몰려오고 있었다.  
 ㄷ. 이 음식은 참 {맛/맛대가리}이(가) 없구나.  
 ㄹ. 이런 {고물/고물딱지}을 왜 집으로 가지고 오니?  
 ㅁ. 날씨가 차가워서 {볼/볼때기}이(가) 빨갛게 변했다.  
 ㅂ. 애가 참 {인정/인정머리}이(가) 없구나.  
 ㅅ. 어찌면 그리도 {낫/낫짝}이 두꺼울까?

또한 문장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이들 접미사가 첨가되면 자연스러운 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

(60) ㄱ. {그일/?그까짓 일}로 네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ㄴ. 그까짓 일로 화를 내고 그러니?

(61) ㄱ. 우리는 그를 찾기 위해 두{패/?패거리}로 나뉘어서 집을 나섰다.

ㄴ. 두 번 다시 그 패거리와 어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62) ㄱ. 오늘따라 밥{맛/?맛대가리}이(가) 참 좋구나.

ㄴ. 반찬이라고는 조개국밖에는 없는데다, 그나마 멀건 것이 맛대가리라곤 없었다.

(63) ㄱ. 이게 {고물/?고물딱지}처럼 보이겠지만 아직은 쓸만하다네.

ㄴ. 그의 육감으로는 이런 형편없는 시계는 말아 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쓸모없는 고물딱지 시계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

(64) ㄱ. 임신 8개월인 그녀는 {배/?배때기}가 남산만 해져서 돌아왔다.

ㄴ. 빌어먹을 놈들, 불난 걸 기회 삼아서 저희들 배때기 불릴 생각만 한 단 말이야.

(65) ㄱ. 그는 겉보기에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꽤 {인정/?인정머리}이(가) 있는 사람이다.

ㄴ.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66) ㄱ. 낮을 깨끗이 씻어라.

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타나다니, 참 낮짝도 두껍군.

## 5. 접미사 상호간의 관계

이 장에서는 접미사 상호간의 결합 양상을 고찰한다. 접사는 통상 단어의 주변 요소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만을 지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접사에 대한 의미적 접근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파생접미사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어의 통사 범주를 결정하는 단어의 핵 요소이다. 또한 의존 형태인 접사들이 실사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면에서 보면 파생 접사의 결합 양상은 오히려 어휘적 의미는 갖는 실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sup>1)</sup>

접사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와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분류해 온 것 역시 접사를 단순히 문법적 의미만 있다고 보는데서 기인한 분류 방식이다. 그러나 동일한 접미사 내부에서도 어휘적 의미에 따라 다른 분포가 보인다. 고영근(1972<sub>ㄴ</sub>)은 접미사를 불규칙적인 것, 다소 규칙적인 것, 매우 불규칙적인 것의 세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좀 더 규칙적인 접미사가 좀 더 후에 결합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님'과 '-들'은 선행 어근으로 명사를 취한다는 점에서 보면, 두 접미사 모두 한정적 접미사이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가능한 반면, '\*선생들님'은 불가능하다. 이는 '-들'이 많은 체언에 붙을 수 있는데 반해 '-님'은 공손성을 띤 몇몇의 어근에 한정해서 쓰이지 때문이다(고영근(1972)). 이러한 현상은 접미사 상호간의 배열이 의미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1.에서는 접미사의 의미 결합 관계를 '-이, -개, -질, -꾼'을 대상 살펴본다.<sup>2)</sup> 5.2.에서는 표면적으로 어근과 결합에서 배타적 현상을 보이는 '-이, -음, -기'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동안 '-이, -음,

---

1) 고영근(1972<sub>ㄴ</sub>)은 어근과 접미사의 통합에서 일어나는 형태 음소적 변이가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굴절법과 비교할 때, 매우 불규칙하고 개별적이어서 오히려 어근과 접사의 통합 양상은 합성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접미사가 선행 어근과 결합에서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음'과 '-기'도 선행 어근을 명사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보다 파생 접사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진행상 필요하다면 '-음, -기' 결합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기'의 기능 및 의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이, -음, -기'는 역사적인 관련성과 표면적으로 배타적 분포를 이룬다는 점 때문에 늘 함께 논의되어 왔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의미의 관점에서 이들 형태의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 5.1. 접미사의 의미와 서열적 결합 양상

접사의 서열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Bloomfield(1933)가 단어의 굴절 구조층이 조어 구성층의 바깥쪽에 위치한다고 언급한 이후 굴절 접사가 파생 접사에 후행한다는 점은 이제 공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sup>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서열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Bybee(1985)는 형태 사이의 의미적 관여성, 즉 결합의 정도에 따라 모든 어휘를 배열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절단적(切斷的)이라기보다 점진적(漸進的)이기 때문에(이석주, 1989 : 99) 굴절 접사 또는 파생 접사와 같은 각각의 부류 내부에도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ybee(1985)가 말한 관여성은 어근과 접사의 결합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견해는 형태와 형태의 결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의미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구나 굴절 접사와 달리 파생 접사는 어휘적 의미가 강할 뿐 아니라, 접미사의 의미 실현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사의 선·후행 결합에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sup>5)</sup>

3) 파생접사와 굴절접사인 어미의 구별에 대한 논의는 이석주(1989)를 참조할 것.

4) Bybee(1985)는 관여성(relevance)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여성이란 두 개의 의미 요소 중에서 첫째 의미 요소의 의미 내용이 둘째 의미 요소의 의미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의미를 수식하는 경우 첫째 의미 요소는 둘째 의미 요소에 관여성이 있다.

5) 조사 부류도 일정한 서열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정조사(특수조사)의 경우 격조사보다 어근에 가까이 위치한다. 어휘적 의미를 좀 더 많이 가진 한정조사가 어근

파생어 형성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 접미사 상호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는 접미사 상호간의 결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거나 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은정(1981:521)은 '접사는 같은 방향에 둘 이상 중복되기도 하는데, 둘 이상의 접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차례 붙이기(ordering)에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은정(1981)에서는 '둘 이상의 파생 접사가 방향성을 가지고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으나, 접사의 중복 출현이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런데 '서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형태가 중복하여 나타날 때 일정한 순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와 '-질', '-(으)ㄴ'과 '-질', '-개'와 '-질'이 서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질'이나 '-음질', '-개질'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질이'나 '-질음', '-질개'의 결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접사가 중복하여 결합될 때, 일정한 순서성을 보인다는 점은 이석주(1989), 시정곤(1998)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석주(1989:170)에서는 의존 형태와 자립 형태의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후자보다 전자가 선행한다고 하였으며, 시정곤(1998)는 어휘적 접사(파생 접사)를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로 구분하고, 1부류 접사는 2부류 접사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시정곤(1998)에서 제시한 분류는 아래와 같다.<sup>6)</sup>

---

에 가까이 위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형태의 서열성을 결정하는 것이 의미라는 관점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다.

- 6) 2부류 접사인 '개-'는 [野生, 惡], '올-'은 [早熟] '짓-'은 [甚], '설-'은 [不完, 未熟], '치-'는 [上向, 逆], '뫏-'은 [新, 初生]의 의미를 어간에 덧붙여주고 있으나, 1부류 접사인 '가래-질'은 [行爲], '육손-이'는 [人], '게으름-뱅이'는 [惡習人], '심술-쟁이'는 [職業, 性質의 人, 輕蔑], '목-아지'는 [小, 子], '피-보' [ 많거나 잘하는 人]의 의미를 어간에 덧붙여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2부류 접사가 덧붙여지는 의미와 1부류 접사의 의미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광수(1988)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 만드는 가지나 뜻 더하는 접사(또는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 파생접사와 전성접사)라는 구분보다는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1)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의 결합 양상(시정곤 1998: 181)

ㄱ. 1부류 접사 : 먹-이, 날-개, 멋-지-, 복-스럽, 먹-이, 새-로,...

ㄴ. 2부류 접사 : 접두사 : 개-살구, 올-벼, 짓-밟-, 설-익-, 치-솟-,...

접미사 : 가래-질, 게으름-뱅이, 심술-쟁이, 목-아지,...

즉, (1ㄱ)과 같이 통사 부류를 바꾸고, 의미도 첨가하는 1부류 접사가 (1ㄴ)과 같이 의미의 첨가 기능만을 갖는 2부류 접사를 선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부류 접사가 1부류 접사에 선행하여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정곤(1998)에서 제시한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의 통합 규칙은 다음과 같다.

(2)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의 통합 규칙(시정곤 1998: 181)

ㄱ. [방망이]질, [다리미]질, [쓰임]새

\* [방망질]이, \* [다림]질이, \* [쓰새]임

ㄴ. [[[X]+[1부류 접미사]]+[2부류접미사]]

\* [[[X]+[2부류 접미사]]+[1부류접미사]]

위 규칙은 1부류 접사인 '-이', '-개', '-음' 등이 2부류 접사인 '-질'에 선행하며 그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sup>7)</sup>의 검색 결과도 '-이질'이나 '-개질', '-음질'의 형태는 검색되었지만, 그 반대 배열인 '-질이', '-질개', '-질음'의 배열을 갖는 단어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 정보를 바꾸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접사의 서열적 결합을 결정한다는 (2)와 같은 규칙은 지나치게 강력해 보인다. 예를 들어 '[[[새기-(으)ㄱ]-질]]하(다)]'의 구조를 갖는 '새김질하다'의 경우를 보자. 여기서 명사를 만드는 '-(으)ㄱ'은 1부류 접사에 해당하고 '-질'은 2부류 접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2부류 접사에 후행 결합하는

7)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1년에 발행한 사전을 말한다.

‘-하-’ 역시 통사적 기능을 바꾼다는 점에서 1부류 접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1부류 접사가 2부류 접사에 후행하는 현상을 보인다.<sup>8)</sup> 더구나 ‘-보’와 같은 접미사는 (3)과 같이 동사 어간과 명사, 어근 등에 두루 결합하여, 통사 기능을 바꾸기도 하고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만약 품사를 바꾸는지 바꾸지 않는지와 같은 통사 정보에 따라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로 분류하고 그러한 분류 기준이 서열성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일 형태를 ‘보1(1부류 접미사)’와 ‘보2(2부류 접미사)’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우리의 직관에 맞지 않다.<sup>9)</sup>

(3) ㄱ. 동사의 어근과 결합 : 먹-보, 썰-보, 울-보,...

ㄴ. 명사와 결합 : 피-보, 겁-보, 밥-보, 떡-보,...

ㄷ. 어근과 결합 : 곰-보, 낫-보, 땅딸-보, 똥똥-보, 똥-보, 텅-보,...

또한 동일한 한정적 접사(2부류 접사)인 ‘-질’과 ‘-꾼’ 사이에서도 서열적 결합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검색 결과 ‘가래질꾼, 대패질꾼, 바느질꾼, 삼질꾼, 반두질꾼...’ 등 ‘-질꾼’의 결합형은 상당히 생산적인 반면, 그 반대인 ‘-꾼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접사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품사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런 경우 ‘하-’를 동사 어간으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접사 체계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9) 이러한 견해는 Hocket(1958: 243)이 제시한 한정적 접사(restrictive affix)와 지배적 접사(governing affix)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1부류 접사는 지배적 접사와, 2부류 접사는 한정적 접사와 유사하다. 그런데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1부류 접사와 2부류 접사라는 용어는 접미사가 선행 어근의 정보를 바꾼다고 보는 관점에서 나온 용어이다. 그러나 ‘-보’와 같이 정보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의미면에서 보면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성 포착이 필요하다. 필자는 접미사가 어근의 정보를 바꾼다기보다 접미사 자체가 ‘명사 접미사’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접미사가 단어의 핵이기 때문에 파생어가 명사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사 접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5.1.1. '-이'와 '-질'의 결합 양상

먼저 파생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 실현 양상을 보자. 명사 접미사 '-이'는 '옷걸이'에서는 [사물]로 실현되고<sup>10)</sup> '감옥살이'나 '가슴앓이'에서는 [사건]의 의미로 실현되며, '소몰이'의 경우는 [행위]와 [사람]의 두 가지 의미로 실현된다.<sup>11)</sup> 사실 접미사와 같이 어휘적 의미가 비교적 약한 형태들의 '의미'를 포착하고 그러한 의미의 하위 경계를 포착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의미만을 갖는 형태를 제외한 어휘 의미를 갖는 모든 어휘가 다의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미사의 다의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명사 접미사 '-이'는 (4)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10) 필자는 '옷걸이'를 [사물]로 분류하였다. [도구]를 [사물]과 변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도구]는 [사물]의 하위 부류가 될 것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도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 동시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필자는 '먼지떨이'는 [도구]로 보지만 '재떨이'는 [사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먼지떨이'는 '먼지를 떠는 행위에 동시에 동반되는 것'이지만 '재떨이'는 '재를 떠는 과정에 동시에 동반되는 기구'가 아니라 '재를 떠 후 재가 모이는 곳' 즉 장소를 대상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iller(1991 :206-209)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사물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건의 주된 기능은 어떤 행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도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기능을 위해 고안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는 [도구]에 대한 변별 기준으로 도구격 조사 '-로'와 처격 조사 '-에'의 결합 제약을 들고 싶다. 필자가 말뚝치(세종 21)에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옷걸이에'는 10회가 검색되었으나 '옷걸이로'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으며, '재떨이에'는 26회, '재떨이로'는 2회가 검색되었다. 그런데, '재떨이로'에 검색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재떨이가 주된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 <넘버 3>에서 {재떨이로} 호연한 박상면도 합세한다.
- 그녀는 한 손님이 휘두르는 유리 {재떨이로} 뒷통수를 맞고는...

11) 이재인(1989)은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의미는 [+대상성]이나 [+실체성]이며, 나머지는 사용 의미라고 하였다. 사용 의미란 특정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소몰이'의 경우 특정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행위]와 [사람]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의 다양한 의미를 '-이'의 다의 의미라고 본다.

(4) 명사 접미사 '-이'의 의미 실현 양상

| 유형별 형태 | 의미 구조  | 의미 실현 양상 |
|--------|--------|----------|
| 먼지떨이   | 먼지를 떠는 | [도구]     |
|        | 먼지를 떠는 | [행위]     |
| 소몰이    | 소를 모는  | [사람]     |
|        | 소를 모는  | [행위]     |
| 옷걸이    | 옷을 거는  | [사물]     |
| 가슴앓이   | 가슴을 앓는 | [사건]     |

그런데 '-이'에 '-질'이 후행 결합하는 경우 의미적으로 '먼지떨이질'은 자연스러운데, '가슴앓이질'이나 '옷걸이질'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들은 모두 '목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구조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먼지떨이'도 '먼지를 떨다+이'라는 구조이고, '가슴앓이'도 '가슴을 앓다+이'의 구조이고, '옷걸이'도 '옷을 걸다+이'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접미사 '-이'의 다양한 의미를 파생어의 형태·통사 정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지떨이'와 '옷걸이'는 선행 명사와 후행 동사의 구조적 관계는 동일하지만 이 때 결합된 '-이'의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먼지떨이'의 '-이'는 '먼지를 떠는 [행위]'와 '먼지를 떠는 [도구]' 두 가지 의미로 실현 가능하며, '옷걸이'의 '-이'는 '옷을 거는 [사물]'과 '옷을 거는 [행위]' 의미가, '가슴앓이'의 '-이'의 '가슴을 앓는 [사건]'과 '가슴을 앓는 [사람]'의 의미가 가능할 것이다.<sup>12)</sup>

위와 같이 '-이'는 [도구], [행위], [사람], [사물], [사건],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질'은 '-이'가 [도구]의 의미를 갖는 파생어에만 후행 결합한다. 예를 들어 (5)~(8)에서 볼 수 있듯이 '-질'이 '-이'에 결합할 때, '-이'가 [도구]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자연스럽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가 [행위]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질'과 결합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sup>13)</sup>

12) [행위]는 주체가 어떤 행위를 주동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의 움직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행위]는 [사건]에 포함되지만, [행위]는 움직임의 원인이 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 (5) ㄱ. '먼지떨이----이[도구]+'-질' → 먼지떨이질  
 ㄴ. '먼지떨이----이[행위]+'-질' → ?먼지떨이질
- (6) ㄱ. '소물-----이[사람]+'-질' → \*소물이질  
 ㄴ. '소물-----이[행위]+'-질' → ?소물이질
- (7) ㄱ. '옷걸-----이[사물]+'-질' → \*옷걸이질  
 ㄴ. '옷걸-----이[행위]+'-질' → ? 옷걸이질
- (8) ㄱ. '가슴앓----이[사건]+'-질' → \*가슴앓이질  
 ㄴ. '가슴앓----이[사람]+'-질' → \*가슴앓이질

(5)에서 '먼지떨이'는 '-질'이 결합하기 전에 [행위]와 [도구]의 두 가지 의미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의성이 '-질'이 결합되면 상당히 해소된다. '-이'가 [도구]의 의미를 갖는 (5ㄱ)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면, '-이'가 [행위]의 의미를 갖는 (5ㄴ)은 수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5ㄱ)만큼 자연스럽지가 않다. 또한 '-이'가 [사람]의 의미를 갖는 (6ㄱ)과 [사물]의 의미를 갖는 (7ㄱ), [사건]이나 [사람]의 의미를 갖는 (8) 역시 '-질'과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의 다양한 의미와 '-질'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 
- 13) 언어 표현에서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장, 역전앞, 나 역시도, 아름다운 미녀, 다시 재론하다'와 같은 표현은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난 표현들이다. 그런데 이들 표현은 중첩된 형태들이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다. '담장'이나 '역전앞'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경우이고, '역시도'의 경우 어휘형태와 문법 형태가 결합된 경우이고, '아름다운 미녀'나 '다시 재론하다'는 수식어어 피수식어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이다. 형태와 형태의 결합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는 듯하다. 다만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합은 잉여적이라는 것이다.

(9) '-이'의 의미 유형과 '-질'의 결합 양상<sup>14)</sup>

| 형태   | 의미 영역 | 파생어 형태  |
|------|-------|---|
| '-이' | [도구]  | 먼지떨이질, 다듬이질                                   |
|      | [사람]  | * 애꾸눈이질, * 절름발이질                              |
|      | [사물]  | * 옷걸이질, * 재떨이질                                |
|      | [사건]  | * 감옥살이질, * 가슴앓이질                              |
|      | [행위]  | ?막벌이질, ?고기잡이질, ?고용살이질,<br>?날품팔이질, ?소몰이질, ?놀이질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 접미사 '-질'은 [도구]의 의미를 갖는 '-이' 파생명사와 선호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접미사 상호간의 결합에 대한 의미적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겠다.<sup>15)</sup>

14) [행위]의 의미로 해석되는 '-이'와 '-질'의 결합도 필자의 직관에는 아주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질'은 '깎음질, 닦음질, 달음질, 뒷걸음질, 말놀음질, 박음질, 숨음질, 업음질,...' 등 '-음'과 결합도 자연스럽다. 이 경우 '-음'이 [행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음'과 결합된 어근이 모두 [행위]의 의미를 갖는 어근이기 때문에 '-음'이 [행위]의 의미를 갖을 경우 의미가 중복된다. 김창섭(1996)은 '-음'은 어휘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음'은 단순히 '-질'이 선행 어근으로 명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즉, 형태적 요구 때문에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로 보면 '-이'도 역시 '-질'의 형태적 요구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음'과 달리 '-질'이 결합되지 전에도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는 점을 볼 때 어휘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황화상(2002)은 다리미, 돈뼤미, 지짐이 등과 같이 두 형성 요소 사이에 개재하는 접사 '-음'은 접사 '-이'가 갖는 음운론적 제약(접사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를 어기로 취하지 못한다)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해 선행 동사 어근에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15) 행위의 의미를 갖는 '-질'이 [도구]의 의미와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생질, 도둑질, 순사질, 계집질, 서방질'과 같이 [도구]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어근과도 결합한다. 그런데, '-질'이 결합하는 선행 어근이 전형적인 [도구]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질'이 [비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걸레질, 망치질, 못질, 삽질, 손질' 등은 [비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10) 접미사의 배열에 대한 의미적 조건 1

[행위]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질'은 명사 접미사 '-이'의 [도 구] 의미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질'은 접미사 '-이'의 개재 없이 파생되는 경우도 선행 어근이 [도 구]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11) ㄱ. 가위질, 망치질, 걸레질, 씨레질, 가래질, 삼질, 손질, 손가락질,...

ㄴ. \*책질, \*코질

'-질'과 결합한 (11ㄱ)의 파생어의 어근은 모두 [도구]로 해석된다. 이들 어근은 어휘 자체에 [도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과 사이에 [도구]의 의미를 가진 접사의 개재 없이 결합된다. 반면 동일한 구체 명사이지만 '\*책질'이나 '\*코질' '\*귀질'은 불가능하다. 김명광(1997)은 '결눈질, 발길질, 손질, 주먹질, 손가락질,...'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질'의 어근에 대한 제약으로 [+신체의 부위]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제약은 '코질'이나 '귀질'이 불가능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코'나 '귀' 역시 [+신체]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나 '귀'가 '-질'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은 [행위]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대상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에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신체 부위이지만 '손가락질'은 가능하지만 '코질'이나 '귀질'이 불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sup>16)</sup> '책'도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이 [도구]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16) 한편, '입질'의 경우는 사람이 입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냠시질할 때 물고기가 냠시밥을 건드리는 일'을 의미한다. 즉, 사람의 '입'은 행동의 [도구]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질'과 결합할 수 없지만, 물고기의 '입'은 손발 대신 '입'이 어떤 행위의 [도구]로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과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5.1.2. '-개'와 '-질'의 결합 양상

위에서 우리는 '-질'이 '-이'에 후행 결합할 때 '-이'의 의미가 [도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행위]의 의미를 갖는 '-질'이 [도구]의 의미를 선행 의미로 선호한다면 전형적인[도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접미사 '-개'도 '-질'에 선행 결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개'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자.

#### (12) 《표준국어대사전》의 분류와 의미

개<sup>13</sup>(접사) 『일부 동사 뒤에 붙어』 ‘사람’ 또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오줌싸개/코흘리개/날개/뒹개/지우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의하면 파생 접사 '-개'는 어근으로 '동사'만을 취하며, [사람]이나 [도구]의 의미를 지닌 파생어를 형성하는 명사 접미사이다.<sup>17)</sup> '오줌싸개, 코흘리개'는 [사람]의 의미를, '날개, 뒹개, 지우개'는 [도구]의 의미로 해석된다.

#### (13) '-개질'의 '-개'가 [도구]로 해석되는 파생어<sup>18)</sup>

ㄱ. 감티개질, 뒤집개질, 뿌무개질, 쭈시개질(쭈심질), 팡개질<sup>19)</sup>, 자리개질.

17) '-개'가 결합된 파생어의 구조가 다르긴 하다. 대개 [사람]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는 'N-V-개'의 구조를 보이며, [도구]로 실현되는 경우는 'V-개'를 보인다. 하지만 '가슴대개(활을 쏠 때 활술이 가슴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가죽 씌우개), 갓싸개(갓의 겉을 바르는 얇고 살퐁한 베), 발싸개(버선을 신을 때 버선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발을 먼저 싸는 종이나 헝겊) 등을 볼 때, 의미의 차이가 통사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 듯하다.

18) '깍개질, 자리개질, 찢개질, 주찢개질, 치임개질, 닭개질'과 같은 단어는 '-질'의 선행 어근인 '깍개, 자리개, 찢개, 주찢개, 치임개, 닭개'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19) '팡개'는 논밭에 새를 쫓는 데에 쓰는 대나무 조각을 말한다. 한 끝을 네 갈래로 갈라서 작은 막대를 '+'자로 물려 묶은 것을 흙에 꽂으면 그 사이에 흙이나 돌맹이가 찍히게 되는데, 이 흙이나 돌맹이를 새에게 던진다.

ㄴ. 김개질<sup>20)</sup>, 닭개질<sup>21)</sup>

(14) '-개질'의 '-개'가 [사람]과 [사물]로 해석되는 파생어

ㄱ. \*똥싸개질, \*오줌싸개질, \*코흘리개질.

ㄴ. \*부침개질, \*찌개질.

(13)과 (14)는 《표준》에서 '-개'와 '-질'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13)은 '-질'에 선행 결합한 '-개' 파생어의 '-개'가 [도구]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14)는 '-개'가 [사람]과 [사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질'의 결합 관계에서도 '질[행위]'의 선행 의미가 [사람]이나 [사물]로 실현되는 경우는 결합하지 못하며 [도구]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도 역시 '[도구]+[행위]'의 서열적 결합은 가능하지만 '[사람]+[행위]'나 '[사물]+[행위]'의 서열적 결합은 불가능하다.<sup>22)</sup>

'-개'과 '-질'의 결합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개'의 의미 유형과 '-질'의 결합 양상

| 형태   | 의미 영역 | 파생어 형태  |
|------|-------|---|
| '-개' | [도구]  | 뒤집개질, 따개질, 젓개질, 끌개질, 깔개질, 쓰개질, 이쑤시개질, 지개질, 조리개질, 기름거르개질, 가리개질 |
|      | [사람]  | *똥싸개질, *오줌싸개질, *코흘리개질, *침흘리개질                                 |
|      | [사물]  | *부침개질, *찌개질   |

20) '김각질(옷 따위를 김는 일)'의 북한어.

21) '닭음질'의 북한어

22) 한편 일부 방언형에서 선행 어근이 [도구]의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대신 '-개'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바꾸개질(바꿈질의 평북 방언), 기우개질(기움질의 북한어), 도망개질(도망질의 평북 방언) 등이다. '기움, 바꿈' 등이 형태면에서 '-질'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대신 '-개'를 삽입한 경우이고, '도망'의 경우는 '-개'의 삽입이 형태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러한 현상은 '-질'이 결합되면서 선행 자질을 [도구]화시키려는 심리적 기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접미사 상호 결합 양상에 대한 가설에 대한 의미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6) 접미사의 배열에 대한 의미적 조건 2

[행위]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질'은 명사 접미사 '-이'와 '-개'의 [도구] 의미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5.1.3. '-이'와 '-꾼'의 결합 양상

위에서 우리는 [행위]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질'이 '-이'와 '-개'가 [도구]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선호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꾼'은 [행위]의 의미로 해석되는 '-이' 파생어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반면 [도구]나 [사람], [사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행위]의 의미와의 결합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 (17) ㄱ. '소물-----이[행위]' + '-꾼' → 소물이꾼  
       ㄴ. '소물-----이[사람]' + '-꾼' →? 소물이꾼
- (18) ㄱ. '고기잡-----이[행위]' + '-꾼' → 고기잡이꾼  
       ㄴ. '고기잡-----이[사람]' + '-꾼' →?고기잡이꾼
- (19) ㄱ. '막벌-----이[행위]' + '-꾼' → 막벌이꾼  
       ㄴ. '놀-----이[행위]' + '-꾼' → 놀이꾼  
       ㄷ. '고용살-----이[행위]' + '-꾼' →고용살이꾼
- (20) ㄱ. 먼지떨-----이[도구]→?먼지떨이꾼  
       ㄴ. 다듬-----이[도구]→?다듬이꾼
- (21) ㄱ. 애꾸눈-----이[사람]→ \* 애꾸눈이꾼  
       ㄴ. 옷걸-----이[사물]→ \* 옷걸이꾼
- (22) ㄱ. 감옥살-----이[사건]→ \* 감옥살이꾼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의미를 갖는 '-꾼'은 '-이'가 [행위]의

의미로 실현될 때 결합이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고기잡이, 소몰이'의 경우에는 [사람]과 [행위] 의미가 모두 가능하지만 '-꾼'이 결합되면 [사람]의 의미는 약화되고 [행위]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 역시 '-이꾼'의 배열은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인 '-꾼이'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접사 '-이'와 '-꾼'의 서열적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다.

(23) '-이'의 의미 유형과 '-꾼'의 결합 양상

| 형태   | 의미 영역 | 파생어 형태   |
|------|-------|--|
| '-이' | [도구]  | ?먼지떨이꾼, ?다듬이꾼, ?방망이꾼   |
|      | [사람]  | * 애꾸눈이꾼, * 절름발이꾼   |
|      | [사물]  | * 옷걸이꾼, * 재떨이꾼   |
|      | [사건]  | * 감옥살이꾼, * 가슴앓이꾼   |
|      | [행위]  | 소몰이꾼, 놀이꾼, 막별이꾼, 고기잡이꾼<br>고용살이꾼, 날품팔이꾼, 떼몰이꾼,<br>머슴살이꾼, 매갈이꾼, 반작이꾼, 벼팔이꾼<br>삿팔이꾼, 살림살이꾼, 줄잡이꾼<br>짐밀이꾼, 하루살이꾼 |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24) 접미사의 배열에 대한 의미적 조건 3

- ① [행위]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질'은 명사 접미사 '-이'와 '-개'의 [도구]의미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② [사람]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꾼'은 명사 접미사 '-이'의 [행위]의미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5.1.4. '-질'과 '-꾼'의 결합 양상

5.1.3.에서 우리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 '-꾼'이 '-이'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행위]의 의미로 실현된 경우에 선호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 [사람]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가 [행위]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를 선행 자질로 선호한다면 [행위]의 의미를 갖는 '-질'도 역시 '-꾼'에 선호적으로 결합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25)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질꾼'의 결합 관계를 검색한 파생어이다.

(25) 가래질꾼, 대패질꾼, 들팔매질꾼, 매질꾼, 바느질꾼, 반두질꾼, 삼질꾼, 씨레질꾼, 합지질꾼,...

그런데 '-꾼'이 '-질'에 후행 결합이 가능한 경우는 '-질'의 어근이 모두 [도구]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강도, 도둑, 주정, 욕' 등과 같이 어근이 [행위]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꾼'이 후행 결합되지 않는다.

'-질'과 '꾼'은 두 형태 모두 선행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 접사(2부류 접사)이다. 위의 파생어들은 지배적 접사가 한정적 접사에 선행한다는 형태적 가설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와 '-질'의 결합이나 '-이'와 '꾼'의 결합, 그리고 '-질'과 '-꾼'의 서열적 결합 관계를 통해 접미사의 서열적 결합은 형태·통사적 정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질'과 '-꾼'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26) '-질'과 '-꾼'의 결합 양상

| 형태   | 의미 영역 | 파생어 형태   |
|------|-------|--|
| '-질' | [행위]  | 가래질꾼, 대패질꾼, 매질꾼, 들팔매질꾼<br>씨레질꾼, 합지질꾼, 바느질꾼, 반두질꾼 |

그러므로 접미사 상호 결합에 대한 의미적 조건(2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

23) 그러나 한정적 접사(2부류 접사)가 지배적 접사(1부류 접사)를 선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어야 한다.

(27) 접미사의 배열에 대한 의미적 조건 4

- ① [행위]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질'은 명사 접미사 '-이'와 '-개'의 [도구]의미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 ② [사람]의 의미를 갖는 명사 접미사 '-꾼'은 명사 접미사 '-이'의 [행위]의미와 [행위]의 의미를 갖는 '-질'에 후행 결합하고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질', '-꾼'은 분명 서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러한 결합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질'의 결합은 '-이'가 [도구]의 의미를 갖을 때이며, '-이꾼'은 '-이'가 [행위]의 의미를 갖을 때이다. 또한 '-질' 역시 [행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질꾼'의 결합도 생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지배적 접미사(1부류 접사)와 한정적 접미사(2부류 접사)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28) 지배적 접미사(1부류)와 한정적 접미사(2부류)의 결합 관계

- '-이질' : 지배적(1부류)접미사 + 한정적(2부류)접미사
- '-개질' : 지배적(1부류)접미사 + 한정적(2부류)접미사
- '-이꾼' : 지배적(1부류)접미사 + 한정적(2부류)접미사
- '-질꾼' : 한정적(2부류)접미사 + 한정적(2부류)접미사

위와 같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의미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

24) 사실 (29)와 같은 의미의 배열 관계를 볼 때, 논리적으로 [도구]+[행위]+[사람]의 순서의 접미사 배열이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25)의 경우처럼 '단일어+접사+접사'의 구성은 가능하지만 접미사가 두 번 이상 결합하는 파생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형태와 형태의 결합에서 의미의 제약은 직전 또는 직후 형태에 한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Williams(1981:253)의 말대로 '가장 최근에 첨가된 접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 '직전 직후 형태에만 반응'한다면 [도구]+[행위]나 [행위]+[사람]의 순서는 가능한

(29) '-이, -개, -질, -꾼'의 의미 결합 양상

'-이질' : [도구]+[행위]

'-개질' : [도구]+[행위]

'-이꾼' : [행위]+[사람]

'-질꾼' : [행위]+[사람]

물론 이러한 가설이 일반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접사의 결합 형태에서 이러한 의미의 서열적 결합 관계가 포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접미사의 배열 양상을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접미사 상호간의 서열적 결합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의미임을 보였다. 즉, 시정곤(1998)에서는 선행 어근에 의미의 첨가만을 가하는 한정적 접미사(2부류 접미사)는 선행 어근에 의미도 첨가하고 품사도 바꾸는 지배적 접미사(1부류 접미사)에 후행 결합한다고 하였는데, 의미 유형에 따라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지배적 접미사 '-이'는 다양한 의미 양상으로 실현되지만, 한정적 접미사인 '-질'과 서열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이'가 [도구]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이며, 동일한 지배적 접미사(1부류 접미사)인 '-개' 역시 [도구]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질'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한정적 접미사(2부류 접미사)인 '-꾼'은 '-이'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행위]의 의미와 결합이 자연스럽지만 '-이'의 다른 의미와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았으며, '-꾼'은 전형적인 [행위]의 의미를 갖는 '-질'에 후행 결합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

데, 반대 방향인 [행위]+[도구]나 [사람]+[행위]의 순서는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5.2. 접미사의 의미와 배타적 결합 양상

이 절에서는 접미사 '-이, -음, -기'의 문제를 다룬다. 이들 접사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X+음/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음/기'와 같이 표면적으로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음/기'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두 번째는 이들 접사에 대한 의미의 문제이다. 'X+음/기/이'구성을 보이는 파생어는 어근과의 결합에서 표면적으로 배타적 결합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0) 'X+음/기'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

- ㄱ. 단어 형성에서 'X+음/기'의 구조를 갖는 단어는 어휘부의 단어 형성 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이때 결합된 '-음/기'는 파생접사가 아니고 통사적 접사(명사형어미)이다.
- ㄴ. 'X+음/기'구조를 갖는 단어의 '-음/기'는 어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파생접사이다. 즉 파생접사 '음1/기1'와 명사형어미 '-음2/기2'가 존재한다.

### (31) '-음/기/이'의 의미에 대한 관점

- ㄱ. '-이/음/기'결합 파생어의 배타적 결합 양상은 저지 현상이다.
- ㄴ. '-이/음/기'결합 파생어의 배타적 현상은 이들 접미사의 고유 의미에 의한 어근의 선택 제약이다.

### 5.2.1. 'X+음/기'의 정체성

먼저 문법 부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시정곤(1998), 송원용(1998, 1999) 등은 'X+음' 구성의 파생어는 통사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즉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어휘부에 등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관점에서 'X+음' 구성의 '-음'은 명사형어미이다. 시정곤(1998: 112-126)은 (30ㄱ)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32) '-음, -기'에 대한 시정곤(1998)의 주장

- ㄱ. 의미적으로 파생접사 '-음'과 명사형어미 '-음'을 구별할 수 없다.
- ㄴ. 중기국어에서는 파생접사 '-음'보다 '-오/우-'를 동반한 동명사형어미 '-음'과 결합한 단어가 더 생산적이었다.
- ㄷ. 송철의(1989:111)에서 제기한 음운현상('-'-'탈락과 축약 현상)은 파생 접사와 동명사형어미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sup>26)</sup>

2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시정곤(1996)에서는 '단어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는 '단어화'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현상'에 대한 용어로 사용한다. 시정곤(1999:134)은 이 개념이 전통적 개념의 '어휘화(lexicalization)'와는 다르며, 단어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빈도'를 들고 있다. 한편 송원용(1998:24)은 '어휘부 밖에 존재했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으로 인해 다소 소모적인 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시정곤 1999, 하치근 1999 참조).

26) 송철의(1992:151)는 '-음'구성이 동명사형성에서는 일반적인 음운현상에 따라 용언어간 말음 'ㄹ'다음에서 '으'가 탈락하는데 파생명사 형성에서는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파생명사 형성 : 울- + -음 → 울음 (\* 울)  
 얼- + -음 → 얼음 (\* 얼)  
 싸우- + -음 → 싸움(쌈)  
 미끄럽- + -음 → 미끄럼(\* 미끄러움)
- 동명사 형성 : 울- + -음 → 울음(움)  
 얼- + -음 → 얼음(엷)  
 싸우- + -음 → 싸움(\* 쌈)

르. '-음'을 파생접사로 가정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이 있다(먹음직하다, 생김새, 만듦새, 새김질, 거침없이 등)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보자.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는 파생 접사와 명사형어미로 실현되는 '-음'이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이들 접사를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형태는 대부분 의존적 형태로, 어휘적 의미가 약해서 의미 차이를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이 쉽기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0ㄴ)과 같이 보는 이유를 이들 접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 주장 역시 다소 소모적일 수 있다. 즉, 의미 차이를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30ㄱ)과 같이 본다고 주장한다면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중기국어에서 '-음'이 단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국어 'X+음'구성에 대한 중기국어 대응형은 '-음'이 아니라 '-오/우-'를 동반한 동명사형어미 '-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근거는 현대국어의 'X+음'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보완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파생어 형성을 공식적 규칙의 관점에서 설명할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으'탈락이나 축약 현상은 파생접사와 동명사형어미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철의(1989)에서는 '-음' 형태의 명사는 어휘적 접사에 의한 파생명사이며, 이 가운데 여기에 'ㄹ'을 가진 명사의 경우 '-으'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재형은 '살음, 알음'의 형태가 아니라, '삶, 앓'의 형태로 '-으-'축약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중 '삶'의 경우는 축약형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근거는 오히려 이들 접사가 파생접사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시정곤(1998)의 논의를 수용하면 '믿음직하다'와 '믿음직스

---

미끄럽- + -음 →미끄러움(?미끄럽)

럽다'와 같은 단어에서 '-직하-'와 '-직스럽-'의 정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만약 이들이 파생접사라면 이들 단어는 '믿음'이 단어로 굳어진 후에만 붙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하-'와 '-직스럽-'은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먹음직하다, 먹음직스럽다'도 가능하다.<sup>27)</sup>

다음으로 (30ㄴ)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자. (30ㄴ)의 관점은 'X+음/기'구조를 보이는 단어의 '-음/-기'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접사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치근(1996)은 '-음'은 파생접사 '-이'와 마찬가지로 [사물], [행위인], [때], [상태]와 같은 여러 의미 자질을 갖으며, 공시적인 생산성이 있으며, 어휘고도제약을 지키며, 자질스며들기의 범위가 동사 어근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음'을 파생접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음'구성의 파생어가 다양한 의미로 실현되는 것은 '-음'의 고유한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X+음'구성 파생어가 [행위]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이들 어근이 모두 동사이며, [상태]는 형용사를 어근으로 취할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시정곤 1998). 그래서 시정곤(1998)은 '-음'의 주된 역할은 문법 범주를 바꾸는 것이고, 전체 의미는 선행어근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음'이 문법 범주를 바꾼다고 보는 이러한 관점은 굴절접사인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된다. '-음/기'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다른 굴절현상과 달리 출력형의 품사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성광수(1988)에서는 '-음/기'는 형태상 동일성으로 인해 굴절접사인 활용어미의 전용으로 볼 수 있지만, 통사구조상 용납되는 활용어미가 파생어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활용형이 파생어로 전용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 즉, '-음/기' 구성을 단순히 굴절접사의 전용으로 볼 경우 특정 접사와 특정 어근과의 결합형만이 파생어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8)</sup>

27) 송철의(1989:121-129)에서는 '-직'에 선행하는 요소를 파생명사로 보고 있다. 즉 '-음직하다' '-음직스럽다'의 '-직하, -직스럽'은 파생명사에 붙는 접사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파생명사는 명사화한 요소로 비파생 단일 명사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기능을 갖을 것을 요구하지만, '먹음'은 '밥'이나 '구두땀'과 달리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 파생어를 잠재적 파생어로 보았다.

'X+음'구성을 명사형어미와 결합된 통사적 구성이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는 (30ㄱ)과 같은 견해는 의미적 동형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형태소가 굴절 현상과 파생 현상에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파생접사로써의 '-음'과 굴절접사인 명사형어미로써 '-음'을 인정하는 (30ㄴ)의 관점은 의미적 동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음, -기'와 같이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에 동시에 참여하는 많은 언어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의 동형성을 확보하면서 문법적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통사적 접사라 불리는 많은 접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고창수(1995)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통사부와 형태부를 독립된 절차로 보는 비선형성모형으로 간주함으로써 해결한다.

(33) ㄱ. 얼음

ㄴ. 한강이 얼었음이 틀림없다.

즉 (33ㄱ)과 (33ㄴ)의 '얼음'은 단지 하나의 자질만 다른 요소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33ㄱ)은 [+lexical]자질을 갖지만, (33ㄴ)은 [-lexical]자질로 표시됨으로써 둘 사이의 의미적 동형성을 확보하면서 출현 분포의 차이를 명

---

28) 즉, 동일한 어근이 (1)과 같이 파생어 형성은 불가능하지만 (2)과 같이 굴절형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생어 형성에 나타난 접사를 단순히 굴절형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ㄱ. 얼-음 \*얼-기 \*얼-이 \*얼-개

ㄴ. \*보-ㅁ 보-기 \*보-이 \*보-개

ㄷ. \*먹-음 \*먹-기 먹-이 \*먹-개

ㄹ. \*날-음 \*날-기 \*날-이 날-개

ㅁ. \*길-음 \*길-기 길-이 \*길-개

ㅂ. \*밝-음 밝-기 \*밝-이 \*밝-개

(2) ㄱ. 물은 기름보다 얼기가 쉽다.

ㄴ. 철수는 어제 그것을 보았음을 부인했다.

ㄷ. 연이 날기를 잘 한다.

ㄹ.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 밝음을 측정했다.

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설명방식은 우리의 직관이 요구하는 의미의 동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적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형태부와 통사부를 선형적 모형으로 설명하는, 즉 형태부의 출력형이 통사부의 입력형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음'이 형태부와 통사부에서 두 번 적용되어야 하는 즉, 잉여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sup>30)</sup>

필자는 의미의 동일성이 문법 부류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언어 현상에서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다른 범주적 특성을 보이는 현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34) ㄱ.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ㄴ. 나도 할 만큼은 했다.

(35) ㄱ. 당신 뜻대로 하세요.

ㄴ. 네가 본 대로 모두 말하여라.

전통적으로 (34ㄱ)과 (35ㄱ)은 조사로, (34ㄴ)과 (35ㄴ)은 의존명사로 처리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을 의미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단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범주 경계적 현상을 보이는 많은 형태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문제는 모국어 화자들이 이들 형태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법 기술의 방향은 의미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3.2.참조).

---

29) 고창수(1995)에서는 어휘접사 '-음'은 [+V, +affix, +lexical, +CN]과 같은 어휘정보자질로 포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CN]은 이 접사가 명사화접미사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접미사 '-음'은 [+V]에 의해 동사를 선행 어간으로 하며 [+CN]에 의해 형태 규칙의 결과를 명사로 한다는 것을 명시화 한 것이다.

30) 고창수(1995)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부와 통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선형선성 모델을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어휘적 연산과 통사적 연산이 완전히 자율적이고 자기 조직적이기 때문에 잉여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창수 1995).

### 5.2.2. '-음, -기, -이'의 의미

여기서는 '-이/음/기'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송철의(1992)에서 동사나 형용사 어간을 어기로 하여 '-이, -음, -기'가 (36), (37)과 같이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타적 분포가 파생어 형성 규칙들 간의 일종의 저지(blocking)현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접미사들의 의미 특성이 달라서 배타적으로 선택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36) 동사어간과 '-이, -음, -기'

| 동사    | -이 | -음 | -기  |
|-------|----|----|-----|
| 걷-(步) |    | 걸음 |     |
| 묻-(問) |    | 물음 |     |
| 믿-    |    | 믿음 |     |
| 죽-    |    | 죽음 |     |
| 울-    |    | 울음 |     |
| 싸우-   |    | 싸움 |     |
| 웃-    |    | 웃음 |     |
| 자-    |    | 잠  |     |
| 얼-    |    | 얼음 |     |
| 돕-    |    | 도움 |     |
| 지-    |    | 짐  |     |
| 굽-    | 구이 |    |     |
| 놀-    | 놀이 |    |     |
| 떨-    | 떨이 |    |     |
| 몰-    | 몰이 |    |     |
| 먹-    | 먹이 |    |     |
| 벌-    | 벌이 |    |     |
| 풀-    | 풀이 |    |     |
| 달리-   |    |    | 달리기 |
| 던지-   |    |    | 던지기 |
| 읽-    |    |    | 읽기  |
| 더하-   |    |    | 더하기 |
| 빼-    |    |    | 빼기  |
| 나누-   |    |    | 나누기 |

(37) 형용사어간과 '-이, -음, -기'

| 형용사   | -이 | -음  | -기 |
|-------|----|-----|----|
| 게으르-  |    | 게으름 |    |
| 괴롭-   |    | 괴로움 |    |
| 두렵-   |    | 두려움 |    |
| 기쁘-   |    | 기쁨  |    |
| 밋-    |    | 미움  |    |
| 슬프-   |    | 슬픔  |    |
| 반갑-   |    | 반가움 |    |
| 외롭-   |    | 외로움 |    |
| 즐겁-   |    | 즐거움 |    |
| 걸-(肥) |    | 거름  |    |
| 크-    | 키  |     | 크기 |
| 밝-    |    |     | 밝기 |
| 굵-    |    |     | 굵기 |
| 굳-    |    |     | 굳기 |
| 세-    |    |     | 세기 |
| 높-    | 높이 |     |    |
| 길-    | 길이 |     |    |
| 깊-    | 깊이 |     |    |
| 넓-    | 넓이 |     |    |

먼저 이 세 유형의 접사가 저지현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저지에 대해 살펴보자.<sup>31)</sup> 저지(blocking)현상은 어떤 형태가 이미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의미상 동일한 다른 형태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저지현상은 의미의 공유를 전제해야 한다. Kiparsky(1982)는 이러한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는 저지라는 개념을 어떤 파생어가 그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다른 어떤 단어의 존재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파생형 'stealer'와 같은 파생어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thief'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접사의 파생어 현상이 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이, -음, -기'가 역사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38) '-음, -기, -이'의 관련성

- ㄱ. '-음'이 역사적으로 '-기'와 '-것'에 영역을 침식당해왔으며, 현대에도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채완 1979).
- ㄴ. '-기'는 '-음'의 자리에 대치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력을 증가시켰

31) 이 개념은 원래 Aronoff(1976)가 파생어 논의에서 생산성과 관련하여 사용한 개념이다. 그는 저지가 비생산적인 접미사인 '-ity'의 도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생산적 접미사인 '-ness'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ness'와 같이 매우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접사는 어휘부에 등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생산적이지 못하고 규칙적이지 못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어휘 정보가 어휘부에 등록된 경우에 저지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파생어의 출현과 비출현이 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접사가 생산적인지 아닌지가 늘 분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저지가 비생산적인 과정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생산적인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calise 1984). 그러므로 어떤 접사가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의 문제로는 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2) 송철의(1992)에서는 '-이, -음, -기'는 한편으로는 의미상의 공통성을 가지기도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차이점도 없지 않은 듯하다는 언급만 했을 뿐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으며, '-음'은 '것'에 의해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홍종선 1983ㄱ).

ㄷ. 16세기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하는 동명사형 어미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결합하는 '-기'와 이형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김완진 1976).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 형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송철의(1992)에서 보여주듯 현대국어에서도 표면적으로 이들 형태가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채완(1979)의 주장대로 '-음'이 '-기'에 영역을 침식당해 왔으며, 현대에도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면 '-음'과 '-기'는 현대국어에서도 의미면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8ㄷ)에 의하면 '-이'와 '-기' 역시 관련성이 있으며, 이 둘이 관련되어 있다면 '-음'과 '-이'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접미사가 역사적으로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이 현대국어에서 의미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국어에서 이들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많은 언어 현상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선행 연구자들의 의미 기술을 살펴보자.

(39) '-이, -음, -기'의 의미 기능

| 연구자       | '-음'의 의미 기능                         | '-기'의 의미 기능                    |
|-----------|-------------------------------------|--------------------------------|
| 최현배(1961) | 움직임 그것을 관념적으로 가리키는 이름꼴              | 그 움직임의 나아감을 가리키는 이름꼴           |
| 임홍빈(1974) | 오관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존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화] | 오관을 통해서는 지각할 수 없는 비존재성 [-대상화]  |
| 채 완(1979) | 구체적이고 1회적인 사건                       | 계속적 반복적인 일반화된 개념 또는 기대상        |
| 심재기(1982) | 명사적 성격 [+실체성]<br>동사적 성격 [+결정성]      | 명사적 성격 [-실체성]<br>동사적 성격 [-결정성] |
| 홍종선(1983) | 발화 내용 당시 동작의 상태[+시제성]               | 동작·상태의 단순한 인식, 일반화[-시제성]       |
| 김창섭(1996) | 어휘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 기능만 있음              | [+규식성]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음, -기’가 단순히 명사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개별 접미사의 의미적 특성이 특정한 어근과 배타적 결합을 견인(attract)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4.1.에서 어근과 접사의 결합에서 후행 성분의 의미 특성에 따라 선행 성분의 의미적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음, -기’가 특정한 유형의 어근과 서로 배타적으로 결합한다면 이는 이들 의미의 어떤 특성이 서로 다른 의미적 특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음, -기’의 변별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이, -음, -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5.2.2.1. ‘-음’

‘-음, -기’는 ‘-하다’와 결합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표면적으로 ‘V-음/기’ 구조를 보이는 단어를 살펴보자.

- (40) ㄱ. \*물음하다, \*믿음하다, \*죽음하다, \*울음하다, \*잠하다,  
       \*얼음하다, \*도움하다, 짐하다, …  
       ㄴ. 걸음하다, 싸움하다, 셈하다, …

- (41) ㄱ. 달리기하다, 던지기하다, 더하기하다, 빼기하다, 나누기하다, …

‘-하다’는 선행어가 동사성을 갖을 때나 형용사형이 능후한 한자어나 외래어에만 결합되고, ‘책, 집, 차’등과 같은 실체성 명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서정수 1996). 그런데 동사 어간과 결합한 ‘-음’파생어는 ‘-하다’와 결합되지 않는 반면 ‘-기’파생어는 ‘-하다’와 결합이 자유롭다. (40ㄴ)과 같이 어휘화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사 어간+음’구성의 단어가 ‘-하다’와 결합되지 못한다.<sup>33)</sup>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 ‘-기’는 ‘동작성’의 갖는 반면 ‘-음’은

33) (40ㄴ)과 같이 ‘-음’파생어가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이유를 김창섭(1996)에서는 이들 단어가 어휘화되어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작성’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42)과 같이 ‘N-V-음’의 구조를 갖는 파생어가 ‘-하다’와 결합되는 현상을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ㄱ. \*물음을 하다, \*믿음을 하다, \*죽음을 하다, \*울음을 하다,  
       \*잠을 하다, \*얼음을 하다, \*도움을 하다, \*짐을 하다, ...  
       ㄴ. 가을뿌림하다, 끝맺음하다, 낮가림하다, 눈가림하다, 앞가림하다,  
       자리바꿈하다, ...

왜냐하면 (42)는 동일한 ‘-음’구성 파생어이지만 ‘V-음’구성이 ‘-하다’와 결합 제약이 있는 것과 달리 ‘N-V-음’ 구성은 ‘-하다’와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김창섭(1996)에서는 ‘V-음하다’는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V하다’에 의해 저지가 되는 반면, ‘N-V-음하다’는 통사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즉 저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V-음하다’와 ‘V하다’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르치다’와 ‘가르침하다’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 김창섭(1996)은 ‘-음’은 문법적 의미이외에 어휘적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V-음하다’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때는 상당히 설득적이다. 그러나 ‘-음’이 명사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 다른 의미적 특징이 없다고 보는 위와 같은 설명을 수용하면, ‘-음’이 왜 특정한 상위문 술어와만 공기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sup>34)</sup>

- (43) ㄱ. 영화는 철수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음을 {안다, 들었다}  
       ㄴ. 영화는 철수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를 {\*안다, \*들었다}

34) 이맹성(1968), 권재일(1981, 1982), 우형식(1987) 등에서는 상위문 술어가 ‘-음’과 ‘-기’를 지배한다고 보고 이들 사이의 제약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결과로 ‘-음’이 상태동사나 자동사와 공기하고, ‘-기’는 심리적 상태동사나 관용적 표현들과 공기하는 반면, ‘-음’이 인지 및 지각 행위 동사와 공기하고 ‘-기’는 심리적 상태동사나 미래적 행위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주장하였다(이필영 1998).

- (44) ㄱ. 학교 다니기가 {어렵다, 쉽다}  
 ㄴ. 학교가 다님이 { \*어렵다, \*쉽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음'구성은 '인지동사나 지각동사'와 공기가 자유로운 반면 '-기'구성을 이러한 동사류와 공기 제약이 있다. 반면에 '-기'구성은 (44)와 같이 특정 술어와 공기 제약이 있다. '-음'이 만약 어떤 어휘적 의미 특성도 없이 명사만을 만드는 기능만 있다면 왜 다른 명사와 달리 특정 술어와만 결합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다'와 결합 제약 문제를 '-음'이 어휘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음'의 어떠한 특성이 '-하다'와 결합을 제약하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 (45) ㄱ.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지라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거야.  
 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ㄷ.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나는 기뻐요.
- (46) ㄱ. (너의) 놀림이 그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니?  
 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구나.  
 ㄷ. (선생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채완(1979)은 '-음'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1회적인 사건'이라고 보았으며, 임흥빈(1974)에서는 '오관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존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45)의 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써 '죽음, 삶,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관에 의해 지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죽다, 살다, 돕다'는 구체적 실체의 [사건]영역이지만, '-음'이 결합된 '죽음, 삶, 도움'등의 의미는 물리적 시공간 밖에 위치하는 [추상]적 현상이다.

한편, 김일환(2004)에서는 (46)처럼 '-음'구성만이 '주어적 속격'구성을 허용하는데, 이는 '-음'이 '존재성'을 의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의}는 사건 및 논항의 존재성을 전제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존재성'을 갖는

‘-음’과만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반론이 될 수도 있다. (46)의 ‘-음’구성은 ‘(X의)’부분을 생략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는 ‘놀림, 흐름, 가르침’등이 존재성<sup>35)</sup>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 존재성을 전제하는 {의}가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X의)’가 첨가됨으로써 ‘추상적 실체’가 1회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일종의 ‘존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구성이 ‘명사’라는 점에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러한 실체가 물리적 시공간 밖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추상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그러므로 ‘음’의 의미 특성은 [추상적 실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다’와 결합 제약은 ‘-음’이 가진 [실체성] 자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음’이 [추상적 실체성]을 갖기 때문에 ‘-하다’와 결합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위와 같은 설명은 ‘V-음하다’는 불가능한데 ‘N-V-음하다’는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 (47) ㄱ. 끝맺음하다, 낮가림하다, 눈가림하다, 말막음하다, 발돋움하다, 품값음하다, 탈바꿈하다, 발뺌하다, 대물림하다, 자리바꿈하다, 팔놀림하다, 무릎꿇림하다, 책상물림하다,...
- ㄴ. 눈겨름하다, 보쌈하다, 가을뿌림하다, 말다툼하다,...
- ㄷ. \* 땅울림하다, \* 산울림하다, \* 사람됨하다,...

(47)과 같이 ‘N-V-음’구성을 보이는 단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 방법은 (48ㄱ)과 같이 ‘[N-[V-음]]’구조를 갖거나 (48ㄴ)과 같이 ‘[[N-V]-음]’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35) 김일환(2004)에서는 ‘존재성(existenc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존재성’을 갖는다는 물리적 시간, 또는 공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6) ‘-음’구성 파생어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명사로 파생되는 예가 거의 없는데(송철의 1992: 146), 이 역시 ‘-음’이 물리적 시공간 밖에 위치하는 [추상적 실체성]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48) ㄱ. [[끝[맺음]]하다]

ㄴ. [[끝맺]음]하다]

(49) [[죽음]하다]

먼저 (48ㄱ)의 내부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구조를 갖는다면 'N-음'구성과 달리 'N-V-음'구성이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이유를 인접조건 (Adjacency Condition)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Siegel(1977 : 23)과 Allen(1978)은 단어형성 규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접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50) X가 접사이고 Y가 X에 인접한 순환에 유일하게 들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단어형성 규칙도 X와 Y를 포함할 수 없다

(51) ]x    ]y    ]z  
       ↑    |    |  
       └── X ─┘

예컨대 (51)과 같은 형태구조가 주어지고, X와 Y가 단어 안의 순환의 절점이라고 한다면 X는 Y에만 접근할 수 있을 뿐 Z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비유해서 말하자면 제약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담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상범 1995). 이 조건을 수용하면 '[N-[V-음]]' 구조를 보이는 (47ㄱ)과 (47ㄴ)의 파생어들이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다'와 '-음' 사이에는 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제약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왜 동일한 구조를 갖는 (47ㄷ)은 '-하다'와 결합이 부자연스러운지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47)의 파생어의 '[V-음]' 구성이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맺음, 막음, 갓음, 바꿈, 뺨...'과 같은 파생어가 실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단어의 형성이 '[N-[V-음]]'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들 단어는 (48ㄴ)과 같이 '[[N-V]-음]'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 파생어는 'N'과 'V'의 관계가 서로 다른데, 이러한 관계에 따라 '-

하다'와의 결합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47ㄱ)은 '목적어 + 타동사'의 관계이고, (47ㄴ)은 '부사어 + 타동사'이고, (47ㄷ)은 '주어 + 타동사'의 관계이다(송철의 1992 :149). 그런데 (47ㄱ)과 (47ㄴ)은 '-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반면, '주어+타동사'의 관계에 있는 (47ㄷ)의 경우는 '-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N-V]-음]'구성의 경우에도 '-음'이 '-하다'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47ㄱ)과 (47ㄴ)과 같이 '-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현재로서는 (48ㄱ)이나 (48ㄴ)과 같은 가정으로는 여전히 설명이 미진하다. 필자는 (47)과 같은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동시에 결합되었고 본다. 'N-V-음' 구성 파생어는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즉 'N-V-음'구조를 보이는 파생어는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V-음'구조를 보이는 파생어는 형태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다'의 결합 제약은 이들 구성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유허의 어휘 강도와 어휘 연결 관계가 서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N'과 'V'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하다'와 결합이 자연스러운 (47ㄱ)은 'N'이 'V'의 목적어이며, (47ㄴ)은 'N'이 'V'의 부사어이고, (47ㄷ)은 'N'이 'V'의 주어이다. 즉, 이들 구성은 결합의 강도와 연결 관계가 다른 것이다.

### 5.2.2.2. '-이'

5.2.1.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는 다양한 의미로 실현된다. (52ㄱ)은 [행위]로 해석되며, (52ㄴ)은 [사물]로 해석된다.

- (52) ㄱ. 놀이하다, 물이하다, 벌이하다, 풀이하다, 떨이하다, ...  
 ㄴ. \*웃겘이하다, \*책꽂이하다, \*재떨이하다, \*먼지떨이하다, ...

- (53) ㄱ. 놀이를 하다, 물을 하다, 벌이를 하다, 풀이를 하다, 떨이를 하다, ...  
 ㄴ. ?구이를 하다, ?구이하다, \*먹이를 하다, \*먹이하다, ...

(54) ㄱ. 소몰이하다, 소몰이를 하다.

ㄴ. \*옷걸이를 하다, \*책꽂이를 하다, \*재떨이를 하다, \*먼지털이를 하다,...

그런데 [행위]의 의미를 갖는 (52ㄱ)의 경우는 '-하다'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사물]의 의미를 갖는 (52ㄴ)의 경우는 '-하다'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또한 (54ㄱ)과 같이 'N-V-이'구성 파생어도 [행위]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반면, [사물]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하다'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하다'가 '동작성'을 갖는 명사와만 결합한다는 논리에 잘 들어맞는다.

위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이'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행위]의미로 실현되는 (52ㄱ)의 경우는 '-하다'와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대상성'을 강하게 갖는 즉, 특정 시공간에 위치하는 [사물]의 의미를 갖는 (52ㄴ)의 경우는 '-하다'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ㄴ)의 경우도 설명이 가능하다. '먹이'는 '구이'에 비해 '-하다'와 결합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는 '먹이'가 '구이'에 비해 '대상성'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들 단어가 파생의 근간이 되는 동사와 연결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이'는 '굽는 행위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사 '굽다'와 연결 강도가 '먹이'가 '먹다'와 맺는 강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구이'에는 여전히 '굽다'의 동사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구이'가 '[[N-굽]-이]'의 구조에서 재분석된 것이라는 점이 이러한 설명을 지지해준다.

그러므로 '-이'는 '대상성'과 '동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가 발현되는가에 따라 '하다'와 결합 제약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2.2.3. '-기'

다음은 '-기'의 문제를 살펴보자. '-기'는 단순히 '행위성'이나 '동작성'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보여진다.

(55) ㄱ. 달리기, 던지기, 뛰기, 매달리기,...

- ㄴ. 말하기, 읽기, 쓰기, 읽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 ㄷ. 아껴쓰기 운동, 버리지 않기 운동, 나누어 쓰기 운동,...

‘-기’구성 파생어는 구체적인 사건으로써 ‘동작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적 속성’을 지시한다. 김창섭(1996)은 ‘-기’의 이러한 속성을 ‘규식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sup>37)</sup> ‘-기’ 결합 구성이 유난히 ‘N-V-기’의 구성이 많으며, ‘N’과 ‘V’의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 (56) ㄱ. 숨쉬기, 장보기, 줄넘기, 쥐잡기, 보물찾기, 양치기, 파도타기,...
- ㄴ. 옆차기<sup>38)</sup>, 모두먹기<sup>39)</sup>, 가귀대기<sup>40)</sup>, 가로누르기<sup>41)</sup>,  
가로뜨기<sup>42)</sup>, 가로지기<sup>43)</sup>, 가마타기<sup>44)</sup>, 가보잡기<sup>45)</sup>, 가슴던지기<sup>46)</sup>,...

(56ㄱ)은 ‘N’과 ‘V’가 목적어와 술어의 관계를 보이는 예이고, (56ㄴ)은 부사어와 술어의 관계를 보이는 예이다. 특히 (52ㄴ)과 같은 ‘-기’파생어는 매우 생산적인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용어는 특정한 운동이나 놀이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

37) 이 용어는 김창섭(1996)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김홍수(1975)에서 ‘과정과 방법상의 문제’라고 표현한 것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38) 태권도에서 몸을 정면으로 하고 윗몸을 옆으로 틀면서 그 반대 방향의 옆쪽을 발 모서리로 차는 발기술을 말한다.

39) 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덩비어 먹는 일을 의미한다.  
② 돈치기를 할 때 맞히는 사람이 그 판의 돈을 다 먹는 내기를 의미한다.

40) 투전에서 열다섯 곳 뽑기로 내기하는 노름으로 가귀노름이라고도 한다.

41) 유도에서, 넘어져 드러누워 있는 상대방을 옆에서 덮쳐서 양팔로 상대방의 어깨와 다리를 끼고 누르는 기술을 의미한다.

42) 뜨개질에서, 올의 방향을 가로로 하여 뜨는 일을 말한다.

43) 긴 짐을 가로 방향이 되게 지는 것을 말한다.

44) 어린이 놀이의 하나로 두 사람이 서로 두 손을 맞걸어 잡으면 한 사람이 그 위에 두 다리를 걸쳐 타는 방식을 말한다.

45) 노름에서, 두 장이나 석 장을 뽑아서 아홉 곳 잡기를 내기하는 것을 말한다.

46) 레슬링에서,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상대방의 몸통을 잡고 뒤로 던지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기' 결합 구성의 동사는 모두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작성'보다는 '행위성'이 적절하다. '상태동사'와 잘 결합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상태동사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욱(1989)에 의하면 중세국어에서 '-기'는 형용사를 제외한 동작 동사의 '대격어+동사'만을 어기로 하여, 상위문 동사의 대격어 자리에 한정되는 폐쇄적 용법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 역시, '-기'가 '행위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격어+동사'의 구조는 심층에 'X가 Y를 V한다'의 구조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 행동의 주체인 'X'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층에는 행위 주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의 의미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방법이나 과정'의 의미한다. (55c)과 같이 '~기' 다음에 '캠페인'을 의미하는 '운동'이라는 명사가 쉽게 결합되는 이유도 이러한 '-기'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음, -기'의 의미 특성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57) '-이, -음, -기'의 의미 특성

|       | -이                   | -음       | -기             |
|-------|----------------------|----------|----------------|
| 의미 특성 | [사물]<br>[사람]<br>[사건] | [추상적 실체] | [행위성의 과정 및 방법] |

즉, '-기'는 '행위의 과정 및 방법'이라는 의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하다'와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V-음'구조를 갖는 '-음'은 '실체성'에 의해 선행 어간의 동작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다'와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이'는 [사물]과 [사람]의 구상적 실체 뿐 아니라 동작성을 갖는 [사건]의 의미도 갖는데, [사건]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하다'의 결합이 자유롭다.

## 6. 결 론

### 6.1. 요 약

이 연구는 어휘부의 저장 방식과 단어 형성의 상관관계를 연결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연결주의는 뇌의 신경망 모형에 근거한 것으로 어휘들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연결주의 관점에서 어휘부를 기술할 때는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연결주의에서는 단어들이 '내용(의미)'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결의 절점(node)이 되는 '의미 영역'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명사 접미사를 대상으로 존재론적 분류 기준에 의해 의미 영역별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접미사의 의미를 미시적으로 기술하였다.

1장에서는 필자의 연구 관점 및 연구 대상을 제시하였다. 단어는 문장과 달리 기억된다. 즉 단어는 저장의 대상인 것이다. 연결주의 관점에서 단어는 독자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저장된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 망 속에 새로운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단어 형성 역시 연결의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연결주의 관점에서는 단어의 저장 방식을 검토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2장에서는 단어 형성 논의에서 어휘부의 저장 방식이 왜 선결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기반 단어 형성과 유추 기반 단어 형성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서로 다른 단어 형성 기제는 결국 어휘부에 대한 다른 전제 속에서 잉태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단어 형성에 대한 문제는 단어의 저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어 형성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어휘부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어휘부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결주의를 수용하였다. 연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Bybee(1985, 1988)의 어휘 강도(Lexical strength)와 어휘 연결(Lexical connections)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으로 파생어의 내부구조와 동일접미사를 포함하는 파생어들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어휘의 연결 방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패턴이 새로운

단어 형성의 기제가 되며, 동시에 이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단어를 연결하는 견인자(attractor)의 기능을 수행한다.

3장에서는 의미 영역을 기술하였다. 연결주의에서는 연결의 절점(node)이 '내용(의미)'이기 때문에 의미 분류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접미사의 의미 분류 기준으로 존재론적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 분류 기준에 의해 명사 접미사를 의미 영역별로 하위 분류하였다. 존재론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접미사는 [실체]접미사와 [양식]접미사, 그리고 [기타]접미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실체]접미사는 다시 [사물]접미사와 [사람]접미사, [사람·사물]접미사로 하위 분류되며, [양식]접미사는 [사태]접미사와 [관계]접미사로 하위 분류된다.

4장에서는 의미 영역별로 개별 접미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다. 파생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구성 요소인 어근과 접미사의 의미만으로 파생어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생어 형성을 규칙 기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런데 파생어의 새로운 의미는 파생어의 결합 방식인 비서술적 결합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비서술적 결합 방식은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적 관계로 결합되기 때문에 언어적 단서만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즉, 구성 요소 사이에서 도출되지 않는 의미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 방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파생어 형성에서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 유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합 유형에 의해 해당 접미사의 다양한 패턴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바로 새로운 단어의 연결 원리이자 형성 기제가 되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접미사 상호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5.1.에서는 파생접사 내부에서 보이는 서열적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배적 접사가 한정적 접사를 선행한다고 하였으나, 접미사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형태적 정보가 아니라 의미적 정보라는 것을 밝혔다. 5.2.에서는 표면적으로 배타적 결합 양상을 보여 '저지(blocking)현상'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이, -음, -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 '-이, -음, -기'의 배타적 결합 양상은 이들 접미사의 고유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파생 접미사의 서열적 결합 현상과 '-이, -음, -기'의 배타적 현상은 개별 접미사의 '의미'에 기인한 것이다.

## 6.2. 연구의 의의 및 남은 문제

단어 형성에서 어휘부에 대한 논의는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이다. 이는 어휘부의 존재 방식과 단어 형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단어 형성의 문제는 '규칙'으로 설명되어 왔다. 어떤 현상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예측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있다. 그런데 통사적 과정과 달리 단어 형성과 같은 형태적 과정은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파생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파생어 논의에서도 접미사는 실사와 달리 의미 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미적 접근은 몇 개의 접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는 주로 문법론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몇 개의 접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나무는 그리되 숲을 그릴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의 이번 연구는 숲의 한 부분을 그리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째, 어휘부의 저장 방식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감이 있다. 즉 가설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존의 단어들은 의미, 형태, 음운 등 여러 층위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음운, 형태 측면의 패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한 접미사가 특정한 유형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이, -음, -기'가 표면적으로 어근과의 결합에서 배타적 양상을 보이는데, 어떠한 의미적 속성 때문에 특정한 유형의 어근과만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하였다.

## ■ 참고 문헌 ■

- 강범모·이유선·차재은(2002), “다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연구 및 모형 개발(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강은국(1992),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고영근(1970), ‘현대국어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6-1.
- 고영근(1972ㄱ),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논문집 18.
- 고영근(1972ㄴ),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II)-통합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4호, 55-8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고영근(1974), “국어접미사의 연구”, 광문사.
- 고영근(1989/1999), “국어형태론 연구(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재설(1992), “‘구두담이’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8, 17-30.
- 고광주(2000), ‘‘명사+동사+접사’형 파생명사의 형성과정’, 한국어학 12, 67-88.
- 고창수(1986),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259-269, 국어학회.
- 고창수(1994), “시제 처리의 자질 통사론”, 어문논집 33호, 175-192. 민족어문학회.
- 고창수(1995), ‘문법 모형의 비선형성에 대하여’, 한성어문학 14, 103-114, 한성대학교.
- 고창수(1996), ‘형태 이론의 점검’, 국어학 27, 233-250, 국어학회.
- 고창수(1997),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권 봄호, 87-106, 한국어학회.
- 고창수 편저(1999), “한국어와 인공지능”, 태학사.
- 구본관(1993),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117-140, 서울대국문과.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113-140.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1999),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1, 1-23, 박이정.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1), “2001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권재일(1987), ‘의존구문의 역사성-통사론에서 형태론으로’, 말 12, 5-24, 연세대 한국어학당.
- 권재일(1991), ‘국어 문법 범주의 변화 양상과 언어 유형론적 특성’, “문법 II”, 국어학

강좌 2, 태학사.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김계곤(1968), ‘현대국어의 앞가지(접두사) 처리에 대한 관견’, 낙산 김정한선생 송수기념논문집.
- 김계곤(1969ㄱ), ‘현대국어 뒷가지(접미사)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호,
- 김계곤(1969ㄴ),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교육대학논문집 4편.
- 김계곤(1996), “현대국어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광해(1990), ‘수량 표현’,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명광(1997), “국어 파생어의 형태론적 어휘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1986), “신국어학”, 일조각.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양진(1999), “국어 형태 정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택(1994), “자연 언어 처리”, 교학사.
- 김영석(1990), ‘어휘부의 조직’, 어학연구 2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원경(1993), “국어 접사피동의 생성론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2000) “한국어 격 정보와 자질 연산 문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일환·박종원(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141-245.
- 김일환(2004), ‘개화기 국어 명사화의 계량적 연구’,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87-98, 한국어학회.
- 김정은(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 김진두(2000), ‘최적성이론에서의 불투명성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42-2, 165-189, 한국영어영문학회
- 김진해(1997), ‘국어 파생어의 의미형성에 대하여’, 어문연구 96호, 86-10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 연구 47.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 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73-99, 국어학회.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145-161, 진단학회.
- 김창섭(1990), ‘복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 김창섭(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철남(1993), ‘-이’파생명사의 통시성’, 동아어문논집3, 239-256, 동아대학교.
- 김철남(1997), “우리말 어휘소 되기”, 한국문화사.
- 김한샘(2000), 한국어 명사의 어휘망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 사전편찬학 연구.
- 김홍수(1975), “중세국어의 명사화 연구”, 국어연구 34.
- 나은미(2004), “의미를 고려한 접미사의 결합관계”, 한국어학 23, 73-97.
- 남경환(2000), “다의 분석을 통한 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95-118.
- 민현식(1990), ‘명사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295-325.
- 문세영(1954), “국어 대사전(수정증보판)”, 영창 서판.
- 문유진(1996), “의미론적 어휘개념에 기반한 한국어 명사 WordNet의 설계와 구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선우(2004), ‘국어의 음절화와 패러다임 통일성’, 한국어학 22, 131-151, 한국어학회.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변정민(2001), “국어의 인지 동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1996), “국어 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광수(1988), ‘국어의 단어와 조어-어휘구조와 어형성 규칙(4)-’, 주시경학보 1, 88-110.
- 성광수(1993), ‘어휘부의 형태·통사론적 접근’, 어문논집(고려대)32, 127-153.
- 성기철(1969), ‘명사의 형태론적 구조’, 국어교육 15.
- 송도규(1997), “인지언어학과 자연언어 자동처리”, 홍릉과학출판사.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형태론 2-1, 1-16.
-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 송철의(1983), ‘파생어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47-72, 국어학회.
- 송철의(1985), ‘파생어형성에 있어서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193-211, 진단학회.
- 송철의(1989/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97), ‘국어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양학 27, 45-6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미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송철의(2002), ‘국어의 파생어와 의미’, 2002 한국어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집.

- 손춘섭(1992),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시정곤(1994), ‘‘해돋이’와 ‘돈벌이’ 형의 단어 형성’, 한국어학 1, 332-363, 한국어학회.
- 시정곤(1995), ‘어휘 결합과 의미 해석’, 언어 20, 96-131, 한국언어학회.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수정판)”, 한국문화사.
- 시정곤(1999ㄱ), “X+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태론 1권 1호, 133-141.
- 시정곤(1999ㄴ),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권 2호, 261-283.
- 신창순(1975), ‘국어 조사의 연구’, 국어국문학 67.
- 신현정(2000), “개념과 범주화”, 아카넷.
-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 기능’, 언어 5-1, 79-102.
- 안상철(1998), “형태론”, 민음사.
- 안상철 · 이봉형 · 이보림(2000), “최적성 이론의 이해”, 한신문화사.
- 안효경(2000), “현대국어 의존명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재훈(1986), “한국어 동사성명사 합성어의 조어법과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연재훈(2001), ‘이른바 ‘고기잡이’류 통합합성어의 단어형성에 대한 문제’, 형태론 3-2, 333-343.
- 이경우(1981),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의미변화”, 국어교육 39·40 합병호.
- 이관규(1996), ‘통사 자질과 의미 자질’, 국어국문학 116, 39-59.
- 이관식(1997), ‘국어 인칭접미사의 어원연구’, 어문연구 95, 113-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광호(1991), ‘명사화소 ‘-기’의 의미 기능과 그 기원에 대한 소고’, “문법 II”, 국어학 강좌 2, 태학사.
- 이노우에 마사요시(1996), “카오스와 복잡계의 과학”, 강석태 옮김(2002), 한승.
- 이동석(1998), ‘근대국어의 파생법’,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홍종선 편)”,
- 이석주(1984), ‘명사화접미형태소 ‘~이, ~(으)ㄴ, ~기’의 구상명사화 기능에 대한 고찰’, 논문집 8, 한성대학교.
- 이석주(1985), ‘국어의 구조와 의미-단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집 9, 35-52, 한성대학교.
- 이석주(1987ㄱ), “국어의 어구성 연구: 복합어와 파생어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이석주(1987ㄴ), ‘국어 파생어 연구-의미론적 접근에 의한 파생접사와 굴절접사의 구별을 위하여-’, 홍익어문 7, 755-777, 홍익대학교.
-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
- 이석주(1995), ‘복합어 구성성분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7·88, 247-26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석주(2001ㄱ), '합성어의 단일어화 현상', 국어교육 104, 143-165,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이석주(2001ㄴ), '국어 단어의 통어 범주의 변동', 국어교육 106, 91-115, 국어교육연구회.
- 이승욱(1991), "-(으)ㄴ, '-기'의 구성 동명사의 사적 특성", "문법 II", 국어학 강좌 2, 태학사.
- 이은정(1981), '파생어 규칙에 관한 조건 원칙 시안-현대 국어의 접사 처리 검토-', 한글 173·174 합본호, 515-543.
-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121-129, 국어국문학회.
- 이승욱(1989), '중세어 '-(으)ㄴ, '-기'구성 동명사의 사적 연구',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 이재윤·김태수(1998), 'WordNet과 시소러스', 언어정보개발연구 1, 203-237,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원.
- 이재인(1989), '명사 파생 절차의 통사적 기술-'이'명사와 '개'명사를 중심으로-', 배달말 14, 75-88, 배달말학회.
- 이재인(1994), "국어 파생접미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모(1996ㄱ), '마음은 기계인가?: 튜링기계와 피델 정리',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구", 265-283, 성원사.
- 이정모(1996ㄴ), '연결주의 : 이론적 특성과 문제점',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구", 115-129, 성원사.
- 이정모·이홍철(1996),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특성',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구", 55-67, 성원사.
- 이정모·이종구(1996), '정보처리적 접근의 형성 배경',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구", 69-83, 성원사.
- 이정모(1998), '언어심리학의 형성사(I):Chomsky 이전 언어학과의 상호작용', "인지언어학의 제 문제 II", 15-47, 학지사.
- 이정모(1998), '언어심리학의 형성사(II):Chomsky 언어학과의 상호작용', "인지언어학의 제 문제 II", 49-75, 학지사.
- 이정모(2003), "인지심리학-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아카넷.
-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도서출판 역락.
-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 이주행(1981), '국어의 복합어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6, 53-87, 국어국문학회.
- 이현진(1998), '언어 습득에서의 제약', "인지언어학의 제 문제 II", 383-402, 학지사.
- 이현희(1990),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 이현희(2002), "국어 명사형성접미사의 결합양상과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이필영(1998), '명사절과 관형절', "문법연구와 자료", 492-516, 태학사.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395-425, 국어학회.
- 임지룡(1991), ‘국어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87-131, 경북대 국어교육과.
- 임지룡(1993),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새 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29, 1-33, 국어교육연구회.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83-104.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167-196.
- 오정란(1996), ‘국어 격조사의 상보적 분포와 최적성 이론’, 국어학 28, 159-186, 국어학회.
- 오정란(1997), “현대국어음운론(개정판)”, 형설출판사.
- 원대성(1984),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론적 분석’, 어학연구 16-2, 167-184.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유경·이승복(1998),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 “인지언어학의 제 문제 II”, 361-381, 학지사.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전상범(1996), ‘자연형태론: 최적성이론과의 대비에서’, 영어영문학 제 42권 3호, 677-698, 영어영문학회
- 전상범·김진우·정국·김영석(1997), “최적성 이론”,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특강 시리즈 3, 한신문화사.
- 정원수(1994),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85.
- 조성식 외 편(1990), “영어학 사전”, 신아사.
- 조일규(1997), “파생법의 변천 I”, 박이정.
- 주시경(1910), “국어문법”, 역대한국어문법대계 1-11 재록.
- 차운옥(1999), ‘인공지능의 이해’, “한국어와 인공지능”(고창수 편저), 태학사.
- 채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95-107.
- 채현식(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0.
- 채현식(1997), ‘‘고기잡이’, ‘줄넘기’, ‘다림질’류의 재분석에 대하여’, 전농어문연구 9, 199-214, 서울시립대국문과.
- 채현식(1999), ‘조어론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 1권 1호, 25-42.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채현식(2003),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형태론 5권 1호, 1-21.
- 최경봉(1996),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 4, 11-45.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최경봉(2001),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어휘의 의미 분류-명사의 분류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8권 2호, 275-303, 담화인지언어학회.
- 최정혜(1999), “국어 명사의 단위성 연구-수량 표현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훈(1998), “전의 합성 명사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 최호철(1991), ‘의미상의 중심과 경음화’, 어문논집 30, 313-329, 민족어문학회(구 안암어문학회)
- 최호철(1993), ‘어휘부의 의미론적 접근’, 어문 논집 32, 185-215, 민족어문학회(구 안암어문학회).
- 최호철(1994), ‘현대 국어 가의소의 의미 분석(1) : ‘-답다, -되다, -롭다, -스럽다’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 415-444.
- 최호철(1999), ‘형태론과 국어 어휘론’, 제 26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집.
- 한국언어병리학회(1989), “실어증 환자의 말-언어 치료”, 한국언어병리학회.
- 하치근(1986), ‘국어 인칭접미사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6편, 171-194,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하치근(1987), “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치근(1999), “-음’ 접사의 본질을 찾아서’, 형태론 1권 2호, 359-309.
- 한광희(1996), ‘신경망적 접근’,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구”, 85-113, 성원사.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사만(1977), ‘국어 접미사 목록에 대한 재고(I)-N류 파생접미사와 조사의 동요-’, 어문학 36, 한국어문학회.
- 홍사만(1983), “국어 특수 조사론”, 학문사.
- 홍재성(1990), ‘어휘부 구성의 기본 문제’, 어학연구 2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홍재성(2001), ‘한국어의 명사 I’ 새국어생활 제 11권 3호, 129-131, 국립국어연구원.
- 홍종선(1983ㄱ),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 241-272, 한국언어학회.
- 홍종선(1983ㄴ), ‘명사화 어미의 변천’, 국어국문학 89, 117-137, 국어국문학회.

- 황도삼·최기선·김태석(1998), “자연언어처리”, 흥릉과학출판사.
- 황도생(1992), ‘명사 조어모형의 한독 비교’, *독어교육* 10, 143-171,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황화상(1997), ‘국어의 접사 체계’, *한국어학* 5권 봄호, 31-52, 한국어학회.
- 황화상(2000), ‘국어 형태 구조 연구’, *한국어학* 제 11집, 339-357, 한국어학회.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화상(2002), ‘국어 접사의 기능과 형태 범주-복합어 내부의 개재 접사를 중심으로-’, *언어* 27-4, 683-702, 한국언어학회.
- Aitchison, J.(1987)/임지룡·윤희수 역(1993), *심리언어학(Words in the Mind)*, 경북대학교 출판부.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Barabasi, A. L(2002)/강병남·김기훈 옮김(2002), *링크(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동아시아.
- Bauer, D. W. & Stanovich, K. E.(1990), Lexical Access and the Spelling-to-Regularity Effect, *Memory and Cognition* 8, 424-432.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 Henry Holt and Company.
- Bybee, J. L.(1985)/이성하·구현정 옮김(2000), *형태론-의미·형태에 관한 연구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한신문화사.
- Bybee, J. L. (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Theoretical Morph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119-141.
- Bybee, J. L.(1994), A view of phonology from a cognitive and functional perspective, *Cognitive linguistics* Vol. 5 No.4, 285-305.
- Bybee, J. L.(1995), Regular morphology and the lexic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5, 425-455.
- Chomsky, N(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edited by R. Jacobs and P. Rosenbaum. Waltham. Mass: Blaisdell.
- Chomsky, N.(1986)/이선우 역(1990), *언어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대우학술총서·번역 34, 민음사.

- Di Sciullio, A. M. & Williams, E.(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A: MIT Press.
- Grimshaw, J.(1986),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Halle, M.(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4, 3-16.
- Hockett, C.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Mcqueen, J, M. and Cutler, A(1998), Morphology in word recognition, *Handbook of morphology*, Oxford: Blackwell.
- Jackendoff, R.(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 MIT press.
- Jackendoff, R.(1990)/고석주 · 양정석 옮김(1999), 의미구조론(*Semantic Structures*), 한신문화사.
- Kiparsky, P.(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van der Hulst and Smith(eds.).
- Lukatela, G. B. et al,(1980), Representation of inflected nouns in the internal lexicon, *Memory and Cognition* 8. 415-423.
- Lyons(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 Press.
- Miller, G. A(1991)/ 강범모 · 김성도 역(1998), 언어의 과학(*The Science of Words*), 민음사.
- McCarthy, J.(1991)/김영석 · 김진형 공역(2003), 최적성이론의 주제별 안내(*Thematic Guide to Optimality Theory*), 한국문화사.
- Nida, E.(1949/1978). *Morphology :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ida, E. A.(1975)/조항범 역(1990), 의미 분석론(*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탑출판사.
- Ogden, G. K. & I. A. Richards(1923)/김봉주 역(1986), 의미의 의미(*The Meaning of Meaning*), 한신문화사.
- Ouhalla, J.(1994), *Introducing Transformational Grammar*. London.
- Pinker, S.(1994)/김한영 외 역(1998), *The Language Instinct*( 언어본능), 도서출판 그린비).
- Segui, J. & M. L. Zubizarreta(1985), Mental representation of morphologically complex words and lexical access, *Linguistics* 23, 759-774.
- Saussure, Ferdinand de(1916)/오원교 역(1971),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형설출판사.

- Scalise, S.(1984)/전상범 역(1987), 생성형태론(*Generative Morphology*), 한신문화사.
- Selkirk, E.(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The MIT Press.
- Spencer, A.(1991)/전상범 · 김영석 · 김진형 공역(1994), 형태론(*Morphological Theory*), 한신문화사.

## ABSTRACT

### A Study on Word-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ism - Focused on noun suffixes -

Na Eun Mi

Major in Korean linguistics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e correlation between word storage methods and word-form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nectionism. Different from sentences, words are remembered. That is, words are stored. Connectionism assumes that words in the lexicon are not stored separately but connected to one another. Thus that a new word is stored in the lexicon means that new connection relations are established in the existing word network. In addition, the formation of new words is closely related to how words are interconnected within the lexicon.

Chapter II describ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xicon and word-formation. Discussions on words so far have been focused on what is the mechanism of word-formation. Two representative mechanisms are rule-based word formation and analogy-based one. In fact, however, these mechanisms are based on different hypotheses for the lexicon. Thus discussion on the lexicon should precede discussion on what is the mechanism of word formation. I takes the viewpoint of connectionism that words in the lexicon exist in connection with one another. In other to explain connection methods, this study adopted the concepts of lexical strength and lexical connections proposed by Bybee (1985, 1988). These concepts explain the internal structure of derived words and the connection relation among derived words with the same suffixes. Various types of patterns resulting from word connection (storage) methods become the mechanism of how new words are formed, and such patterns play the

role of attractors connecting the new words.

Chapter III described semantic domains. Because connection nodes are contents (meanings) in connectionism, semantic classification is important. For semantic classification, this thesis proposed criteria for ontological classification and, based on the criteria, classified noun suffixes according to semantic domain.

Chapter IV described microscopically the pattern of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 suffixes and roots by semantic domain. Derived words and compound words are composite notions containing two or more concepts. This chapter examined how two or more concepts interconnect with one another and how derived words are connected. In addition, there are cases that new meanings are not derived just from the meanings of the components of derived words. The new meaning of a derived word is expressed by the semantic relation among its components. Thus it is important to find the semantic pattern of connection between roots and suffixes.

Chapter V described the semantic relation between suffixes. Previous researches viewed that governing affixes precede definitive affixes, but this thesis clarified that the arrangement of suffixes is affected not by formative information but by semantic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chapter dealt with the issue of ‘-이(-i), -음(-eum), -기(-gi)’, which caused a controversy over ‘the blocking phenomenon’ as it outwardly showed the pattern of exclusion connection. This chapter proved that the pattern of exclusion connection of ‘-이(-i), -음(-eum), -기(-gi)’ originated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these suffixes.

Lastly, Chapter VI suggested the contribution and the meaning of this dissertation and discussed future research tasks and prospects.

Key words : connectionism, lexicon, lexical strength, lexical connections,  
word-formation rules, derived word, semantic domain, noun suffixes,  
word-formation mechanisms, semantic pattern, ontological classification,  
rule-based word-formation, analogy-based word-formation.